

제29회
영동문화 창달을 위한
전국학술대회

2021.11.9 (수) 14:00~

주최/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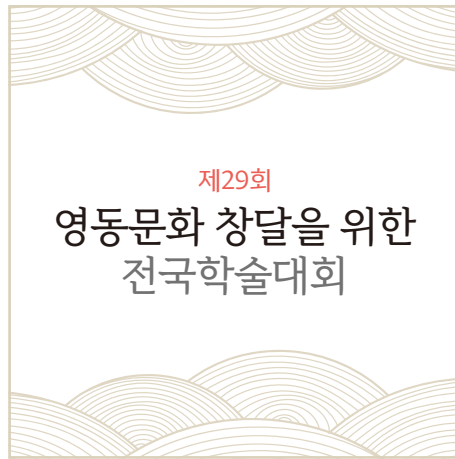


강릉원주대학교
인문학연구소

후원



강릉시오죽현/시립박물관
GANGNEUNG CITY



제29회

영동문화 창달을 위한
전국학술대회

PROGRAM

시 간	내 용	소요시간	세부내용
14:00~14:20	개회식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회사 : 최 일 의(인문학연구소장) • 축 사 : 구 자 혁(인문대학장) • 축 사 : 김 흥 술(오죽헌시립박물관장)
14:20~14:30	정 리	10"	• 장내 정리
14:30~15:30	주제발표	각 20"	• 제1세션 : 3개 주제발표
15:30~15:40	휴 식	10"	• 휴식
15:40~16:40	주제발표	각 20"	• 제2세션 : 3개 주제발표
16:40~16:50	휴 식	10"	• 휴식
16:50~17:50	총 합 토 론	각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션 1 : 3명 토론 • 세션 2 : 3명 토론
17:50~	폐 회		

- 세션 1 : 영동지역 인문자산의 대중화 -

시 간	소요시간	주 제
14:30~14:50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문화유산의 아카이브와 대중화 방안 - 발표 : 고 형 순(강원도문화재연구소 보존관리팀장) - 토론 : 김 남 균(강원도DMZ박물관 학예연구관)
14:50~15:10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동지역 고문헌의 DB구축 서비스 방안 - 발표 : 황 은 영(강원대학교 국학연구소 연구원) - 토론 : 김 정 현(강원도사편찬위원회 상임위원)
15:10~15:30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릉 오죽헌시립박물관 운영 활성화 과제 - 발표 : 이 상 균(강릉원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 토론 : 정 병 진(강원대학교 사학전공 강사)

- 세션 2 : 인문학 분야 자유주제 -

시 간	소요시간	주 제
15:40~16:00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 논리 논술 교육 - 발표 : 손 남 익(강릉원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토론 : 장 영 숙(강릉원주대학교 교양기초교육본부 강사)
16:00~16:20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方玉潤의 『詩經原始』: '淫詩' 혐의가 제기된 시들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 발표 : 이 남 종(전주대학교 한문교육과 교수) - 토론 : 김 영 식(강릉원주대학교 인문학연구소 특별연구원)
16:20~16:40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흠에게서 자아 형이상학 - 발표 : 백 승 환(강릉원주대학교 철학과 교수) - 토론 : 정 진 범(강릉원주대학교 철학과 교수)

세션 1 : 영동지역 인문자산의 대중화

발표문	강원문화유산의 아카이브와 대중화 방안 고형순 (강원도문화재연구소 보존관리팀장)	09
토론문	「강원문화유산의 아카이브와 대중화 방안」에 대한 토론문 김남균 (강원도DMZ박물관 학예연구관)	21
발표문	영동지역 고문헌의 DB구축 서비스 방안 황은영 (강원대학교 국학연구소 연구원)	23
토론문	「영동지역 고문헌의 DB구축 서비스 방안」에 대한 토론문 김정현 (강원도사편찬위원회 상임위원)	41
발표문	강릉 오죽헌시립박물관 운영 활성화 과제 이상균 (강릉원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43
토론문	「강릉 오죽헌시립박물관 운영 활성화 과제」에 대한 토론문 정병진 (강원대학교 사학전공 강사)	59

세션 2 : 인문학 분야 자유주제

발표문	국어 논리 논술 교육 손남익 (강릉원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63
토론문	「국어 논리 논술 교육」에 대한 토론문 장영숙 (강릉원주대학교 교양기초교육본부 강사)	85
발표문	方玉潤의 『詩經原始』: '淫詩' 혐의가 제기된 시들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이남종 (전주대학교 한문교육과 교수)	87
토론문	「方玉潤의 『詩經原始』」에 대한 토론문 김영식 (강릉원주대학교 인문학연구소 특별연구원)	117
발표문	흠에게서 자아 형이상학 백승환 (강릉원주대학교 철학과 교수)	121
토론문	「흠에게서 자아 형이상학」에 대한 토론문 정진범 (강릉원주대학교 철학과 교수)	141



세션 1 : 영동지역 인문자산의 대중화

발표문 강원문화유산의 아카이브와 대중화 방안	09
고형순 (강원도문화재연구소 보존관리팀장)	
토론문 「강원문화유산의 아카이브와 대중화 방안」에 대한 토론문	21
김남균 (강원도DMZ박물관 학예연구관)	
<hr/>	
발표문 영동지역 고문헌의 DB구축 서비스 방안	23
황은영 (강원대학교 국학연구소 연구원)	
토론문 「영동지역 고문헌의 DB구축 서비스 방안」에 대한 토론문	41
김정현 (강원도사편찬위원회 상임위원)	
<hr/>	
발표문 강릉 오죽헌시립박물관 운영 활성화 과제	43
이상균 (강릉원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토론문 「강릉 오죽헌시립박물관 운영 활성화 과제」에 대한 토론문	59
정병진 (강원대학교 사학전공 강사)	

강원문화유산 아카이브와 대중화 방안

고 형 순

(강원도문화재연구소 보존관리팀장)

목 차

- I. 서론
- II. 강원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 사업 개요
- III. 강원문화유산 원형기록화 및 신규 콘텐츠 제작
- IV. 결론

I. 서론

문화유산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매개체로 보존·관리·활용의 측면을 고려하여 원형보존 및 전승 되어야한다. 이를 위해 강원도와 18개 시·군에서는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많은 정보자원을 생산하고 보관하고 있다. 문화유산 정보자원은 자료 보호와 향유, 재활용 등을 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요구되며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문화유산 기록은 과거 아날로그 방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현재 훼손과 소실의 우려가 있어 문화유산 원형가치 보존을 위한 정보관리¹⁾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정보자원에 대한 디지털 전환은 물리·자연적 환경의 변화와 사회·문화적 배경의 변화로부터 문화유산 원형과 가치를 온전히 보존해 세대 내에 향유, 세대 간 전승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강원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사업은 문화유산 보존과 보호과정에서 생성되고 보관하고 있는 이미지, 사업용역보고서, 수리보고서, 동영상 자료 등의 다양한 매체로 기

1)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도지정문화재 원형기록화 및 DB구축 등 보존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 2019, p175~176.

록화 된 문화자산을 수집하고 디지털로 전환하여 아카이브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드론, 3D 스캐닝 등의 기술발전을 반영한 문화유산 원형기록화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시스템에 등록하여 공개함으로써 자료의 보관성, 개방성, 활용성을 점검하였다.

강원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과 공개는 문화유산 정보자원 통합과 자료 보관성 향상과 수리이력, 과거부터 현재까지 문화유산 변화 과정을 확인 할 수 있는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강원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 사업 개요

II-1. 문화유산 정보자원 관리 현황

강원도청 및 시·군에서는 매년 문화유산과 관련한 정보자원을 창출하고 있다. 생산된 자료는 일반적으로 담당자 및 부서에서 관리하며, 필요에 따라 행정문서와 부속서류를 중심으로 지자체 기록관으로 이관하여 관리 보관되며, 사업성과물로 제출된 자료는 이관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종종 확인된다.

일례로 과거 문화유산 정밀실측 조사 과정에서 문화재에 대한 3D 스캔을 실시하지만 이는 2D도면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뿐 성과물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3D 스캔 자료의 중요성과 활용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담당자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고가 프로그램이 부재하여 전혀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자료보관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인쇄물·인화한 사진·CD 등과 같이 실물로 구현되어 보관되는 문화유산 자료들은 별도 공간을 마련하여 담당자 및 관리부서에서 보존·보관하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까지 생산된 문화유산 관련 자료들은 도서, 보고서, 서류철, 도면, 인화한 사진과 같은 아날로그 형태로 수집·정리되어 왔다. 실물로 보관되는 아날로그 형태 자료들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축적되는 그 양에 따라 보존관리를 위한 공간이 부족해지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특히, 지자체에서 생산되는 자료들 중에서 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은 것은 일정기간 유지된 후 사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자체 문화유산 담당자는 문화유산 보존관리 사업 성과로 제출된 아날로그 및 디지털 형태로 대용량 자료 축적으로 인해 보관과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담당업무 변경, 인사이동, 보관시설의 부재 등의 사유로 인해 옛 자료를 파기하거나 소실되는 안타까운 상황도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상쇄시키는 대안으로 ‘아카이브 시스템²⁾’의 구축이 필요하다. 유기적으로 변화하는 문화유산 변천사를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문화유산에 초점을 맞춘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타당하다. 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은 디지털화 과정을 통해 데이터로 변환한 아날로그 및 디지털 자료를 오랜 기간 동안 보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공간부족으로 인해 야기되는 여러 문제점의 대안으로 설정이 가능하다. 또한 디지털화 된 자료는 접근성 및 공개가 용이하며 공유할 수 있으며 교육 및 활용에 장점을 가진다.

II-2. 강원도 문화유산 정보자원 디지털화의 기준

강원도청과 강원도 내 18개 시·군에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보관된 기록물과 더불어 장비 노화로 인해 관리가 어려운 방송용 비디오테이프, 녹음용 테이프 등이 담당 부서에 보관·관리되어 있었다. 현재, 강원도 여러 기관에 산재한 문화유산 정보자원은 보관·관리·집적과 향유 및 실용의 활성화를 위해 자료의 디지털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아날로그 자료를 디지털 자료로의 변환은 국가기록원 ‘디지털화 지침’을 기초로 한다. 디지털화의 목적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원본 재현을 위한 디지털화와 활용을 위한 디지털화로 구분한다.

- 원본 재현을 위한 디지털화
 - 기록물이 수록된 테이프, 필름 등 매체의 기대수명이 도래하거나 매체의 단종이 예상되는 경우
 - 매체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의 특성으로 인해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해당 매체를 더 이상 다루기 어려운 경우
 - 매체를 재생하기 위한 장비가 노후화 되었거나 단종이 예상되는 경우
 - 기록물을 수록할 당시의 기술이 소멸되거나 구형화가 예상되는 경우
 - 전자적으로 생산된 기록물이라도 생산 당시의 적용기술 및 파일형태가 범용성이 없거나 기술의 변화로 인해 더 이상 사용이 어렵다고 예상되는 경우
- 활용목적을 위한 디지털화
 - 기록물을 공익 목적으로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 생산부서, 기록물관리기관 등에서 기록물을 검색·열람하거나 내부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디지털 변환된 내용에 접근하고자 하는 경우

강원문화유산 아카이브는 문화유산 및 정보들을 디지털화함으로써 항구적인 기록

2) 아카이브[Archives]의 개념은 사전적으로 “① 전산 소장품이나 자료 등을 디지털화하여 한데 모아서 관리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모아 둔 파일. ② 오랜 세월동안 보존해 두지 않으면 안 되는, 가치가 있는 자료를 기록하는 것. ③ 기록 보관 파일이나 기록 보관 레코드를 의미.” 라고 정의한다. 즉, 아카이브란 영구 보존이 필요한 가치를 지닌 기록물 그 자체를 뜻하는 용어이자, 이러한 기록물을 보존·보관하고, 관리하는 기관 및 장소 혹은 건물 등을 말 한다.

과 보존·이용 등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디지털 아카이브 정보화는 체제 구축을 위한 조직 및 인프라의 정비와 함께 데이터의 보존 및 양성 체계를 수립하는 일련의 과정까지를 포괄한다.

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과 정보화 목적은 문화유산에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가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대중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다.

구축해 놓은 문화유산의 방대한 콘텐츠는 사용자가 플랫폼 구축 이전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재사용하여 새로운 문화콘텐츠가 생산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이용자 참여와 상호작용을 최대화하여 콘텐츠 활용을 재고할 수 있도록 문화유산 아카이브라는 플랫폼 구축이 필요한 이유이다.

II-3. 강원문화유산 아카이브 자료 수집 및 목록화

문화유산 자료 수집 및 목록화 작업은 2021년 강원도청, 철원군청, 삼척시청, 홍천군청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수집과 목록화 작업은 “수집 → 검토 → 분류 → 목록화”의 과정을 거쳤으며, 자료는 공문서·보고서·미디어·도서·이미지류로 구분하여 총 27,000여 건의 문서 및 미디어 파일을 검토하고 분류하였다. 2022년도에는 횡성군과 양구군에 대한 자료 수집과 목록화가 진행 중이다.

	종류					
	문서	보고서	미디어	도서	사진(스캔)	디지털자료
건수	20,072건	4,049건	2,175건 (CD) (819.2GB) 215건 (TAPE) (41건 93.2GB)	293건	234건 (9,902컷, 94GB)	8건
합계	27,046건					

〈표 1〉. 2021년 강원도청 외 3개 시군 자료수집 현황

강원도청 자료 수집 과정은 목록화를 위해 검토한 보존상자는 110개이고, 서류철은 1,449개이며, 확인한 공문서 건수는 10,078건이다. 보고서는 중복된 것을 제외하면 93건이다. 미디어 자료로는 CD와 영상 TAPE가 있으며, 각각 917개와 215개(영상 71건, 음성 142건)를 확인하였다. 도서는 출판된 보고서를 포함하여 총 2,492건을 검토하였고, 사진자료는 총 8,027컷으로 문화재 대장이나 앨범에 보관된 사진을 스캔한 것이다. 스캔한 자료 중 화질이 좋지 않은 2,186컷은 포토샵을 이용하여 보정하였다.

지역	종류					
	문서	보고서	미디어	도서	사진	보정
강원도청	보존상자 110개	공문서 10,078건	2,492건	~	196건 8,027컷 (86.9GB)	2,186컷
	서류철 1,449건					

〈표 2〉. 2021년 강원도청 소장 문화유산 자료 수집 현황

철원군청은 파악한 공문서의 수는 2,715건으로 이 문서들은 보존상자 82개와 서류철 53건에 분류·보관되어 있었다. 문화유산 관련 보고서 376건과 도서 293권이 군청에 소장되어 있었고, 미디어 자료로 CD 182개를 확인하였다. 사진자료는 595컷을 스캔하였는데, 모두 앨범에 보관된 자료들이다.

지역	종류						
	문서		보고서	미디어	도서	사진	보정
철원군청	보존상자 82개	공문서 2,715건	376건	CD 182개 (82GB)	293권	13건	~
	서류철 53건					595컷 (4.7GB)	

표 3. 철원군청 소장 문화유산 자료 수집 현황

삼척시청은 3,503건의 공문서와 734건의 보고서 및 732개의 CD자료를 확인하여 목록화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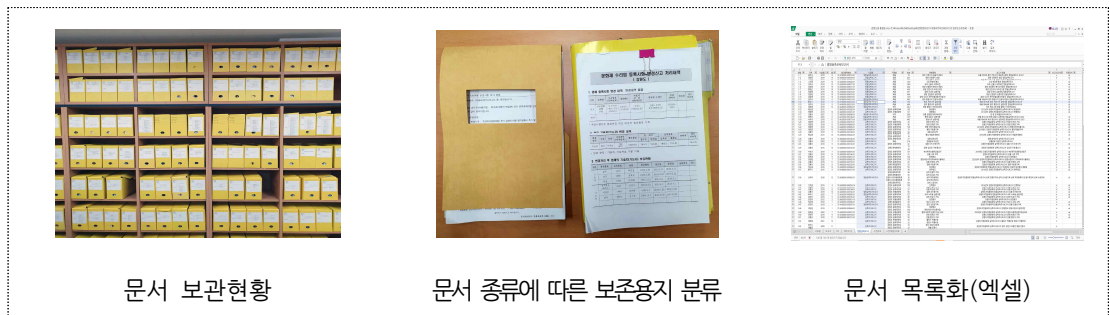
지역	종류						
	문서		보고서	미디어	도서	사진	보정
삼척시청	보존상자 67개	공문서 3,503건	734건	CD 732개 (130GB)	~	20건	~
	서류철 528건			TAPE 2개			

표 4. 삼척시청 소장 문화유산 자료 수집 현황

홍천군청은 184개의 보존상자와 634개의 서류철에서 문화유산 관련 공문서 3,776건을 파악하였고, 447건의 보고서, CD 344개, 사진 자료 1,280컷과 외부저장장치[외장하드, USB 등] 8건을 확인한 후 목록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지역	종류						
	문서		보고서	미디어	도서	사진	디지털 자료
홍천군청	보존상자 184개	공문서 3,776건	447건	CD 344개 (36.2GB)	~	5건	8건
	서류철 634건			1,280컷 (2.39GB)			

표 5. 홍천군청 소장 문화유산 자료 수집 현황



문서 보관현황

문서 종류에 따른 보존용지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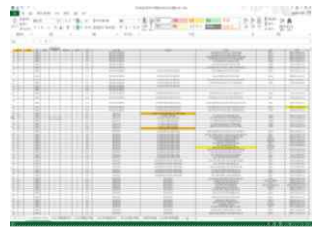
문서 목록화(엑셀)



공문서보고서자료 파악 및 수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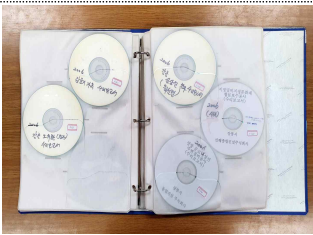


학술도서자료 파악 및 수집



수집 자료 목록화(엑셀)

<표 6>. 문서의 목록화·분류·정리



CD자료 변환 후 자료보관



오디오자료 변환 후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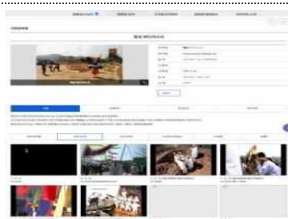


비디오자료 변환 후 정리

<표 7>. 미디어 자료 디지털 파일로 변환



미디어자료 변환 후 정리



미디어자료 홈페이지 등록



홈페이지 영상자료 공개현황

<표 8>. 미디어 자료 디지털 파일로 변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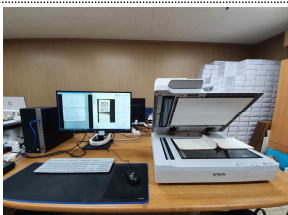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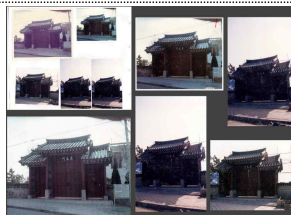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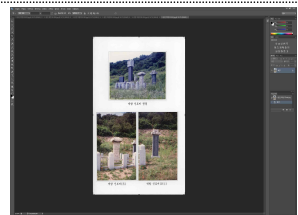


사진 자료 스캔



스캔 후 종류별 사진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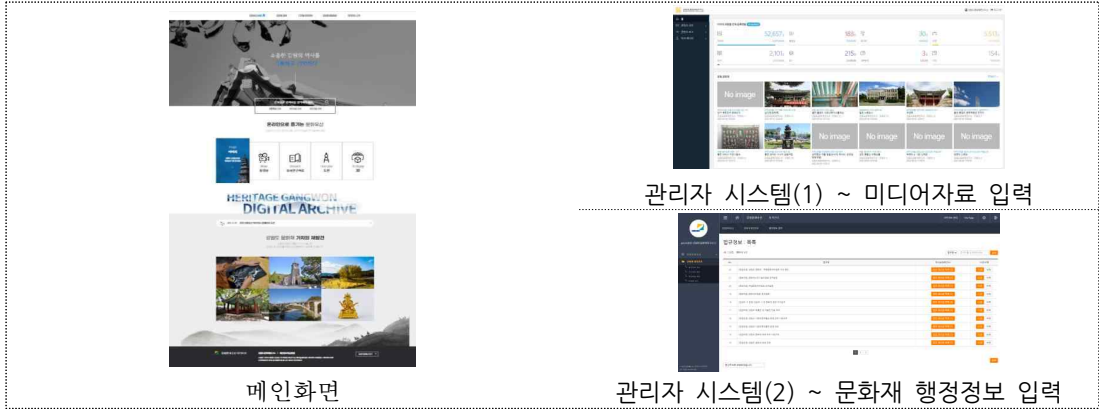


포토샵 이미지 보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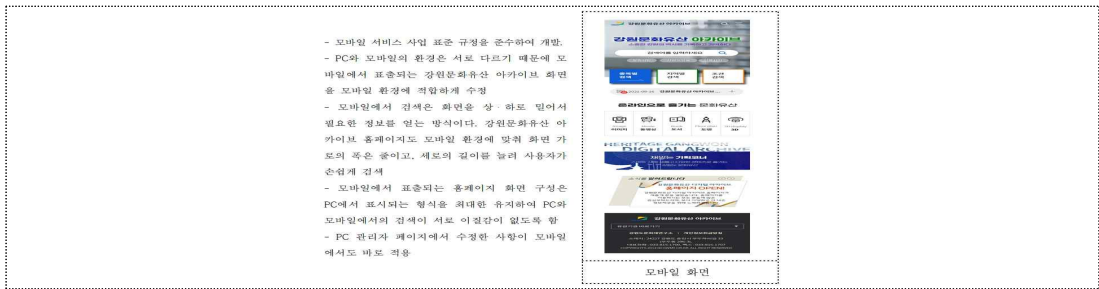
<표 9>. 문서 및 사진자료 스캔 작업

II-4. 강원문화유산 아카이브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 방향

-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최신 트렌드 및 기술을 적용한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설계
- 강원문화유산 아카이브에 등록 혹은 등록예정인 강원도 문화유산은 지정 성격에 따라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11조 제1항 관련)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과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제7조 제1항 관련) “도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에 의거하여 종목을 분류
- 관리자별로 관리자 접속 아이디를 분리하여 접근 권한에 차등을 두어 등록된 문화유산 파일에 대해 개별적인 자료수정 및 삭제 등 임의의 자료 변형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
- 구축대상 모든 시스템의 메뉴관리 기능(생성/수정/삭제/이동 등)은 관리자가 메뉴 조정 시 사용자 페이지 즉시 반영함
- DB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홈페이지 공간의 불필요한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자 페이지에 등록된 문화유산의 미디어 유형별 자료통계 및 등록현황을 표출
- 등록된 유형별 자료는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로 시스템 메뉴를 분리하여 수정·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
- 자료 유형별, 분야별, 자료명별, 시군별 등 분류에 따라 코드값을 부여하여 사진·기록물·영상·보고서 등 자료의 등록 및 수정 용이
- 사이트별, 메뉴별, 접속건수, 게시판별 등록현황, 회원가입/탈퇴현황 등 각종 통계 자료를 일별, 월별 형태로 서식화하여 엑셀자료로 변환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 일반에 공개가 제한된 문서 및 자료는 별도의 저장 공간을 마련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고, 관리자의 아이디로 관리자 페이지에 접근한 경우에만 자료를 열람 및 수정할 수 있도록 설계
- 보안을 위하여 로그인은 승인된 관리자만 접속이 가능하며, 관리자는 아이디별로 메뉴 접근권한이 따로 부여되어 부여받은 메뉴만 볼 수 있고 관리 할 수 있음
-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Web Serviced의 종류로 검색, 통계, 사이트 링크, 공지사항, 보고서자료, 사진자료, 영상자료, 도면자료, 기록자료, 학술자료, 도서자료, 기증/신고, 커뮤니티, 종목·지역·조건별 검색, 모바일 서비스 등으로 구성.
- 종목별 검색은 국가지정문화재 8항목[국보·보물·사적·명승·천연기념물·국가무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국가등록문화재]과 시도지정문화재 6항목[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민속문화재·문화재자료·등록문화재] 및 기타 2항목[향토문화유산·비지정문화재]로 구성



〈표 10〉 강원문화유산 아카이브 메인 페이지 및 관리자 시스템



〈표 11〉 강원문화유산 아카이브 모바일 버전

Ⅲ. 강원문화유산의 원형기록화 및 신규 콘텐츠 제작

Ⅲ-1. 드론, VR 카메라를 이용한 원형기록화 및 신규 콘텐츠 제작

과거 문화유산에 대한 이미지 기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필름 카메라 촬영 중심으로 수행되어 왔다. 과거에도 보존성과 활용성 등을 고려하여 흑백사진, 칼라사진, 슬라이드 사진을 촬영하여 필름 혹은 인화된 형태로 보관하였으나 인화된 사진과 필름 변형은 영구적인 자료 보관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후 디지털 카메라 보급으로 다량 자료 확보와 보존에 어려움이 일부 해소되었다.

최근 기술 발전 성과로 드론을 이용한 문화재 기록화, 360° VR 카메라 촬영 등이 보급되면서 새로운 시각으로 문화유산을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 보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강원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 과정에서 규모가 큰 수목 중심으로 천연기념물을 대상으로 사진촬영 기록물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드론을 이용한 동영상 촬영 및 사진

촬영을 추진하였다. 천연기념물의 경우 야외에 노출된 환경에서 태풍 및 폭설 등 자연재해 발생에 따라 가지가 부러지는 등 훼손되는 사례가 많았으나 사진 촬영만으로 기록을 보존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기구, 헬기, 고가 사다리 등을 이용한 사례도 있다.

드론은 높은 고도로 비행이 가능하여 높은 위치에서 촬영이 가능하여 일반적으로 관찰할 수 없는 시야 이미지를 제공한다. 따라서 넓은 면적 사지, 규모가 있는 수목 천연기념물을 기록하기 용이하다. 하지만 규모가 작고 수목이 많은 단일 문화재 촬영에서는 문화재를 촬영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경포대와 같은 독립 건물을 대상으로 360° VR 카메라 촬영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공개하였다. 360도 이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이미지 프로그램으로 결과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강원문화유산 아카이브 시스템에 뷰어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다. 건물에 대한 360도 이미지는 기존과 다르게 360°로 회전하면서 문화재를 감상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최근 드론으로 촬영된 이미지를 활용하여 실감형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례가 증가하는데 이미지 기반 실감형 콘텐츠는 3D 스캐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정밀도는 낮지만 비용이 저렴하고 색감 및 질감 표현이 우수한 장점이 있어 교육 및 활용 콘텐츠로 활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2021년과 2022년 사업으로 춘천 소양정 외 39개의 문화재를 대상으로 드론 사진, 동영상 등 신규 콘텐츠를 제작하여 등록 및 공개하였다.



항공사진 공개현황(춘천 소양정)



드론 동영상 공개현황(춘천 소양정)



이미지자료 공개현황(춘천 소양정)



VR사진 원본자료(춘천 소양정)

Ⅲ-2. 3D 스캐닝을 이용한 문화유산 원형기록화

자연재해는 태풍 등 풍수해, 낙뢰 등 대기 순환과 관련 된 것, 지진 화산 등 지구 내부 운동과 관련된 것, 고온현상과 열 손상 등 태양의 영향과 관련된 것으로 나눌 수 있다³⁾

특히, 기후 온난화 등 영향으로 잦은 태풍, 폭설,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의해 야외에 노출된 문화재에 대한 훼손이 증가하고 있음. 강원도 지역적 특색에 의해 대형 산불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산지 및 산지 주변에 위치한 부동산 문화재에 대한 화재로 인한 소실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반달리즘⁴⁾으로 볼 수 있는 문화유산에 대한 인위적·의도적 훼손을 포함하여, 문화재 보존에 대한 인식 부족에 의해 발생하는 낙서, 도난, 손괴 등의 훼손 행위들은 문화재 보호에 어려움을 발생시킨다. 우리나라에 문화재방재의 날(2.10) 재정의 원인 된 승례문 방화사건은 가장 대표적인 인위적 문화재 훼손사례로 피해 복구 및 복원 필요한 경제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문화재 원형보존이라는 가치에 많은 영향을 준 사례이다.

국가지정 및 시도지정문화재는 보수 및 정밀실측조사 등의 보호 활동이 수행되면서 기록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이미지, 도면, 수리내역 등 보존 관리 필요한 자료가 축적되고 있다. 이는 향후 문화재의 보수·복원과정에서 문화재의 원형보존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하지만 향토문화유산 및 비지정문화재는 예산부족으로 인해 관련기록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훼손 및 손실에 의한 보수 및 복원 과정에서 활용 할 수 있는 도면 등 정보자산이 전무한 상황으로 3D 스캐너를 활용한 원형기록화를 추진하였다.



3) 문화재청, 2018 문화재 방재력 강화 사물인터넷 기술적용 방안 마련 연구용역보고서, 2018, p11

4) 반달리즘 : 문화유산이나 예술품 등을 파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두산백과)

IV. 결론

문화유산 원형가치를 유지하고 전승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이 수행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문화유산 보존·보호에 사용될 수 있는 소중한 자료이다. 기존에 생산된 정보자원은 서류류, 사진, 문서, 동영상 등으로 보관되고 있으며 많은 자료들이 아날로그 방식으로 보관되고 있다. 이들 자료들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인 열화와 훼손에 노출되어 있으며 과거 동영상 자료들은 저장매체가 생산되지 않아 내용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아날로그 방식 자료는 보관에 많은 공간이 요구되어 업무 담당자의 변경, 사무실 이전과정에서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되는 자료를 또한 대용량이 경우가 많아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위와 같은 문제점들은 해결하기 위해 문화유산 정보자원을 수집, 취합 공개할 수 있는 효율적인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기 문화유산 아카이브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강원도와 18개 시·군에서 생산되어 보관 중인 문화유산 정보자산을 통합 관리하여 공유함으로써 문화재 보호 활동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제공이 가능할 것이다. 문화재별 사업이력, 사진, 보고서, 위치정보, 도면, 동영상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보존가치는 있으나 지정되지 않아 문화재 관리체계에 포함되지 않았던 향토문화유산, 비지정문화재를 아카이브에 등록 공개함으로써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문화유산 기록이 측면에서 시대 변화와 기술발전을 반영하여 기존에 사용 되던 인쇄물, 사진 등과 같은 매체와 더불어 드론, VR, 3D 스캐닝 등의 기술발전을 반영하여 제작하였다. 새로운 방식은 현장을 방문하지 않을 경우 문화재를 사진으로 만 볼 수 있었던 부분을 3D, 드론 자료들은 입체적인 방식으로 바라보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되는 특성상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입체적이고 정밀한 문화유산을 향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재청에서도 문화유산 멸실·훼손을 대비해 국보,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 근대유산 등 국가지정·등록문화재 4000여건을 초정밀 디지털 기술로 기록하기 위해 2012년부터 2025년까지 760억 원을 투입해 ‘문화유산 원형기록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개방할 방침이다.

향후 강원도와 시군에서는 개방된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활용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 및 행정적인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다. 2022년 강원문화유산 아카이브 사업에서는 수집된 국가지정문화재의 정밀실측보고서의 3D 데이터를 기반 한국문화재정보원이 공모한 전통문양 활용 메타버스 구축 사업에 선정되어 예산 반영 없이 3D 실감형 콘텐츠를 제작하여 아카이브 공개, 해당 군의 박물관에 제공하여 교육 홍보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할 예정이다.

「강원문화유산의 아카이브와 대중화 방안」에 대한 토론문

김 남 균

(강원도DMZ박물관 학예연구관)

고형순 선생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강원도와 강원도문화재연구소 주관으로 강원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사업이 원활하게 시작된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 문화유산 아카이브는 강원도라는 제한된 공간 속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과거에도 축적되었고, 현재에도 축적되고 있는 문화유산 기록물들을 하나의 거대한 가상의 공간에 저장하는 시공간 압축 저장고입니다. 이 아카이브는 발표문에도 있듯이 훼손과 소실의 우려가 있는 기존 아날로그 방식의 문화유산 기록들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를 온전히 보존해 세대 내의 향유, 세대간 전송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되었습니다. 2021년 강원도·삼척시·홍천군·철원군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횡성군·양구군 등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18개 시·군을 모두 완료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예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발표문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설명을 중심으로 기술되었기에 발표문 자체 보다는, 이 글을 읽으면서 또한 아카이브를 찾아보며 들었던 궁금한 사항들을 질의하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첫째, 문화유산 아카이브는 말씀드렸듯이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저장고입니다. 다만, 이 아카이브를 저장고로서의 기능에만 머무르게 할 것이 아니라 축적된 자료를 보다 폭넓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아카이브의 장점이 대량의 자료를 통한 검색과 활용이 용이하고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도와 목적에 맞게 재생산·재창조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공개되어 있는 강원문화유산 아카이브는 내용상으로 아직은 많이 부족해 보이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여쭙고 싶습니다.

둘째, 문화유산 아카이브에 접속하여 이용해 본 결과, 아직 시스템 자체가 원활하게 운영된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향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셋째, 현재 강원문화유산 아카이브가 도민들에게 얼마나 알려져 있으며, 활용도는 어떠한지? 만약 대중화가 부족하다면 향후 구체적인 대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영동지역 고문헌의 DB구축 서비스 방안

황 은 영

(강원대학교 국학연구소 연구원)

목 차

- I. 머리말
- II. 영동지역 고문헌 조사 현황
- III. 영동지역 고문헌의 웹서비스 현황
- IV. 맺음말-영동지역 고문헌의 DB 구축 서비스를 위한 제언

I. 머리말

강원도 고문헌의 현황을 살필 수 있는 가장 이른 조사는 1988년 문화재관리국에서 발간한 『韓國典籍綜合調査目錄』 第3輯 강원도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¹⁾ 이 목록을 통해 도내 고문헌 자료의 주요 소장처가 확인되었고, 이후 2006년 한국학진흥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강원지역 고문서의 조사정리 및 기초연구 사업(1년)’, 2009년~2011년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지원을 받은 ‘강원지역 고서·고문서의 소장처 조사 및 사료집(호적류·소지류) 간행사업’, 2015년~2021년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지원을 받은 ‘강원권 한국학자료센터 구축 사업’이 진행된 바 있다.²⁾ 앞서 언급된 조사 및 연구 활동은 강원도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이외에도 시·군 별 고문헌 조사와 주제 별 고문헌의 조사가 진행된 바 있다.

1) 문화재관리국, 『韓國典籍綜合調査目錄』 第3輯 江原道, 문화재관리국, 1988, 21~22쪽.

2) 한국학자료센터 구축사업은 국내외에 산재한 각종 역사 자료인 고문서·고서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정리·분석하고 표준화된 형식으로 가공·집적하여 한국학 지식콘텐츠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08년 11월 첫 사업이 시작된 이래 중앙허브(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술정보관 자료정보화실)를 중심으로 규장각 국가전적자료센터(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장서각 국가전적자료센터(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강원권역 한국학자료센터(강원대학교 국학연구소), 영남권역 한국학자료센터(한국국학진흥원), 호남권역 한국학자료센터(전북대학교 전라문화연구소), 해외권역 한국학자료센터(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가 이 사업에 참여하였다.

영동지역의 고문헌과 관련해서는 강원도를 대상으로 한 조사 외에도 이미 잘 알려진 강릉의 선교장·창녕조씨가·영일정씨가, 동해의 항길택 등의 소장처 외에도 향촌 사회와 세거가문 연구를 위한 고문헌 조사 및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³⁾

영동지역의 고문헌에 대한 조사현황과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는 ‘2021년 제28회 영동문화 창달을 위한 전국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바 있다.⁴⁾ 발표자 또한 한국학중앙 연구원의 지원을 받은 ‘강원권 한국학자료센터 구축’사업에서 6년간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2021년 연구 사업을 정리하는 의미의 논고를 발표한 바 있다.⁵⁾ 본 발표문에서는 이러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영동지역 고문헌의 조사 현황과 DB 구축 현황을 살피고, 이후 고문헌의 DB 구축 및 서비스 방안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3) 고문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연구를 작성연도 순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이규대, 「조선후기 향약계의 일고찰」, 『영동문화』 2, 관동대학교, 1986.

심상대, 「조선후기 강릉지방의 향약과 사회변동」,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이규대, 「17세기 강릉지방의 사족과 향약 조직」, 『영동문화』 3, 관동대학교, 1988.

관동대학교 영동문화연구소, 『嶺東地方郷土史研究資料叢書』 1~6, 1989~1994.

서병패, 「조선후기 영동지방의 수취구조에 대하여」, 『인문과학연구논총』 15,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6.

이규대, 「江陵 國師城隍祭와 鄉村社會의 變化-향리층의 미타계를 중심으로」, 『역사민속회』 7, 한국역사민속학회, 1998.

이규대, 「朝鮮後期 江陵彌陀契와 鄉吏勢力의 動向」, 『강원문화사연구』 3, 강원문화사연구회, 1998.

배재홍, 「조선후기 결혼식 부조관행-강릉김씨 항길택 결혼식 부조기를 중심으로」, 『朝鮮史研究』 8, 조선사연구회, 1999.

임호민, 「동해시 풍기진씨 소장 효열관련 고문서 검토」, 『박물관지』 1, 관동대학교 박물관, 2001.

박성중·박도식, 「15세기 상원사 立案文書 분석」, 『古文書研究』 21, 한국고문서학회, 2002.

박도식, 「『울곡선생남매분재기』 연구」, 『울곡학연구』 10, 울곡학회, 2005.

박도식, 「1541년에 작성된 『이씨분재기(李氏分財記)』 연구」, 『울곡학연구』 13, 울곡학회, 2006.

전경목, 「울곡 이이 가문의 재산 형성과 관리」, 『신사임당 가족의 시서화』, 강릉시·관동대학교영동문화연구소, 2006.

정광무, 「강릉향약에 대한 소고」, 『한문학논집』 26, 근역한문학회, 2008.

강원대 중앙박물관·강원대 강원문화연구소, 『鄭義鎭先生家 寄贈 古書·古文書』, 2008

한성주, 「江原道暗行兼廳論御史 權峻 狀啓草」에 대하여, 『강원문화사연구』 14, 강원문화사연구회, 2009.

박도식, 「조선후기 강릉부 우계면의 삼공 관련 완문 연구」, 『고문서연구』 40, 한국고문서학회, 2012.

임호민, 「조선시대 향촌조직 결성의 양상과 추이 고찰- 강릉지방의 사례를 중심으로」, 『강원사학』 27, 강원사학회, 2015.

이상균, 「강릉 『해운정역방목』의 내력과 지역사적 가치」, 『藏書閣』 40, 한국학중앙연구원, 2018.

이상균, 「강릉 사마소의 운영과 관리주체의 변동」, 『국학연구』 40, 한국국학진흥원, 2019.

고민정, 「강원지역 고문서 조사·정리의 현황과 과제」, 『泰東古典研究』 42,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019.

정지연, 「양양 지역 계회(契會)의 운영과 사회사적 의미-기구회(耆耆會)와 녹천당계(鹿泉堂契)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67,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0.

이상균, 「조선후기 중국 문화를 援用한 영동지역 契會와 그 운영 양상」, 『강원사학』 36, 강원사학회, 2021.

4) 정지연, 「영동지역 고문헌 현황과 활용 방안」, 『제28회 영동문화 창달을 위한 전국학술대회 발표집』, 강릉원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1.

5) 황은영, 「강원권 한국학자료센터 구축 사업의 현황과 제언」, 『강원사학』 36, 강원사학회, 2021.

II. 영동지역 고문헌 조사 현황6)

고문헌의 DB 구축은 조사된 내용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영동지역 내 고문헌 조사 현황을 2021년에 정리한 자료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영동지역 내 고문헌 소장 건수는 12,615건이다. 지역별로는 강릉시가 13개 소장처 8,698건으로 약 69%를 차지한다. 고성군은 1개 소장처 149건, 동해시가 15개 소장처 560건, 삼척시가 7개 소장처 1,914건, 속초시가 2개 소장처 375건, 양양군이 11개 소장처 919건이다.

〈표1〉 영동지역 내 고문헌 소장 현황7)

시군	소장처	소장자료수	소장경위	미확인 소장처	
강릉	1	관동대학교 박물관	37건 이상	수집	강릉향교, 권씨종중, 금란계, 대전동 동계, 상임경당, 성산면 위촌리 동회, 송담서원, 오봉서원, 운곡리 동계, 초당동 동계, 임당동 약국계, 해운정, 회암영당, 김○남, 김○기, 박○종, 박○규, 방○인, 심○봉, 심○빈, 이○대, 장○구, 정○순, 최○문, 최○태, 최○규, 최○찬
	2	오죽헌시립박물관	1,578건	수집	
	3	권○범	39건		
	4	권○현	330건		
	5	김○운	198건		
	6	민○기	201건		
	7	선교장	3,975건 ⁸⁾		
	8	심○만	52건		
	9	이○빈	10건		
	10	조○현	1,733건		
	11	최○순	36건		
	12	최○호	328건		
	13	최○집	181건		
강릉 소계		8,698건			
고성	1	고성문화원	149건		
고성 소계		149건			
동해	1	송정동 금란계	4건		풍기진씨 종친회, 삼척김씨 천곡파종중, 김○용, 김○기, 김○기, 김○소, 박○길, 김○수, 오○문, 이○희, 정○환, 최○희, 최○환, 홍○성, 홍○협
	2	김○남	39건		
	3	김○남	12건	가전	
	4	김○영	1건	가전	
	5	김○현	123건		
	6	김○용	85건		
	7	김○남	14건	가전	
	8	김○동	10건		
	9	김○남	10건	가전	
	10	안○흠	4건		
	11	장○벽	8건	가전	
	12	최○석	224건		
	13	최○식	6건		
	14	홍○민	14건	가전	
	15	홍○창	6건	가전	
동해 소계		560건			
삼척	1	삼척시립박물관	1,582건	수집	용산서원, 삼척향교, 실직군왕릉 재실
	2	노방계	5건		
	3	도가계	10여건		

6) 영동지역 고문헌 조사 현황은 정지연(2021)과 황은영(2021)의 연구를 재구성하여 작성하였다.

7) 강원도내 고서·고문서 소장 현황은 황은영의 「강원권 한국학자료센터 구축 사업의 현황과 제언」, 『강원사학』 36, 강원사학회, 2021, 5~11쪽의 표에서 영동지역 6개 시·군의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시군	소장처		소장자료수	소장경위	미확인 소장처
	4	삼화사	47건	전송	
	5	영은사	71건		
	6	삼척김씨 가문	84건	가전	
	7	김○룡	115건		
삼척 소계			1,914건		
속초	1	속초시립박물관	356건	수집	
	2	유○규	19건	가전	
속초 소계			375건		
양양	1	양양문화원	17건	수집	이○명 이○철 이○률 이○석 이○형 최○영
	2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	2건	수집	
	3	기구회	129건	전송	
	4	고○홍	313건	가전	
	5	고○우	341건	가전	
	6	김○일	18건	가전	
	7	김○준	26건	가전	
	8	박○형	9건	가전	
	9	박○택	21건	가전	
	10	이○주	5건	가전	
	11	이○만	38건	가전	
양양 소계			919건		
총합계			12,615건		

아래의 <표2>는 사료조사사업을 통해 살펴본 영동지역의 소장처별 자료 현황으로 강릉, 동해, 삼척 3개 지역에서 주로 사료조사사업이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강릉은 21개 소장처 2,817건, 동해는 11개 소장처 984건, 삼척은 5개 소장처 836건으로 수치만 비교해 보아도 앞서 제시한 표와 서로 상이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점은 이후 다시 정밀한 재조사를 실시한다고 해도 수치는 다시 새롭게 나타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고문서의 기초조사 연도는 20년을 훌쩍 넘기고 있다. 기초사처의 소장자 분들이 운명하신 경우, 타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분실한 경우, 훼손된 경우 등 해당 고문헌을 다시 찾을 수 없는 상황은 항상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고문헌을 조사할 때에는 해당 목록을 작성한 후 전체 이미지를 촬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업 범위 설정이라고 판단된다.

8) 김민현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선교장 소장 고문헌은 장서만 2,601건에 달한다(「강릉 선교장 장서의 서지학적 고찰」, 『장서각』 제39집, 한국학중앙연구원, 2018). 표에 제시된 건수는 1988년 문화재관리국의 조사를 따른 것이다.

<표2> 사료조사사업을 통해 살펴본 영동지역 소장처별 자료 현황⁹⁾

지역	유형	소장처	건수	조사자	조사연도
강릉	종중	강릉김씨 종중	1	이규대	1999년
강릉	서원	명륜서원	1	이규대	1999년
강릉	계	성산면 향약계	6	이규대	1999년
강릉	개인	이○대	115	이규대	1999년
강릉	문중	창녕조씨	47	이규대	1999년
강릉	기관	관동대학교 도서관	1	이규대	1999년
강릉	개인	김경○	182	이규대	1999년
강릉	문중	상임경당	20	이규대	1999년
강릉	종중	선교장	12	국편	1999년
강릉	개인	이○대	11	국편	1999년
강릉	개인	임○민	36	이규대	1999년
강릉	문중	창녕조씨	1,996	국편	2011년
강릉	계	초당동 동계	3	이규대	1999년
강릉	계	활계	1	이규대	1999년
강릉	기관	관동대학교박물관	285	임호민	2002년
강릉	개인	장용○	29	이규대	1999년
강릉	개인	심상○	3	이규대	1999년
강릉	개인	박성○	55	박성중	1997년
강릉	기관	강릉시립박물관	4	이규대	1999년
강릉	개인	박창○	3	이규대	1999년
강릉	계	금란반월회	3	이규대	1999년
강릉	계	운곡동 동계	2	이규대	1999년
강릉		회암영당	1	이규대	1999년
강릉지역 소계(21개처)			2,817		
동해	개인	박일○	14	이규대	1999년
동해	종친	풍기진씨 영동종친회	10	이규대	1999년
동해	개인	강릉김씨(김남○)	357	국편	1999년
동해	개인	강릉김씨(김남○)	11	차장섭	1997년
동해	기관	단국대학교 퇴계기념중앙도서관	3	이규대	1999년
동해	개인	김남○	76	국편	1999년
동해	개인	박수○	3	이규대	1999년
동해	사찰	삼화사	32	국편	2004년
동해	문중	연일정씨	87	국편	2011년
동해	개인	최광○(강릉최씨)	53	박성중	1997년
동해	개인	최광○(강릉최씨)	274	국편	2004년?
동해	개인	최진○	5	이규대	1999년
동해	개인	홍순○	59	박성중	1997년
동해지역 소계(11개처)			984		
삼척	계	도가계	6	원영환 외	2001년
삼척	문중	삼척김씨 천곡동 종중	14	이규대	1999년
삼척	기관	삼척시립박물관	794	국편	1999년, 2004년
삼척	기관	삼척시청	21	이규대	1999년
삼척	학교	삼척향교	1	이규대	1999년
삼척지역 소계(5개처)			836		
총계(37개처) * 중복 제외			4,637		

영동지역 내 고문헌의 조사 현황에 이어 영동지역의 고문헌 관련 자료집 발간 현황을 살펴보면 1989년을 시작으로 39건의 발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해제문을 실은 자료집의 형식도 있지만 영인본과 번역본을 수록한 국역집들도 다수 확인된다. 특히 최근에는 삼척시립박물관과 울곡연구원에서 국역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다.

9) 정지연의 「영동지역 고문헌 현황과 활용 방안」(『제28회 영동문화 창달을 위한 전국학술대회 발표집』, 강릉원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1, 12~13쪽)에 수록된 ‘강원지역 지역사 사료조사사업 소장처별 자료 현황’표를 인용하였다.

〈표3〉 영동지역 고문헌 자료집 발간 현황¹⁰⁾

연번	연도	편저자	자료집명	발간처
1	1989~1994	방동인·이규대 編	嶺東地方郷土史研究資料叢書	관동대 영동문화연구소
2	1993	동해문화연구회	東海文化史 제3집	동해문화연구회
3	1996	恒齋公史集編輯委員會	恒齋史集	草溪鄭氏關東派宗約
4	1998	임호민	江陵의 祠宇資料集	강릉문화원
5	1999	강릉문화원	중수 임영지	강릉문화원
6	2000	이기, 이민수, 이현구	國譯 松窩雜記	송곡사상연구회
7	2000	원영환 외	국역 매월당집	강원도
8	2001	관동대 영동문화연구소	東海市孝烈資料集	동해시
9	2002	박성중	동해시의 고문서	동해문화원
10	2005	관동대학교 박물관	옛 문서를 통해본 영동	관동대학교 박물관
11	2006	삼척시립박물관	고문서로 보는 조선시대의 삼척	삼척시립박물관
12	2006	속초시	국역 매곡유고	속초시
13	2006	강릉문화재단	국역 동비토록	강릉문화재단
14	2006		국역 어촌집	강릉문화원
15	2007	속초문화원	(國譯) 梅谷日記	속초문화원
16	2008	강원대학교 중앙박물관 · 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	정의윤선생가 기증고서·고문서	강원대학교 중앙박물관
17	2008	배재홍	동해시 고문서 2	동해시문화원
18	2009	울곡연구원	향토고전번역총서1(인영세고, 향호선생집)	울곡연구원
19	2009	울곡연구원	영동지방 울곡자료집성 (자료편, 번역편)	울곡연구원
20	2010	박성중	강원도 영동지역 고문서 역주	청송출판사
21	2010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고문서연구센터	강원지역 고문헌 자료집성1(호적류1)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2	2010	울곡연구원	향토고전번역총서2	울곡연구원
23	2011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고문서연구센터	강원지역 고문헌 자료집성2(호적류2)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4	2011	울곡연구원	향토고전번역총서3	울곡연구원
25	2012	울곡연구원	향토고전번역총서4	울곡연구원
26	2012	배재홍	국역준경묘영경묘영건청의궤	삼척시립박물관
27	2013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고문서연구센터	강원지역 고문헌 자료집성(소지류1)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8	2013	박도식	강릉의 동족마을	채륜
29	2013	울곡연구원	향토고전번역총서5(강릉지방 향약·계 자료)	울곡연구원
30	2013	배재홍	국역 준경묘영경묘고문서집성	삼척시립박물관
31	2014	강릉향일운동'열'선양회	국역 소운선생문집	
32	2016	배재홍	삼척향토지(1955년 발간본 번역)	삼척시립박물관
33	2019	배재홍	국역 삼척교지	삼척시립박물관
34	2020	울곡연구원	강원 국학자료총서1-전주이씨 선교장Ⅰ	울곡연구원
35	2020	울곡연구원	강원 국학자료총서2-전주이씨 선교장Ⅱ	울곡연구원
36	2020	울곡연구원	강원 국학자료총서3-창녕조씨 명숙공중가	울곡연구원
37	2021	울곡연구원	강원 국학자료 국역총서1-하은일록(靑雲日錄) 상	울곡연구원
38	2021	울곡연구원	강원 국학자료 국역총서2-하은일록(靑雲日錄) 하	울곡연구원
39	2021	울곡연구원	강원 국학자료 국역총서3-충의공업선생실기 (忠毅公嚴先生實紀)	울곡연구원

10) 정지연의 「영동지역 고문헌 현황과 활용 방안」(『제28회 영동문화 창달을 위한 전국학술대회 발표집』, 강릉원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1, 14~15쪽)에 수록된 ‘강원지역 고문헌 자료집 발간 현황’을 바탕으로 최신 발간 현황을 추가하였다.

영동지역의 고문헌 자료집 발간 사례 가운데 관동대학교 영동문화연구소에서 1989년~1994년에 걸쳐 영동지방을 중심으로 수집된 문헌사료를 모아 간행한 『영동지방 향토사연구자료총서(嶺東地方郷土史研究資料叢書)』 6권은 강원도 영동지역사 연구에 필수적인 여러 종류의 사료를 간략한 해제를 통해 소개하고 있다. 1993년 발간된 『동해문화사』 제3집(동해문화연구회)에 동해시 지역에 소재하는 고문헌에 대한 간략한 소개하고, 박성종의 『東海市 古文書』에서는 동해시의 여러 소장처 고문서를 소개하고 있다.¹¹⁾

2005년 관동대학교 박물관에서는 『옛 문서를 통해 본 영동』이라는 주제로 특별전을 진행하면서 도록을 발간하였고, 삼척시립박물관에서도 『고문서로 보는 조선시대의 삼척』이라는 주제로 특별전을 개최하고 도록을 발간한 바 있다. 2008년에는 강원대학교 중앙박물관에서 강릉 영일정씨가에서 기증한 고문헌을 정리하여 『鄭義鉉先生家 寄贈 古書·古文書』를 발간하였다. 같은 해 배재홍은 동해시 김남용씨 소장 강릉 김씨 향길택 소장 고문서를 정리하여 『동해시 고문서』(2)를 발간하였으며, 박성종은 『강원도 영동지역 고문서 역주』를 발간하였다. 2013년 발간된 박도식의 『강릉의 동족마을』에서도 고문헌을 소개하고 있다. 울곡연구원에서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향토고전번역서를 발간하여 총 5권으로 발간하였고,¹²⁾ 2020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국학진흥 정책기반 조성사업비의 지원을 받아 『전주이씨 선교장 I·II』, 『창녕조씨 명숙공종가』를 ‘강원 국학자료총서’ 1~3권으로 발간하고, 『하은일록(霞隱日錄)』 상·하, 『충의공엄선생실기(忠毅公嚴先生實紀)』 등을 ‘강원 국학자료 국역총서’ 1~3권으로 발간하였다.

Ⅲ. 영동지역 고문헌의 웹서비스 현황

영동지역의 고문헌을 웹서비스하는 홈페이지는 모두 9곳이 확인되었다. 각각의 명칭은 가톨릭관동대학교박물관, 강릉오죽헌시립박물관, 강릉원주대학교박물관, 강원권역한국학자료센터(강원대학교 국학연구소 산하), DMZ박물관(고성), 삼척시립박물관, 속초시립박물관, 울곡연구원, 한국학자료센터 한국학자료포털이고 서비스의 범위 및 홈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다.

-
- 11) 『東海市 古文書』(박성종 편저·홍순성 감수, 동해문화원, 2002)에서는 홍순협, 홍순성, 오기문, 최광석가의 고문서를 선별·소개하였다.
 - 12) 『임영세고』, 『향호선생집』, 『칠봉함선생유고』, 『동명집』, 『동원세고』, 『동원세고후집』, 『명원세기』, 『덕수이씨세계열전』, 『덕수이씨세계열전속편』, 『정랑공소초』, 강릉지방 향약·계 자료 등.

〈표4〉 영동지역 고문헌 웹서비스 홈페이지 목록

연번	홈페이지명	서비스 범위			홈페이지주소	비고
		이미지	해제	원문		
1	가톨릭관동대학교박물관	전체	전체	×	http://museum.cku.ac.kr/	일부만 DB 서비스
2	강릉오죽헌시립박물관	전체	전체	×	https://www.gn.go.kr/museum/	일부만 DB 서비스
3	강릉원주대학교박물관	×	×	×	https://museum.gwnu.ac.kr/	서화류 655건 가운데 고문헌이 포함
4	강원권역한국학자료센터	전체	전체	대부분	http://cksm.kangwon.ac.kr/	작성지역:469, 소장처별:781
5	고성 DMZ박물관	전체	전체	×	https://www.dnzmuseum.com/museum	일제강점기 이후 시기 유물 소장
6	삼척시립박물관	전체	일부	×	https://www.samcheok.go.kr/specialty/00468/00891.web	자체 홈페이지 없음. 삼척시청 홈페이지와 연계 e-뮤지엄을 통해 소장품 검색 서비스
7	속초시립박물관	×	×	×	https://www.sokchomuse.go.kr/	매곡 오윤환의 『매곡일기』, 『매곡유고』 등의 고문헌 소장
8	율곡연구원	×	×	×	http://www.yulgok.or.kr/	서지사항 제공
9	한국학자료센터 한국학자료포털	전체	전체	대부분	https://kostma.aks.ac.kr/	강원도 : 923 강원권역 한국학자료센터 포함 건수

1. 가톨릭관동대학교박물관

가톨릭관동대학교박물관 홈페이지에서 검색가능한 유물은 2,675건이다. 다만 유형 내지 재질 등의 분류 검색은 불가능하고 오로지 유물명으로만 검색이 가능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다. 아래의 첫 번째 화면과 같이 유물명을 입력하여 검색하면 해당 유물이 검색되며 해당 목록의 가장 우측에 위치한 상세정보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해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고문헌의 정확한 웹서비스 건수는 확인이 어렵다.

가톨릭관동대학교박물관 홈페이지 고문헌 웹서비스 예시

2. 강릉 오죽헌시립박물관

강릉오죽헌시립박물관 홈페이지에서는 민속품, 역사자료, 지정문화재의 유형으로 소장품을 검색할 수 있다. 민속품은 21건, 역사자료는 26건, 지정문화재는 39건의 소장품에 대한 간략한 기본정보와 상세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가운데 역사자료는 지석(誌石)을 포함한 12건의 고문헌이 소개하고, 지정문화재에서는 19건의 고문헌을 소개하고 있어 총 31건의 고문헌을 웹서비스한다.

The screenshot displays the museum's website interface. At the top, there are navigation tabs for '민속품' (Folk Items), '역사자료' (Historical Documents), and '지정문화재' (Designated Cultural Heritage). A search bar is prominently featured with the text '소장품 검색' (Search Collections) and a search button. Below the search bar, four search results are shown as thumbnails with their respective titles: '한송사지석조보살좌상' (Han Song Sa Site Stone Buddha Seated Image), '이이수고본격용요결' (Lee I-su's Original Document on Military Strategy), '오죽헌 烏竹軒' (Ojukheon), and '인목왕후이필판본' (Inmok Wanghu's Manuscript).

The detailed view for '이이수고본격용요결' is shown below. It includes a sidebar with navigation options like '인사말' (Message), '조직 및 업무' (Organization and Business), and '주요업무' (Main Business). The main content area features the document's title, a thumbnail image, and detailed information:

- 기본정보** (Basic Information):
 - * 시대 : 조선(1577년)
 - * 크기 : 23.7*24cm
 - * 지정 : 보물 제602호
- 상세내용** (Detailed Content):

이이가 초학자(初學者)들에게 학문의 방향을 제시해주기 위하여 저술한 유학 입문서로 왕해도 해주 석담에서 기거할 때 지은 것이다. 책머리에는 이병모(李秉模)가 정조의 제사(題辭)를 받들어 쓴 것이 붙어 있다. 1788년 정조대왕이, 이이의 수고본(手稿本)이 강릉(江陵) 오죽헌(烏竹軒)에 간직되고 있음을 듣고 가져오게 하여 본 다음 직접 지은 것이다. 본문은 입지(立止), 학구술(學究術), 자신(誌身), 독서(讀書), 사신(事親), 상제(喪制), 제례(祭禮), 거거(居處), 정인(政人), 처세(處世) 10장으로 되어 있다. 격몽요결 은 을곡친서 제27권에도 수록되어 있지만, 단행본으로 간행되기도 하였다. 이것은 이이의 수필고본으로 그의 진필을 간직하는 데 표본이 되기 때문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 자서(自序)와 책 끝에 정족(丁丑)에 붙여졌다고 적혀 있어 1577년(선조 10) 완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At the bottom of the page, a caption reads: '강릉 오죽헌시립박물관 홈페이지 고문헌 웹서비스 예시' (Example of Historical Document Web Service on the Gangneung Ojukheon Museum Website).

3. 강릉원주대학교박물관

강릉원주대학교박물관은 박물관 소장유물 안내에 서화류 655점이라고 기재하고 있지만 홈페이지에서 웹서비스하는 소장품은 주로 유적지와 관련된 발굴유물이 주를 이룬다.

4. 강원권역한국학자료센터

강원권역한국학자료센터 홈페이지에서는 강원지역에서 소장하고 있는 고문서·고서의 전체 이미지와 기본정보(서지사항), 안내정보, 상세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웹서비스 건수는 3,488건이고 영동지역 고문헌의 웹서비스 건수는 작성지역별로는 469건, 소장지역별로는 781건을 웹서비스하고 있다. 이 수치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삼척에서 조사된 고문헌이어도 춘천의 내용을 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표5〉 강원권역한국학자료센터 홈페이지 영동지역 고문헌 웹서비스 현황

시·군	작성지역별 수량	소장지역별 수량
강릉	188	367
고성	57	70
동해	21	23
삼척	113	216
양양	90	105
속초	0	0
합계	469	781

아래의 그림은 디렉토리분류의 예시로 유형분류(고문서, 고서), 주제분류(국왕/왕실, 정치/행정, 법제, 경제, 사회, 개인 등), 작성지역 분류, 소장지역분류로 구분하여 DB 구축을 진행하였다. 분류의 체계는 학계에서 공인된 표준화된 고문서 및 고서 분류체계를 따랐다. 두 번째 사진의 첫 줄에 개재된 ‘고문서-교령류-홍패 | 정치/행정-과거-홍패’는 각각 형식분류와 주제분류의 항목에 해당한다. 세 번째 사진을 보면 좌측에 문서의 제목이 있고, 관련 자료의 목록이 제시되며 41매의 사진을 모두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우측에는 원문텍스트를 제공하고 있다.

The screenshot shows a web interface for document classification. On the left is a sidebar with a tree view under '디렉토리 분류' (Directory Classification), including '유형분류' (Type Classification), '주제분류' (Subject Classification), '작성지역분류' (Author Area Classification), and '소장지역분류' (Collection Area Classification).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소장지역분류' and shows a list of documents. Each entry includes a thumbnail image of the document and a text description with metadata such as the year, author, title, and collection location. For example, the first entry is '1438년 박중신(朴中愼) 홍패(紅牌) | 오죽헌시립박물관' (1438, Park Jung-shin, Red Seal, Ojukheon National Museum).

홈 > 디렉토리 분류 > 유형분류

디렉토리 분류

- 유형분류
- 고서
- 고문서
- 주제분류
- 작성지역분류
- 소장지역분류

1438년 박중신(朴中愼) 홍패(紅牌)

· 자료 UCI: KJU+GWKSMC+KSM-XX, 1438, 1111-20160501, 2015000001 URL복사

○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교형류-홍패 | 정치/행정-과거-홍패
- 작성주체: 발급: 세종 이도(李陶)
수취: 박중신(朴中愼)
- 작성지역: 한성부
- 작성시기: 正統二年(1438)
- 형태사항: 104.0 X 82.9 | 1장 | 종이 | 한자 | 낱장
- 인장서명: 1 (적색, 정방형, 10.0*10.0, 國王信寶)
- 원소장처: 강릉 강릉박씨
- 현소장처: 오죽헌시립박물관

○ 안내정보

이 문서는 1438년(세종 20) 4월 17일에 선교랑(宣敎郎) 양양유학교도(襄陽儒學敎導) 박중신(朴中愼)이 문과 정과(丁科) 제3인으로 급제하고 발급받은 홍패다.

문서를 보면, 오른쪽 위에 교지라 쓰고 가운데에 선교랑 양양유학교도 박중신이 문과 정과 제3인으로 급제하였다는 내용을 적었다. 마지막으로 문서를 발급하는 연도와 날짜를 쓴 후 번째 글자와 세 번째 글자 사이에 도장을 찍었다.

기구회첩(耆舊會帖)

연결자료

- 기구회과목(耆舊會科目)
- 경술년(庚戌年) 빚자기[挿上記]
- 기유년(己酉年) 빚자기[挿上記]

기구회첩(耆舊會帖)

耆舊會帖。

耆舊會帖序。
中州襄陽有耆舊傳。余未知其之一州。偏紹孤小老宿。而壽以之多歟。抑多先著長德。而傳以之作歟。地之相去千萬里。世世相連亦千百視。而今於一隅偏郡。欲效中州故事者。豈非郡號之適符。古襄陽而然歟。我州襄陽不過關嶺東小都護。而士大夫文獻之職。習俗之美。足以雄長於旁郡。庸是郡中前輩於山川園池之勝。悉倣彼而移此。獨於耆舊。而無繼而傳者。蓋緣園綺之壽。無多

강원권역한국학자료센터 홈페이지 고문헌 웹서비스 예시

5. 고성 DMZ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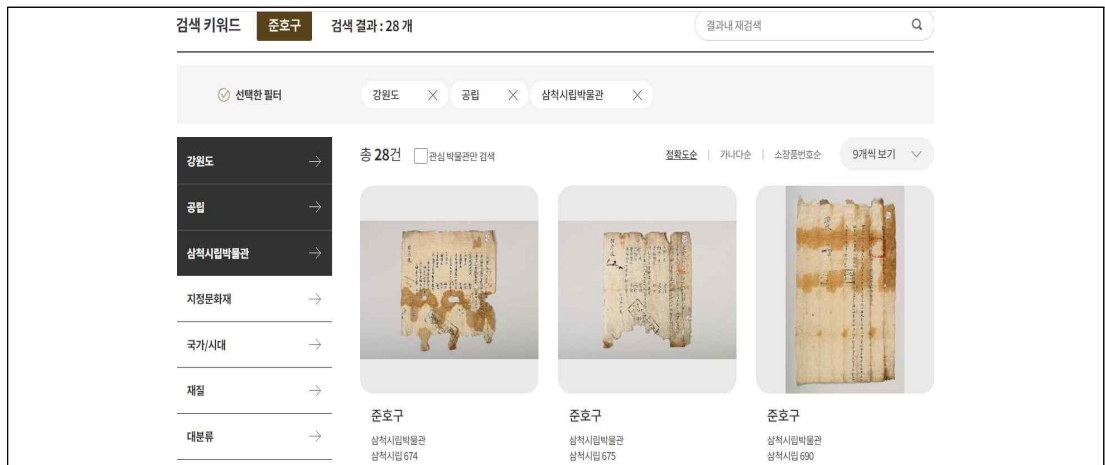
고성 DMZ박물관은 고문헌을 소장한 박물관은 아니지만 일제강점기를 포함한 이후 시기 유물을 아래와 같이 아카이브의 형태로 1,325건을 서비스하고 있으며 「금강산 전설」과 같은 지류 유물도 포함하고 있어 소개한다.



고성 DMZ박물관 홈페이지 고문헌 웹서비스 예시

6. 삼척시립박물관

삼척시립박물관의 경우 단독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고 삼척시청 홈페이지 내에서 운영되고 있다. 소장품에 대한 웹서비스는 e-뮤지엄으로 연결하여 제공된다. 삼척시립박물관에서 등록한 2,690건의 소장품 가운데 분류항목으로는 고문헌을 검색할 수 없고, 재질 분류로 지류를 클릭하면 1,666건의 소장품이 검색된다. 하지만 첫 번째 그림과 같이 지함과 같은 소장품이 함께 검색되는 불편함이 있다. 고문헌의 제목을 지정하여 검색하면 두 번째 그림과 같이 결과물을 얻을 수 있고, 개별 클릭을 하면 소장품의 이미지와 함께 세 번째 그림과 같은 서지사항과 간략한 해제를 확인할 수 있다.



선택한 필터
강원도 X 공립 X 삼척시립박물관 X 종이 X

강원도 →

공립 →

삼척시립박물관 →

지정문화재 →


국가시대 →

종이 →

대분류 →


총 1,666건 □ 관심 박물관만 검색

정철도순 | 가나다순 | 소장품번호순 9개씩 보기




지함

삼척시립박물관
삼척시립 2



묘법연화경

삼척시립박물관
삼척시립 25



반질그리

삼척시립박물관
삼척시립 60


준호구

삼척시립박물관

명칭	준호구
다른명칭	準戶口
국적/시대	한국-조선
분류	사회생활 - 사회제도 - 문서 - 관(공)문서
재질	종이 - 기타
크기	세로 45.5cm, 가로 42cm
소장품번호	삼척시립 674

제 1유형 : 출처표시

저작권 보호분야 "준호구" 저할 수 있습니다.



* 소장품 및 소장정보의 오류는 해

♥ 좋아요 (0)
+ 관심소장품 등록
📄 인쇄

SNS
f
🐦

· 소장품설명 함풍 8년(1858) 정월에 삼척부에서 미로면 제2리 9통 제2호의 유학 이관의에게 발급해 준 준호구임.

삼척시립박물관 홈페이지 고문헌 웹서비스 예시

7. 속초시립박물관

속초시립박물관 홈페이지에서는 소장품에 대한 웹서비스는 운영하지 않는다. 그러나 속초시립박물관 소장 고문헌 가운데 매곡 오윤환의 『매곡일기』와 『매곡유고』 등은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고문헌이다.

8. 울곡연구원

울곡연구원 홈페이지의 고문헌 웹서비스는 강원기록유산에서 찾을 수 있다. 고문서, 고서, 근현대문서, 서화로 구분하여 목록을 서비스하고 있는데, 검색조건은 자료명, 작성자, 생산년도, 규격, 소장지역, 언어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주제별 항목의

추가가 요청된다. 고문서는 4,924건, 고서는 4,769건, 근현대문서는 299건, 서화는 9건의 목록이 확인된다. 이 목록에서 소장지역별로 영동의 6개 시군의 고문헌의 대상이 되는 고문서와 고서를 검색해 보면 고문서의 경우 강릉은 1,210건, 고성은 85건, 동해는 62건, 삼척은 1,079건, 속초는 19건, 양양은 649건으로 총 3,104건의 목록이 확인된다. 고서의 경우는 강릉 411건, 고성은 64건, 동해는 52건, 삼척은 48건, 속초는 355건, 양양은 311건으로 총 1,241건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가 없이 두 번째 그림과 같은 서지정보만 제공된다.

<p>자료&정보</p> <p>강원기록유산</p> <p>역사에 의미있! 전통에 송결함! 유곡연구원이 이어갑니다.</p>		<p>자료&정보</p> <p>강원기록유산</p> <p>역사에 의미있! 전통에 송결함! 유곡연구원이 이어갑니다.</p>	
<p>사업성과</p> <p>발간도서</p> <p>학술논문집</p> <p>유곡학연구성과</p> <p>유곡학학도</p> <p>강원기록유산</p> <p>유곡&사업당</p>	<p>고문서</p> <p>고서</p> <p>근현대문서</p> <p>서화</p> <p>제목명</p> <p>작성(발간/수집)자</p> <p>생년년도</p> <p>규격(크기/면수)</p> <p>소장지역</p> <p>언어</p> <p>추밀부판본</p> <p>추밀부판본</p> <p>추밀부판본</p> <p>추밀부판본</p> <p>추밀부판본</p>	<p>사업성과</p> <p>발간도서</p> <p>학술논문집</p> <p>유곡학연구성과</p> <p>유곡학학도</p> <p>강원기록유산</p> <p>유곡&사업당</p>	<p>분류</p> <p>자료명</p> <p>작성(발간/수집)자</p> <p>생년년도</p> <p>규격(크기/면수)</p> <p>소장지</p> <p>언어</p> <p>고문서</p> <p>추밀부판본</p> <p>미상</p> <p>朝鮮</p> <p>36.7*32.0</p> <p>강릉</p> <p>한문</p>

유곡연구원 홈페이지 고문헌 웹서비스 예시

9. 한국학자료센터 한국학자료포털

한국학자료센터 한국학자료포털 홈페이지에서 웹서비스하는 자료는 장서각 고문서 자료관에서 정리한 자료로 기본정보, 안내정보, 상세정보, 원문텍스트까지 제공하고 있다. 시·군별 분류는 설정되어 있지 않고 광역 단체별 분류는 가능하다. 강원도로 지역분류를 하면 923건이 검색된다. 이 건수는 강원권역한국학자료센터의 웹서비스 건수를 포함한 것으로, 고문서자료관을 비롯한 영남권역, 호남권역, 해외권역 한국학자료센터의 웹서비스 건수를 통합한 메타검색 결과이다.

<p>다이어리분류</p> <p>유형분류</p> <p>주제분류</p> <p>소장처분류</p> <p>시기분류</p> <p>지역분류</p> <p>언어분류</p>	<p>지역분류</p> <p>강원도</p> <p>충청남도</p> <p>충청북도</p> <p>경기도</p> <p>경상남도</p> <p>경상북도</p> <p>전라남도</p> <p>전라북도</p> <p>충청남도</p> <p>충청북도</p> <p>경기도</p> <p>경상남도</p> <p>경상북도</p> <p>전라남도</p> <p>전라북도</p>	<p>수집고문서</p> <p>1593년 사노(私歎) 석동(石洞) 노비매매명문(奴婢買賣明文)</p> <p>1593년 사노(私歎) 석동(石洞) 노비매매명문(奴婢買賣明文)</p> <p>1593년 사노(私歎) 석동(石洞) 노비매매명문(奴婢買賣明文)</p> <p>1593년 사노(私歎) 석동(石洞) 노비매매명문(奴婢買賣明文)</p> <p>1593년 사노(私歎) 석동(石洞) 노비매매명문(奴婢買賣明文)</p>
--	--	--

한국학자료센터 한국학자료포털 홈페이지 고문헌 웹서비스 예시

IV. 맺음말-영동지역 고문헌의 DB 구축 및 서비스를 위한 제언

현재 광역지자체가 설립·운영하는 국학 분야 기관은 영남권의 한국국학진흥원(안동), 호남권의 한국학호남진흥원(광주), 충청권의 한국유교문화진흥원(논산) 등이 대표적이다.

영남권의 한국국학진흥원(안동)은 1996년 개원한 이래 2005년에는 장판각을 준공하고, 2006년에는 유교문화박물관을 개관하였으며 수집·조사 활동을 지속한 결과 2022년 8월에는 국학자료 60만점 수집을 달성하였다. 그 외에도 국학문화회관을 개관하고, 강의동, 현판전시실, 수장고, 세계기록유산전시체험관을 준공하였으며, 2008년에는 안동대학교와 고전국역자양성과정 학연합동 통합과정(석·박사) 운영 협약을 체결하였다.

호남권의 한국학호남진흥원(광주)은 2018년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공동 설립하였다. 국학자료의 수집과 보존, 호남 문헌 국역 및 편찬, 국학자료 정보화(DB), 호남학 연구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학자료 정보화(DB)는 호남국학 종합 DB와 고문서 정서 및 역주 사업으로 나뉘는데 아직 DB 자료는 서비스하지 않고 세거가문 소장 고문서를 정서하고 역주하여 출판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충청권의 한국유교문화진흥원(논산)은 2022년 3월 29일 현판 제막식을 개최하고,¹³⁾ 10월 1일 개원하였으며¹⁴⁾ 본관과 한옥연수원 7개 동이 들어섰다. 본관에는 청소년체험관, 북카페, 강당, 도서관·기록관·박물관 기능을 결합한 라비키움, 수장고, 보존처리실, 정리실 등을 갖추고 있다.

강원도에는 2003년 강원대학교에 설립된 고문서연구센터에서 지속적으로 강원지역 고문서·고서 조사·수집 및 연구활동을 지속해 왔고, 2020년 강원대학교 국학연구소로 확대 개편되어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성격은 조금 다르지만 강원학연구센터(춘천)가 2017년 강원연구원 내에 재설립되어 자체 연구 사업 외에도 연구지원 사업, 번역·출판지원 사업, 아카데미, 강원학대회, 학술세미나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서비스 준비 중인 강원학 아카이브 구축 사업도 강원대학교 국학연구소와 2019년부터 지속해 오고 있다. 또한 올해 3월 23일에는 '강원역사문화진흥원'의 강릉 설립·유치하기 위한 진흥원 설립·유치 추진위원회 발족식이 개최된 바 있다.¹⁵⁾

영동지역 고문헌의 DB 구축 방안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바로 독자적인 포털 및 서버를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강원학연구센터와 강원대학교 국학연구소에서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강원학아카이브구축

13) 전국 최초 유교문화 전문기관 충남에 문 열어(한겨레 2022-03-29 기사)

14) 'K-유교문화' 거점 한국유교문화진흥원 문 열어(한국일보 2022-10-02 기사)

15) 지역 국학연구 '강원역사문화진흥원' 강릉 설립·유치 본격화(연합뉴스 2022-03-22 기사)

사업에서는 웹공간을 현재 네이버의 서버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로써 매월 수십만 원의 임대료가 발생하고 DB 구축 업체에는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연 단위로 수백만 원의 유지·보수 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에 강원대학교 국학연구소에서는 강원권역한국학자료센터와 같이 강원대학교 정보화본부와 협력하여 가상 서버공간을 장기적으로 할당 받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 독자적인 서버를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 DB구축 자료의 웹서비스 작업에 주축이 되고, 2~3개의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공동 플랫폼에서 연계하도록 한다면 강원도 및 각 시·군별 아카이브 자료와도 통합하여 메타검색시스템의 구축도 가능할 것이다.

두 번째는 방법적인 내용으로 강원지역 국학자료 표준화(안)을 마련해야 한다. 강원대학교 국학연구소는 고문헌 DB 구축에 앞서 한국학중앙연구원 자료정보화실에서 제공한 「한국학자료 DB 구축을 위한 표준화안 및 XML문서 샘플」을 활용하였다. 필수적인 요소들을 선정하여 최소한의 DB 사항을 정하고, 상세 DB 사항은 선택적으로 구성하도록 한다면 통합 작업이 훨씬 수월하게 진행될 것이다.

<p>「한국학자료 DB 구축을 위한 표준화안 및 XML문서 샘플」 표지</p>	<p>디렉토리 분류/형식분류 예시</p>	<p>디렉토리 분류/내용분류 예시</p>

셋째, 국학자료를 이해하는 DB시스템 개발 및 홈페이지 제작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홈페이지와 DB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은 별개의 작업이다. 웹서비스를 위한 디자인보다도 DB를 위한 작업의 단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을 제시한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원권역 한국학자료센터의 경우 타 DB 구축팀을 선진지 견학하여 홈페이지는 물론이고 해제한 결과물을 홈페이지에 적재할 수 있도록 가공할 수 있는 기본정보(서지사항) 입력용 엑셀 테이블·XML 변환기·태깅입력기·XML 업로더 개발까지 DB구축 및 업로드의 전 과정을 염두에 두고 계약을 진행하였다. 또한 재계약 시점마다 전산에 문외한인 연구원들이 홈페이지에 적재할 수 있도록하는 다양한

틀을 개발하였다.

네 번째는 직접적인 DB 구축 작업시 고려해야할 사항으로 이미 출판된 고문헌 자료의 DB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지속적인 조사사업을 병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DB 구축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들이 결정되고 나면 가시적인 결과물을 내기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이미 출판된 고문헌 자료를 1차 작업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이 방법은 개발된 DB시스템을 빠르게 활용하여 보완점을 찾는 데도 필수적인 방법이다. 또한 조사사업을 지속하여 새로운 고문헌의 발굴에도 힘쓰고, 해상도가 높은 이미지의 확보를 통해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지역 대학과 협력하여 학문후속세대 양성에 힘써야 한다. DB 구축을 할 수 있는 예산과 기관이 있어도, 자료가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전문 인재가 있어야 한다. DB 구축에 참여하는 인력은 고문헌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 고문헌의 정리를 위한 능력은 단시간에 갖춰질 수 없는 만큼 인력양성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외에도 논의 밖의 내용이지만 금석문도 기록자료로서 고문헌 DB 구축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실 고문헌 DB 구축의 활용에 있어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는 영동과 강원도를 넘어서 전국의 자료 및 근현대 자료와 함께 메타 검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이다. 강원도 자료가 강원도에만 소재하지 않듯이 타 지역에서 강원도 자료를 DB 구축하고 있으므로 강원도 내 기관은 물론이고 고문헌을 DB 구축하는 각 연구기관들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유형별로도 고문헌을 넘어 아카이브 자료들과의 통합메타검색을 목표로 DB 구축 방안을 모색한다면 이용자들에게는 더할나위 없는 웹서비스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체)

「영동지역 고문헌의 DB구축 서비스 방안」에 대한 토론문

김 정 현

(강원도사편찬위원회 상임위원)

황은영 선생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강원권한국학자료센터 구축사업에 오랜 기간 참여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영동지역에 분포 되어있는 고문헌의 조사현황과 DB구축 현황을 정리해주셨고, DB 구축을 위해 필요한 제언으로 발표문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선생님의 발표문을 읽어보면서 크게 공감하였던 부분은

첫째, 광역지자체 별로 운영되고 있는 국학연구기관이 영남·호남·충청권이 대표적이거나 강원권에서는 강원대학교 국학연구소와 강원연구원 강원학연구센터, (사)울곡연구원이 있지만, 이 기관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심기관이 없다는 점,

둘째, 고문헌 분야에서 활동할 학문 후속세대 양성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마도 도 단위의 구심기관이 없어 각 지역의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별도로 사업이 추진되면서 서로 협업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추진되었던 사업이 지속되지 못하면서 전공생들의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지 못하는 점 등 악순환의 반복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강원도 국학 연구의 구심 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국학 연구사업이 지속 추진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는 일단, 사업을 추진 중인 연구소와 각 대학 간의 협업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원도 국학 연구의 기반이 조성될 때까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강릉 오죽헌 · 시립박물관 운영 활성화 과제

이 상 균

(강릉원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목 차

- I. 머리말
- II. 오죽헌 경내 전시시설 설립과정
- III. 시립박물관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안
- IV. 시립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장기발전 과제
- V. 맺음말

I. 머리말

오죽헌은 15세기경에 지어진 사대부가의 별당이다. 강원도 내에 남아있는 가장 이른 시기의 사대부가이다. 고려~조선으로 이행되는 시기의 건축구조(주심포→익공)를 잘 보여주고 있어 건축사적으로도 중요한 주택이다. 그리고 신사임당이 울곡을 낳은 집으로 유명하다. 건물을 향하여 왼쪽 2칸은 대청, 오른쪽 1칸에 온돌방을 두었는데, 이 온돌방이 신사임당이 이이를 낳은 몽룡실(夢龍室)이다.¹⁾

오죽헌은 건축사적 가치와 울곡의 탄생지라는 명성이 더해져 1938년 「조선문화재 보호령」에 의해 국가문화재 보물로 지정·보호되어왔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의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1963년 1월 21일 국가 보물(제165호)로 지정되었다. 이후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1975~1976년 오죽헌 정화사업을 하여 현재 모습의 골격을 갖추었다.

오죽헌은 사임당과 울곡 선양을 위해 성역화된 유적 공간으로 정비되었다. 그러나 방문객들의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울곡 가문에서 전승되어 온 유수의 유물을 전시하기 위한 전시시설을 갖추게 된다. 오죽헌 경내에 가장 먼저 조성된 시설이 울곡기념

1) 동해로부터 검은 용이 날아와 칩실 문 앞에 서리는 꿈을 꾸 다음 날 이이를 낳은 방이라 하여 몽룡실이라 붙여졌다. 그래서 이이의 아명(兒名)이 ‘현룡(見龍)’이었다.

관이고, 다음으로 향토민속관이 건립되었다. 향토민속관은 폐관되어 화폐전시관으로 재개관될 예정이다. 이 두 전시관 외에 1997년 강릉시립박물관이 경내에 개관하였다.

현재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강릉 오죽헌·시립박물관’이라는 명칭은 오죽헌 유적과 강릉시립박물관을 합성하여 일컫는 것이다. 엄밀히 따지자면 강릉시립박물관(이하 ‘시립박물관’)의 위치가 오죽헌 경내에 있을 뿐, 오죽헌 유적과 시립박물관은 기능을 달리하는 시설이다. 본 글의 제목도 부득이 ‘강릉 오죽헌·시립박물관’을 사용하였지만, 활성화 과제를 논의하고자 하는 시설은 강릉시 공립 종합박물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시립박물관이라는 점을 밝혀둔다.

시립박물관은 개관 이후 운영과 관리의 성격이 상이 한 오죽헌 유적과 통합 관리되어 오고 있다. 박물관 조직의 독립성이 없고, 조직의 미분리로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오죽헌 경내에 조성된 전시시설의 설립과정과 운영현황 분석을 통해 시립박물관의 운영 문제점을 파악해보고, 운영개선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향후 시립박물관이 지향해야 할 방향과 이를 위한 장기발전 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Ⅱ. 오죽헌 경내 전시시설 설립과정

현재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죽헌·시립박물관은 오죽헌 유적과 강릉시립박물관을 합성하여 일컫는 것이다. 야외 전시 개념으로 본다면 오죽헌도 전시물로의 기능이 있지만, 실제 오죽헌 경내에서 박물관·전시관 기능을 하는 시설은 울곡기념관·시립박물관·(구)향토민속관·울곡인성교육관 등 총 4곳이다. 이밖에 시립박물관 소속인 대관령박물관까지 합하면 총 5곳이 된다.

오죽헌 경내에서 전시관의 기능을 처음 수행한 것은 울곡기념관이다. 1962년 국가 재건최고회의 박정희 의장이 오죽헌중수를 지시하여 울곡기념사업협회가 구성되었으며, 여기서 울곡기념관 건립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강릉시가 주관하여 1965년 11월 6일 몽룡실 맞은편(현 문성사 옆)에 완공하여 유물을 보관·전시하는 시설로 이용되었다. 이때 박정희 대통령이 현판 글씨를 썼고, 기념관 안에 「기념관창건기」·「기념각기」 등을 현판으로 걸었는데, 울곡기념회장 장성택, 강원도교육감 김동근, 강원도지사 박경원이 각각 썼다. 1975년 오죽헌 정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해체되어 1976년 3월 고택 아래 현 울곡기념관 자리로 이전·신축하였다. 이후 옥산이우의 후손인 이창용 서울대교수(2022년 현 한국은행총재)가 울곡 일가의 유물을 기증하여 정화사업 때 이축하였던 기념관을 헐어 내고, 그 자리에 2012년 10월 21일 현 울곡기념관을 개축하였다.



1964~1975년 울곡기념관

1976년 울곡기념관

2022년 울곡기념관

울곡기념관 다음으로는 향토민속관이 건립되었다. 향토민속관은 1974년 강릉문화원 2층 상설 전시장에 마련된 향토관(민속자료실)이 모태가 되어 설립된 것이다. 강릉문화원 향토관은 문화원이 태동한 이래 강릉지역에서 수집한 역사·민속자료를 보관·전시했다. 당시 보관·전시된 자료는 강릉에서 출토된 선사유물 15점을 비롯하여 전적류(典籍類) 800점, 서화류(書畫類) 30점, 민속자료 50여 점 등 1천여 점이였다.²⁾ 이 유물들을 체계적으로 보관·전시하고, 시민들에게 향유시키고자 오죽헌 경내에 향토민속관을 건립하게 된 것이다. 향토민속관은 1992년 7월 30일 준공하고, 문화원 향토관 유물을 이관하여 같은 해 11월 15일 개관하였다. 1993년 7월 등록박물관 제54호로 등록하였다. 향토민속관은 1997년 시립박물관 개관 전까지 강릉지역의 대표적인 공립박물관 기능을 수행하다가 시립박물관 개관 후 민속유물을 집중하여 전시하는 특화된 전시관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본 건물에 화폐전시관 설치가 계획됨에 따라 2021년 5월 26일 폐관되었다.



(구)향토민속관 전경



(구)향토민속관 전시실

다음으로 시립박물관이 건립되는데, 시립박물관은 오죽헌 경내의 여러 전시시설 중에서 박물관 본연의 기능을 가장 충실히 수행하는 핵심 시설이다. 1997년 7월 21일 준공하고, 같은 해 10월 26일 개관하였다. 시립박물관이 개관하면서 1998년 1월 17일 오죽헌 유적과 시립박물관이 통합 관리된다.

2) 『강릉문화원 50년의 발자취』(1954~2004), 강릉문화원, 2005, 184~185쪽.



시립박물관 전경



시립박물관 전시실

울곡인성교육관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오죽헌에서의 선비문화체험을 통해 우리 문화를 세계인들에게 보여주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즉 ‘선비문화체험관’ 건립사업으로 시작하였다. 2013년 12월 건축 공사를 시작하여 2016년 11월 28일 개관하였다. 전시 내용이 대부분 이이·신사임당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므로 시설 명칭을 ‘울곡인성교육관’으로 변경하였다. 강릉의 역사 설명 및 동계올림픽 홍보 동영상, 교육·영상·체험 디지털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소장 유물은 없다.



울곡인성교육관

대관령박물관은 일생을 고미술품 수집과 연구에 힘썼던 홍귀숙 선생이 1993년 5월 15일 성산면 어흘리에 개관한 사립박물관이었다. 자연과의 조화를 생각하며 고인돌 형상으로 지었다. 전시실은 네 방위를 수호하는 사신의 이름을 따서 청룡·백호·주작·현무방으로 구분하고, 청룡·주작방 사이에 우리방, 청룡·현무방 사이에 토기방을 두었다. 여섯 개의 전시실은 이름이 상징하는 바대로 전시공간을 독특하게 꾸며 선사·역사·민속유물 1,000여 점을 전시했다. 야외전시장에는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물레방아를 비롯, 각종 석조미술품을 전시하였다. 소장품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홍귀숙 선생의 뜻에 따라 2003년 3월 13일 박물관 건물과 2,000여 점에 이르는 유물 일체를 강릉시에 기증하면서 2003년 11월 28일 시립박물관 소관으로 재개관하였다.



대관령박물관 전경



대관령박물관 전시실

<오죽헌 경내 전시시설 및 전시유물 현황>

구 분	오죽헌/시립박물관				대관령 박물관	계
	향토민속관	시립박물관	울곡기념관	울곡인성교육관		
전체면적	1,637㎡	2,209㎡	1,041㎡	1,761㎡	972㎡	7,620㎡
전시면적	698.4㎡	919.6㎡	360㎡	626.5㎡	686㎡	3,290.5㎡
전시유물	~	200점	70점	디지털전시관	950점	1,220점
개 관 일	1992.07.30준공 1992.11.15개관 2021.05.26폐관	1997.07.21준공 1997.10.26개관	2012.04.26준공 2012.10.21개관	2016.11.28준공 2016.11.28개관	1993.9.15개관	

※ 향토민속관 폐관에 따른 전시유물 400점 → 시립박물관 수장고로 이동

II. 시립박물관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안

시립박물관은 전시·학술연구·사회교육·지역행사 등 공립 종합박물관이 수행해야 할 가장 본연의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시립박물관은 1997년 개관 이래 오죽헌 경내의 핵심 전시기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 200여 점의 유물을 상설 전시하고 있고, 개관 직후부터 매년 특별전을 개최해 오고 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특별전을 개최하지 못하였고, 2022년 특별전 예산을 2023년으로 이월하여, 2023년부터 다시 특별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울곡교육관은 2016년 11월 28일 개관, 이이·신사임당스토리, 강릉의 역사, 동계올림픽 등의 디지털전시관이다. 대관령박물관은 1993년 9월 15일 시립박물관으로 개관하였으나, 2003년 강릉시에 기증됨으로 인해 같은 해 11월 28일 공립으로 재개관하여 950점의 유물을 상설 전시하고 있다.

학술연구 활동으로는 1992년 11월 강릉향토사료관 개관 기념 제1회 영동문화 창달을 위한 전국 학술대회인 「영동의 전통문화를 찾아서」를 시작으로 2021년까지 제 28회 전국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2022년 11월 제29회 개최를 앞두고 있다. 이 학술대회는 강릉원주대학교 인문학연구소와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고, 박물관의 대표적인 학술활동으로 자리해 왔다. 한 기관에서 30년 동안 하나의 대주제를 가지고 전국 학술대회를 지속 개최해 온 것은 전국에서도 매우 드문 사례이다. 이 학술대회는 강릉을 중심으로 한 영동지역의 역사와 문화 전반에 대한 탐색을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지금까지 전국 학술대회를 통해 영동지역의 역사·고고·민속·문학·인물·종교 등 지역 박물관이 관심을 두어야 할 지역문화 전반이 다루어졌다.

사회교육은 박물관 강좌, 강릉 어사화 캠프, 전통문화 교육직무연수, 공무원 문화강좌를 매년 실시한다. 박물관 강좌는 강릉지역의 전통문화와 예술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시민의 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강릉시민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지역사·고고미술사·민속학 등 전통문화 전반에 대한 이론강의와 답사 등으로 이루어진다. 1995년부터 실시하여 매년 50~6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하고 있다.

울곡인성교육관과 오죽헌 주변에서 열리는 강릉 어사화 학교는 과거에서 아홉번 장원급제(구도장원)한 울곡의 정신을 계승하며, 지덕체의 조화로운 인성교육을 현대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참여 어린이들은 유생복을 착용, 『격몽요결』 따라 읽기, 초충도 그리기, 전통활쏘기, 안채에서 전통차 마셔보기 등 9개 체험을 한다. 체험을 각각 마칠 때마다 인증도장을 받고, 모두 마치면 어사화를 착용한 장원급제 복장을 갖추고 사진 촬영 후 이수증을 받게 된다. 이는 어린이 상설 인성교육 프로그램이며, 2018년의 경우는 ‘도전 구도장원-강릉 어사화 학교’를 기획하여 30차례에 걸쳐 시범 운영되었다. 참여대상은 6~7세와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로 선착순 단체 신청으로 운영되었다. 2019년부터는 상설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전통문화 교육직무연수는 2000년 강원도교육연수원으로부터 특수분야 교원직무연수기관으로 지정받아 현직 유·초·중등교원 및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교사들에게 전통문화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할 기회와 현장학습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자 1996년부터 운영하였던 ‘교사를 위한 전통문화 강좌’를 2000년부터 ‘전통문화 교원직무연수’로 명칭을 바꾸어 운영하고 있다.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과정으로 해마다 상반기에 한 차례 실시하고 있다.

공무원 문화강좌는 강릉시 공무원이 강릉문화의 특수성을 학습하고 나아가 효율적으로 문화 관련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다. 매년 강릉시청 공무원 대상으로 ‘우리 지역의 역사와 전통문화 관련 시청각 교육과 문화유적 답사’를 실시한다. 연수시간은 20시간이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연수 대상자 선정, 행정지원과에 교육명령을 의뢰하며, 평가 없이 연수 이수 여부를 인사부서에 통보하여 인사기록 카드에 등재 한다. 주요 강좌는 지역문화의 이해/문화재보호/강원의 역사와 문화/한국미술의 특징/강원의 유교문화/강원의 민속문화/강원의 아리랑/한국의 건축문화/강릉단오제/울곡이이와 신사임당/현장답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강릉을 대표하는 지역행사 중 하나는 대현울곡이선생제(이하 ‘울곡제’)이다. 울곡제는 울곡선생의 유덕을 기리고 얼을 선양하기 위해 봉행하는 제례이다. 오죽헌 경내 문성사 앞에서 개최되는데, 시립박물관이 주관하고 있다.

1962년 강원도지사 이용(李龍)이 쓴 「오죽헌중수기」 현판을 보면, “국가재건최고회의 박정희 의장의 분부를 받들고 한동석(韓東錫) 강릉시장의 협력을 얻어 이 집을 중수하는 동시에 서생의 높은 학문을 찬양(讚仰)하고, 또 구국제민(救國濟民)의 정신을 체득하고자 특히 본도에서는 울곡제 이름 아래 연중행사를 마련하고 이 해로부터 그것을 실시하면서 삼가 여기 중수의 현말(顯末)을 적는다”라고 적혀있다.

울곡제는 박정희 의장의 지시로 1962년 처음 시작되었고, 제1회 제전 중 경포대에서 열린 문화행사에 박정희 의장이 참석하였다. 1962년 11월 6일 제1회 추모 제례를

올린 이래,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매년 봉행하였으며, 2021년 60회 제례를 봉행하였다. 봉행 날짜는 10월 25~26일이다.



1962년(제1회) 울곡제(경포대에서 열린 울곡제 부대 문화행사장에 참석한 박정희 의장)

학자이자 관료, 나아가 교육자로서 일정한 성취를 이뤄낸 울곡 이이와 관련된 유적이나 유물들은 숭앙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존경의 표현은 후에 울곡 이이를 문묘에 배향하거나 자운서원, 송담서원 등 전국 여러 개의 서원에 배향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울곡제 역시 문묘나 서원에 배향한 것과 같이 학덕을 추앙하고 유업을 선양하기 위해 봉행하는 제례다. 행사는 제례를 중심으로 문예행사와 경축행사로 구분되며, 제례는 다시 서제와 본제로 구분되어 서제는 10월 25일, 본제는 10월 26일에 봉행된다. 서제는 제전위원장이 헌관이 되어 약식으로 치러지며 강릉시장을 비롯한 대현울곡이선생제전위원, 울곡선생 후손들이 참례한다. 본제는 초헌·아헌·종헌관이 홀기에 맞춰 제례를 봉행하는데, 초헌관은 강원도지사, 아헌관은 강원도교육감, 종헌관은 강릉향교전교와 유도회 강릉지부회장이 격년으로 담당한다. 강신례·초헌례·아헌례·종헌례·음복례·망료례·사신례 순으로 진행되며, 제전위원·고문·유림·학생·일반시민·덕수이씨·제례무용단·제례악단·합창단 등이 참석한다. 부대행사는 크게 문예행사와 경축행사로 구분된다. 문예행사로는 ‘한시백일장’·‘한글백일장’·‘취호대회’·‘전국백일장’·‘사생대회’ 개최, 경축행사로는 ‘수학경시대회’ 등이 열린다.



1963년(제2회) 울곡제

1968년(제7회) 울곡제

2019년(제58회) 울곡제

울곡제 외에 강릉 다인(茶人) 모임인 동포다도회와 공동으로 매년 한송정 들차회를 개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차 유적지인 한송정에서 신라 화랑에게 헌다(獻茶)하고 다인(茶人)들이 차를 나누는 행사로 매해 10월에 개최한다. 1997년 5월 동포다도회 주관으로 한송정 터에서 처음 열렸다. 한송정 터는 신라 화랑의 순례지이며 차유적지로 이름난 곳이다. 한송정에는 신라 화랑이 차를 달일 때 썼다는 석지(石池)·석조·석정(石井)이 있었다고 하나, 현재는 돌샘과 ‘신라선인영랑연단석구(新羅仙人永郎鍊丹石臼)’라는 글자가 음각된 석물만이 남아있다. 행사에는 동포다도회장·강릉시장·공군부대장·강릉시의회의장·강릉문화원장 등의 지역 인사들이 참석한다. 참석 인사들의 축사에 이어 화랑에게 헌다하고 내빈들이 헌화한다. 이어 지역의 차회(茶會)가 참여하여 준비한 차와 다과를 손님들에게 선보인다.

이처럼 시립박물관은 박물관 고유기능을 전반적으로 수행하기는 하나, 특별전 등 행사 횟수나 규모가 현저히 적어 활성화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금의 박물관은 과거에 비해 그 기능과 역할의 다양성이 강조되고 있다. 아래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 정하고 있는 박물관의 기본 기능과 현재까지 시립박물관의 기능을 비교해 보면, 시립박물관은 20여 년 전 운영방식을 탈피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박물관의 기능:「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박물관자료의 수집·관리·보존·전시
- 박물관자료에 관한 교육 및 전문적·학술적인 조사·연구
- 박물관자료의 보존과 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연구
- 박물관자료에 관한 강연회·강습회·영사회(映寫會)·연구회·전람회·전시회·발표회·감상회·탐사회·답사 등 각종 행사의 개최
- 박물관자료에 관한 복제와 각종 간행물의 제작과 배포
- 국내외 다른 박물관 및 미술관과의 박물관자료·미술관자료·간행물·프로그램과 정보의 교환,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교류 등의 유기적인 협력
-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시립박물관의 이 같은 문제점은 오죽헌 유적지와 박물관의 기능과 성격이 상이함에도 통합 관리체계를 유지함으로써 박물관 운영의 자율성이 부족하여 박물관 본래의 기능 수행과 특성화가 어렵다는 조직구조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는 오죽헌 유적과 통합 관리되는 특성상 박물관 조직의 독립성이 없고, 조직 미분리로 운영의 효율성이 낮은 것에 따른 현상이다. 박물관의 역량은 전문가인 학예인력에 달려 있음에도 시립박물관은 학예인력이 오죽헌 유적관리 부분도 담당하고 있어 본연의 박물관 업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시립박물관은 현재 학예인력이 태부족이다. 강릉보다 규모가 작은 원주역사박물관의 경우만 해도 전문가인 학예인력이 강릉의 2배에 달하는 6명이 배치되어 있다. 현재와 같이 오죽헌과 박물관 통합관리 체제로는 효율적인 박물관 운영은 요원하다.

시립박물관의 역할과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조직개편을 통한 오죽헌·시립박물관 부서를 확대하고 전문인력 보강이 필요하다. 시립박물관과 오죽헌 유적관리 부서를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한 조직으로 개편해야 한다. 박물관 관리·운영은 행정·기술직, 유물·수집·보존·연구·전시·교육은 학예직을 충원하여야 하고, 전문 학예인력은 학예일반·보존과학·교육 등 세분화 확보대책이 필요하다.

운영 측면에서는 1종 종합박물관의 기능인 유물·수집·보존·연구·전시·교육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시립박물관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개편해야 한다. 울곡기념관·화폐전시관·울곡인성교육관은 울곡·신사임당으로 특화된 상설전시전담 콘텐츠 시설이므로 오죽헌 유적관리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오죽헌 유적관리부서도 최소 2개 팀으로 확대하고, 울곡기념관·화폐전시관·울곡인성교육관 또한 전시·교육시설이므로 학예직 충원이 필요하다.

시설 면에서는 단기적으로 오죽헌 경내의 현 시설 체제를 유지하면서 관리·운영 조직을 조속히 확대·개편하고, 동시에 박물관 증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오죽헌 연 관람 인원이 100만에 육박하는 점을 감안할 때 시립박물관을 증축한다 하더라도 현 관람 동선을 유지하는 것이 박물관 증축 당위성 확보와 운영 활성화 기대, 관람객 유치 측면에서 볼 때 큰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외 또 다른 개선안으로는 시립박물관을 독립관서로 분리하고, 오죽헌 유적과 유적에 대한 상설전시전담 콘텐츠 시설(울곡기념관·화폐전시관·인성교육관 포함)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이다. 사적 제236호 통영 충렬사의 경우 통영시에서 (재)통영충렬사로 위탁관리하고 있기도 하다. 오죽헌 유적 위탁관리 기관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오죽헌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가장 연관성이 깊은 단체인 (사)울곡연구원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장기적으로는 울곡학을 모태로 강릉에 설립 유치 중인 가칭 ‘(재)강원역사문화진흥원’을 대안으로 둘 수 있다.

오죽헌 위탁관리가 결정될 경우 울곡제의 주관도 위탁기관에서 대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오죽헌 모든 경내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경내에서 이루어지는 보수·정비의 경우 문화재청 국고보조사업으로 현상변경허가 절차를 득한 후 시행해야 하는 법적 절차가 있으므로, 민간 위탁관리가 결정된다 할지라도 보수·정비는 현행과 같이 강릉시 문화재관리팀에서 수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민간위탁 단체는 울곡제 봉행, 홈페이지 관리, 관람객 수용·관리 등 정상적 관리를 담당하도록 위탁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여야 한다.

Ⅲ. 시립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장기발전 과제

시립박물관은 강릉시의 행정과 예산이 지원된다는 강점을 가진 공립박물관이다.

오죽헌 경내에 있는 특성상 연간 100만에 육박하는 관람객이 오고 있다. 이는 강원도 내 공사립박물관을 통틀어 관람객의 절대 우위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그리고 울곡기념관·화폐전시관이 함께 위치하여 전시 콘텐츠의 다양성을 확보한 기관이다.

반면, 오죽헌 유적과 통합관리 되는 운영 자율성 부족, 조직 미분화로 인한 운영 효율성 저하, 학예연구직 등 총체적 인력 부족, 직원의 순환보직제로 인력 전문화 어려움, 교육시설 등의 공간 부족 심각, 홍보마케팅·국제교류·정보화기능 미흡, 연간 운영예산 절대적 부족 강릉시의 문화정책 마인드의 부족, 시민 문화생활에서 전통문화 비중 약화, 문화시설보다 관광시설에 집중투자, 정부의 문화경영 및 문화산업 강조로 인한 상대적인 전통문화 위축·소외 등의 문제점과 위기가 상존한다.

하지만 현재 문화지식기반사회가 도래했고 평생학습 강조되고 있으며, 시민 생활 수준과 여가활동이 증대하고 있음은 오래전부터 있어 온 사회적 변화이다. 더욱이 코로나19 이후 강릉 관광객이 급증하고, 강릉은 문향·예향의 전통문화 인식의 강세를 보이고, 국립지방박물관의 강릉 유치 동향이 있어 시립박물관의 비전과 전략을 새로 수립한다면, 향후 발전 가능성은 충분하므로, 여기서는 향후 시립박물관이 장기발전 과제로 검토해야 할 전략을 10가지 정도로 제시하여 보겠다.

1. 박물관의 특성화

시립박물관 소장품은 지역에서 수집된 유물이나 신사임당·울곡 가문과 관련된 유물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강릉문화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앞으로 종합적인 특성화가 아니라, 인접 문화권과 구분되는 특수성과 우수성을 보여주는 특정 시기 또는 분야를 부각하는 전문화된 특성화를 이루어야 한다. 고대국가의 도읍지에 있는 경주·공주·부여·김해박물관 등은 이미 시기(문화권)별 전문화가 이루어져 있는 대표적 사례이다. 물론 지방박물관에 따라 특성화 방향을 도출하기 어려운 박물관이 있다. 이는 대부분의 공립박물관이 고고·미술·역사 분야에 한정하고 있어 이 분야와 관련된 특성을 찾아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화폐전시관 개관에 따라 폐관된 (구)향토민속관의 민속품에 대한 전시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구)향토민속관에 전시되었던 민속품은 강릉의 생활문화를 특징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대표 유물로 볼 수 있다. 국립전주박물관과 국립대구박물관이 다른 박물관과 달리 민속실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 여겨진다. 현재 추진 중인 화폐전시관 또한 기존 한국은행에서 운영하는 화폐전시관과의 차별화 있고 특화된 콘텐츠 제시가 있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제시한 시립박물관의 특성화 방향은 하나의 제안

에 불과하다. 강릉시립박물관이 어떤 방향으로 특성화해 나갈 것인가는 관련 전문가들의 검토와 박물관 소장품의 구비현황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며, 여기에 근거하여 박물관 특성화 전략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강릉의 가치를 대표하는 소장품 확충

양질의 소장품 확충은 두말할 것 없이 박물관의 면모를 유지하고 발전해 나가는 데에 있어 핵심적인 사안이다. 시립박물관의 경우 지역의 다양한 유물을 소장하고 있지만, 강릉지역에서 매장문화재발굴로 출토된 고고 유물 소장이 부족한 편이다. 이는 발굴매장문화재의 국가귀속 원칙에 따라 국가기관인 국립춘천박물관에 소장되는 까닭도 있지만, 수장고와 전시공간 부족 등 시립박물관이 발굴매장문화재 보관기관으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상, 시립박물관이 보관·관리청으로 지정되기는 불가하나, 위탁보관시설 지정은 가능하다. 일차적으로 향후 관내에서 발굴되는 매장문화재를 위탁보관 전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유물 구입 예산이 매우 부족하여 양질의 소장품 확충이 어렵다. 구입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도 중요하나, 소장품 기증에 따른 혜택 홍보와 기증유물 전시실 확충을 통해 기증·기탁 유물 추가 확보방안을 마련, 소장품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3. 박물관 전시의 지역 특성화

시립박물관의 전시는 다른 활동에 비해 전문가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상설 전시의 주기적인 교체와 특별전시를 활성화하기 어려운 여건으로 인해 관람객이 지속 박물관을 찾을 동기부여를 못하고 있다. 시립박물관은 전시 특성화 전략을 수립하여 상설 전시를 특성화하고 나아가 양적·질적 수준에서 풍부한 볼거리를 제공해 나가야 한다. 강릉시립박물관은 예산 및 인력 제한으로 연 1회 정도의 특별전을 개최해 오고 있다. 그러나 1회를 개최하더라도 공립기관으로서의 성격에 맞게 질적 수준이 높은 전시를 하는 것이 강릉시립박물관이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 하는 길이다. 향후 특별전시 활성화를 통해 강릉 전통문화를 심층적으로 조명하고, 지역 학술·문화단체와 공동기획 전시, 전시디자인과 콘텐츠의 질적 수준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

4. 박물관의 사회교육 기능 강화

박물관의 사회교육 기능은 21세기 박물관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립박물관뿐만 아니라 지방박물관은 사회교육을 충분히 수행하기 어

려운 여건에 처해 있다. 시립박물관의 경우 매년 몇 가지 사회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 교육 기능을 충실히 이행한다고 볼 수 없다. 박물관의 사회교육 기능 강화는 시설·인력·예산 등의 인프라 구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시립박물관은 현재 사회교육공간도 없고, 교육 전담 요원도 없다. 예산 확충을 통해 사회교육관 건립, 사회교육 요원 확충,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열린 문화행사 개최, 교육자료 개발·보급, 도슨트(docent)를 통한 전시해설 강화, 인턴제 운영, 찾아가는 박물관 활성화 등 영동지역의 대표 평생교육학습센터로서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5. 지역 네트워크에 기반한 중장기적인 조사연구 강화

시립박물관 학술조사의 경우 특별전에 따른 전시도록 발간 등의 단편적 조사다. 향후 박물관 조사사업은 다른 박물관과 학술단체가 수행하기 어려운 특화된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중장기적 조사연구 중심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지역 박물관의 연구 목적이 지역 문화 연구에 있는 만큼,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 지역 연구자들의 참여를 독려하여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역 내 연구기관 및 연구자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공·사립·대학박물관과 지역 대학 및 연구소와 공동연구사업을 개발하고, 지역 전통문화 전문자료실을 구축하여 자료를 아카이빙하여 지역 연구자와 공유하여야 한다. 그리고 종합적인 학술조사연구 일환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일 년에 1~2건의 연구사업 시행, 소장 유물에 대한 보존과학 연구, 지역 전통문화 총서 발간 등 지역유산연구센터로서의 기반 확충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6. 소장 유물의 과학적 보존기반 구축

소장품의 예방적·과학적 보존을 위해 소장품의 과학적 보존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보존과학 분야는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장비가 고가이기 때문에 시립박물관 자체적으로 보존과학실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공립박물관도 마찬가지이다. 외주에 의존해 왔던 보존처리 기능의 자체 구축을 위해 예산의 현실화로 보존환경 최적화, 보존과학 요원 확충, 보존처리 기자재와 시설 확충 등으로 시립박물관이 지역의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박물관 자원을 활용한 디지털콘텐츠 제공 확대

지금까지 추진된 박물관의 가장 초보적인 정보화는 소장품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이 중심이었다. 소장품 데이터베이스는 대부분의 박물관이 완성된 상태이므로 박물관

정보화 사업은 기반조성단계에서 고차원적인 활용단계로 도약해야 할 시점이다. 박물관이 디지털콘텐츠로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은 다양하다. 외국 박물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는 단순한 홍보 매체 차원을 넘어서서 다양한 교육 정보의 교류창구로 활용되고 있다. 박물관은 온라인상에서 양질의 문화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정보문화의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가상전시실(cyber gallery) 운영으로 실감미디어 등 최첨단 기법의 영상전시 구현은 박물관에서 제공해야 할 콘텐츠의 기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시립박물관의 경우 소장품 데이터베이스 구축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향후 소장품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의 질적수준 제고, 실감미디어 전시, 가상전시실 운영, 비매품 교육자료 및 조사보고서의 온라인 보급, 인터넷을 통한 유물 촬영·복제·열람신청 제도 확립 등 지역유산정보센터로서의 기반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8. 국제 전시 및 학술교류 프로그램 확대

시립박물관은 자체 섭외기능 부재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다. 조직개편을 통해 국제교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학예연구실을 중심으로 국제 전시 및 학술교류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 국제 교류전시를 활성화함으로써 강릉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세계문화를 강릉에 소개하는 교류를 확대, 세계화 시대가 요청하는 열린 문화적 정체성 형성에 기여해야 한다. 전시와 더불어 문화교류의 역사 속에서 강릉의 문화가 다른 나라 문화와 어떤 영향 관계에 있었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지역 대학 및 문화기관과의 공동 국제 학술세미나 개최, 해외 학술세미나 및 연수 프로그램 참가 활성화 등을 통해 강릉시립박물관이 강릉문화의 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국제문화교류센터로서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9. 박물관에 대한 접근성과 친근성 제고

박물관에 대한 접근성을 제약하는 심리·물리·경제적 장애 요인을 규명하여 시립박물관이 강릉시민과 전 국민이 문화복지기관으로서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강릉시립박물관의 경우 최근 2년(2020~2021) 코로나19 여파로 관람객이 감소하기는 했으나, 평시 연 관람 인원은 100만 명에 육박한다. 연 1회 정기적으



로 관람객의 수요와 만족도를 조사, 관람객의 성별·연령별·계층별 구성비율 분석, 전시·교육·시설·서비스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불편사항과 개선사항을 파악해야 한다. 이외 지속적인 관람객 편의시설 개선 등이 필요하다. 정기적인 관람객 조사에 따른 통계자료를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반 관람객 서비스 시설 및 홍보에 대한 개선작업 등의 매력적인 관람환경 조성으로 강릉시립박물관이 전국적인 문화관광 명소화를 이룰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10. 지역 박물관과의 공동마케팅 시스템 구축

시립박물관은 오죽헌과 통합입장료를 징수하기는 하나, 공립기관이라는 특성으로 수익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워 마케팅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수익사업은 상업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관람객이 박물관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서비스의 연장 선상에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현 상태에서는 박물관이 독자적으로 마케팅을 수행하기보다는 박물관 수익사업을 통합관리 할 법인 등의 민간단체 위탁을 통해 이곳에서 공동마케팅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 마케팅은 통합입장권 판매, 문화상품점 운영, 문화상품 및 복제품 제작·판매, 박물관 안내서·도록·보고서·실감미디어 등의 출판·제작·판매, 자판기·매점·카페테리아·레스토랑 운영, 박물관을 축으로 한 문화관광 코스개발 및 시행, 온라인 판매, 관람객 조사 분석 대행 등의 사업이다. 초기에는 인프라 구축을 위한 행정절차와 투자가 많이 소요될 것이나 일정 정도 수익성이 확보되는 시점에 이르게 되면 강릉시립박물관의 소장품 구입 등 운영비를 확충하는데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도 전망된다.

IV. 맺음말

시립박물관은 공립박물관이다. 오죽헌 경내에 있는 특성상 연간 100만에 육박하는 관람객이 찾는 대표 명소이기도 하다. 강원도 내 공사립박물관을 통틀어 관람객의 절대 우위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그리고 울곡기념관·화폐전시관이 함께 있어 전시 콘텐츠의 다양성이 담보된다. 1997년 개관 이래 전시·학술연구·사회교육·지역행사 등 공립 종합박물관이 수행해야 할 본연의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강릉을 대표하는 박물관의 역할을 해왔다.

박물관은 과거 유물수집과 전시를 주목적으로 하던 것에 비해, 현재는 그 기능과 역할의 다양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시립박물관은 20여 년 전 운영방식을 탈피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오죽헌 유적과 통합관리 되는 운영 자율성 부족, 조직 미분화로 인한 운영 효율성 저하, 학예연구직 등 총체적 인력 부족 등으로 운영의 정체기가 지

속하고 있다. 이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조직적 측면과 운영적 측면의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조직적 측면에서는 조직개편을 통해 시립박물관과 오죽헌 유적관리 업무 성격에 고려한 조직을 분리·확충하고, 전문인력 확충을 통한 전문성 확보로 시립박물관의 면모 일신이 필요하다. 운영적 측면에서는 현재와 미래지향적인 박물관으로 발전하기 위한 장기 발전과제를 모색하여 하나씩 실천해 나가야 할 때이다.

시립박물관은 직원의 순환보직제로 인력 전문화 어려움, 교육시설 등의 공간 부족 심각, 홍보마케팅·국제교류·정보화기능 미흡, 연간 운영예산 절대적 부족 강릉시의 문화정책 마인드 부족, 시민 문화생활에서 전통문화 비중 약화, 문화시설보다 관광시설에 집중투자, 정부의 문화경영 및 문화산업 강조로 인한 상대적인 전통문화 위축·소외 등의 문제점과 위기가 상존한다.

하지만 현재 문화지식기반사회가 도래했고 평생학습 강조되고 있으며, 시민 생활 수준과 여가활동이 증대하고 있음은 오래전부터 있어 온 사회적 변화이다. 더욱이 코로나19 이후 강릉 관광객 급증, 강릉은 문향·예향의 전통문화 인식의 강세를 보이고, 국립지방박물관의 강릉 유치 등의 동향이 있어 시립박물관의 비전과 전략을 새로 수립한다면, 전국 최고의 박물관으로 명성을 드높일 수 있는 발전 가능성은 무궁할 것으로 생각된다.

「강릉 오죽헌·시립박물관 운영 활성화 과제」에 대한 토론문

정 병 진

(강원대학교 사학전공 강사)

본 발표문은 강릉 오죽헌·시립박물관의 설립과 전시시설의 변화를 서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당 시설의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안을 정리한 글이다. 필자는 이에 그치지 않고 강릉시 종합박물관의 임무를 수행하는 ‘시립박물관’의 운영을 장기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10가지 과제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연간 방문객이 100만에 육박하는 장점을 가진 시립박물관이 과거의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인 박물관으로 변모하기를 기원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발표문의 구성과 내용에서 드러나듯이 이 글의 핵심은 필자가 제시한 10가지 장기발전 과제이다. 해당 내용은 오늘날 박물관에 요구되는 자료의 수집·관리·보존·전시·교육·교류 등에 폭넓게 걸쳐있다. 다만, 이와 같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기관에서 공통점으로 겪는 어려움인 예산과 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다. 또한, 강릉의 지역 정체성을 상징하는 공간으로서 시립박물관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 필자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

1. 필자가 제안한 10가지 장기발전 과제는 모두 막대한 예산과 학예인력의 충분한 확충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기관은 극소수일 것이다. 그렇다면 시립박물관에 주어진 예산과 인력을 바탕으로 필자가 제시한 과제 중에서 가장 먼저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2. 강릉시에 설립된 타 박물관 및 다른 도시에 소재한 박물관들과의 경쟁을 이겨내기 위해서라도 시립박물관의 특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타당하다. 그렇다면 필자는 앞으로 시립박물관에서 강릉의 정체성과 관련된 어떤 지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며, 이를 바탕으로 강릉시민 또는 강릉을 방문한 여행객을 대상으로 삼는 각종 교육·행사 프로그램이 어떤 형태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지 알고 싶다.



세션 2 : 인문학 분야 자유주제

발표문 국어 논리 논술 교육	63
손남익 (강릉원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토론문 「강원문화유산의 아카이브와 대중화 방안」에 대한 토론문	85
장영숙 (강릉원주대학교 교양기초교육본부 강사)	
발표문 方玉潤의 『詩經原始』: ‘淫詩’ 혐의가 제기된 시들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87
이남중 (전주대학교 한문교육과 교수)	
토론문 「方玉潤의 『詩經原始』」에 대한 토론문	117
김영식 (강릉원주대학교 인문학연구소 특별연구원)	
발표문 흠에게서 자아 형이상학	121
백승환 (강릉원주대학교 철학과 교수)	
토론문 「흠에게서 자아 형이상학」에 대한 토론문	141
정진범 (강릉원주대학교 철학과 교수)	

국어 논리 논술 교육

손 남 익

(강릉원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논술(論述)의 기초

논술의 기초와 기본을 올바르게 알고 토대를 갖추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논술의 기초에 대한 토대 마련을 위해 필요한 다섯 가지 목표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논술이란 글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 이해한다.

둘째, 논술에서 부과되는 지문과 논쟁에 접근하는 방식을 말할 수 있다.

셋째, 제시된 자료나 지문을 분석하여 글을 요약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다.

넷째, 개요를 작성하는 능력을 갖춘다.

다섯째, ‘서론·본론·결론 쓰기의 요령’을 익힌다.

1. 논술의 개념과 특성(기초)

1) 논술(論述)이란 무엇인가?

논술(論述)은 과연 무엇인가? 한자의 뜻을 우선 살펴보자. ‘논(論)’이란 글자는 ‘논하다, 말하다, 의견, 견해, 학설’ 등의 뜻을, ‘술(述)’은 ‘펴다, 말하다, 짓다, 잇다. 밝히다, 닦다, 기록, 저술’ 등의 뜻을 가지고 있다. 이런 한자의 뜻으로 논술의 사전적 의미를 밝혀보면 ‘어떤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쳐 말하는 것’ 또는 ‘특정 주제에 대해 필자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전적 정의만으로 논술의 개념을 이해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조금 더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 ‘서울대 논술 고사 성격 안내’의 일부를 인용해 보겠다.

논술 고사는 비판적으로 글을 읽는 능력과 창의적으로 문제를 설정하고 해결하는 능력 그리고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험이다. 비판적으로 글을 읽는다는 것은 반성적으로 생각하면서 능동적으로 글을 읽는 것을 말하며, 창의적으로 문제를 설명하고 해결하는 능력이란 심층적이고 다각적으로 논제에 접근함으로써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그리고 논리적 서술 능력은 글 구성 능력, 근거 설정 능력, 표현 능력 등을 포괄한다.

위의 인용문을 분석해 보면 우리는 논술이 세 가지 능력을 요구하는 글쓰기임을 알 수 있다. 그 세 가지 능력이란 무엇인가? 그 세 가지 능력은 논술 문제와 논술에서 제시된 지문을 분석하는 능력, 분석을 통해 발견된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문제에 대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능력, 마지막으로 이를 언어로 표현하는 서술 능력이다.

논술이란 지문과 논제를 비판적·분석적으로 읽어 정확히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으로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여,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2) 논술의 특성

논술의 특성 이해를 위해 논술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글과 그렇지 않은 글을 비교·대조해 보는 작업은 논술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논술은 문학적인 글과 비문학적인 글 중 무엇에 해당할까? 정답은 모두가 짐작하듯 비문학적인 글이다. 그렇다면 문학적인 글과 비문학적인 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 문학적인 글과 비문학적인 글의 차이점을 생각해 보며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자.

논술이란 글은 인간에 정서에 호소하고자 하는 글이 아니라 사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명확한 분석력, 이에 대한 타당한 해결책 제시 등과 같은 요소들로 구성된 이성적 호소하는 글이라는 점이다. 특히, 이성에 호소하되 어떤 구성을 갖추는 글인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논술은 어떤 구성을 갖춰야 하는가? 다음과 같은 도식에 주목해 보자.

“논술=주장+논거”

대부분의 학생들은 논술이 주장과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구성되어야 하는 글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점이 논술은 자신의 주장을 제시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하는 글인데, 학생들은 주장과 상관없거나 아니면 심지어 주장에 반대되는 내용을 글에 적어 놓기도 하고, 그것도 아니면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부족한 논거를 제시하거나 아예 주장과 무관한 논거를 제시하기도 한다. 논술의 특성을 말하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논술=주장+논거”라는 사실을…….

한 차원 더 높은 논술이란 글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과거에 서울대학교 입학 관리 본부가 제시한 '논술 평가 기준'을 제시한다. 평가란 의도하고자 한 목표가 제대로 실현되었는지를 따져 묻는 하나의 절차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논술의 평가 기준을 살피는 작업은 논술이란 글의 특성을 가장 잘 이해하게 해주는 작업이 될 수 있다.

<p>이해·분석력 (20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어진 발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분석 능력 · 제시된 지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분석(독해) 능력 · 논술문이 발문에 충실한 정도 · 제시문을 적절히 활용한 정도
<p>논증력 (30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 설정 능력 - 주장에 대한 적절하고 분명한 논거 제시 여부 - 주장과 논거의 논리적 타당성 - 논제에 대한 분명한 견해 표현 - 표현 견해가 제시문의 논이에 의거한 적절한 뒷받침 · 구성 조직 능력 - 전체 논의 전개에 있어 정합성 및 일관성 유지 - 전체 논의 전개에 있어 논리적 비약의 여부 - 글의 전체적인 흐름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전개
<p>창의력 (40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층적인 논의 전개 ~본인의 주장이나 논거에 대해 스스로 가능한 반론들의 고려 ~본인의 논의가 지니는 더 나아간 함축이나 귀결들에 대한 고려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맥락이나 배경 상황에 대한 적절한 고려 ~묵시적인 가정이나 생략된 전제에 대한 더 나아간 고찰 · 다각적인 논의 전개 ~발상이나 관점 전환을 시도 ~가능한 대안들에 대한 고려 ~여러 개념들의 종합 ~암묵적으로 가정된 전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독창적인 논의 전개 ~주장이나 논거에 있어 새로움 ~문제를 통찰함에 있어 특이함 ~관점이나 논의 지평에 있어 참신함
<p>표현력 (10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현의 적절성 ~문장 표현의 매끄럽고 자연스러움, 적절한 비유 등 ~단락 구성 및 어휘 사용 ~맞춤법, 원고지 사용법

2. 지문 및 논제 분석하기

‘지문 및 논제 분석하기’부터는 최대한 간략하게 필요한 내용만을 압축적으로 제시 하겠다. 논술 문제를 앞에 두고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고민은 무엇일까? 바로 내가 풀어야 할 문제는 무엇이고, 나는 이 논술 문제의 답을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는 고민이다. 그것이 바로 논제 분석하기다. 논술 문제에는 출제자가 그 문제 속에 담아 둔 요구가 있다. 출제자는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 중 특정 주제를 선택하여 이런 것에 대해 쓰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 요구를 제대로 분석해 내는 것이 바로 논술 문제의 시작이 된다. 그렇다면 ‘지문 및 논제 분석하기’는 문제 분석이란 논술에서 논술 문제가 쓰라고 요구하는 일을 항목화하여 정하는 것이다. 한 가지 강조해야 할 점이 있다. 바로 지문과 문제를 분석한 것이 ‘개요 짜기’ 단계가 본문으로 구성된다는 점이다.

3. 요약하기

글을 요약하기 바로 앞의 단계에서 제시했던 ‘지문 및 논제 분석하기’와 ‘요약하기’가 별도의 활동이 아니라 논술 문제를 풀이하는 과정 속에 통합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요약하기’의 실질적인 능력을 배우기 위해 3단계의 과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과정을 숙지하여 요약하기 능력을 길러야 한다.

- ▲ 1단계 : 전체적인 글을 생각의 단위(문단 등)로 나누어 그 단위 속에서 세부적으로 중심 문장을 찾아 밑줄을 긋는다. 이때 중심 문장을 찾기 어려운 경우는 문단의 중심 생각이 될 수 있는 어휘를 찾아 밑줄을 그어보도록 한다.
- ▲ 2단계 : 밑줄 친 내용을 바탕으로 문단마다 그 문단의 핵심 내용만이 담긴 짧은 문장으로 문단의 끝부분에 요약한다.
- ▲ 3단계 : 문단별로 요약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체적인 글의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하는 짧은 글을 써 본다. (문단 요약한 내용을 적절한 연결어로 이어도 한편의 글의 핵심을 알 수 있다.)

4. 개요짜기

많은 지식과 정보 그리고 자료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잘 배열하지 못하면 이것은 훌륭한 글이라고 할 수 없다.

좋은 건축 자재와 훌륭한 목수가 있더라도 설계도가 훌륭하지 못하면 훌륭한 건축물이 나오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자료를 어떻게 배열하고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은 논술의 기초다. 물론 자료의 배열과 구성에 특별한 형식이나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다. 자료를 놓고 생각한 것을 논리 전개의 순서에 맞게 그대로 종이 위에 적어 나가면 된다. ‘무슨 이야기를 가장 먼저 앞에 놓을 것이며 어떤 문제

를 뒤에 놓을까 어떻게 체계를 잡을 것인가?’하는 문제에 대한 생각들을 스스로 물어 보면서 그에 대한 답을 적어 나가면 개요가 되며 대체로 다음과 같은 관례에 따르는 것이 좋다.

- ▲ 글감은 서론과 본론, 결론에서 다루어야 할 부분들을 알맞게 배열한다.
- ▲ 주제문에 따라 수집된 자료들을 화제나 성격에 따라 2개 이상의 논점(주요 논점)으로 나눈다.
- ▲ 각 논점들을 다시 그 내용에 따라 2개 이상의 하위 항목(종속 논점)으로 구분한다.
- ▲ 각각의 하위 항목 중 다루려는 범위가 넓어서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을 경우 다시 2개 이상의 세부 항목으로 나누고, 그럴 필요가 없을 경우는 하위 항목에 해당하는 자료들을 순서에 맞게 배열한다.
- ▲ 각 논점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가 빠진 것은 없는지, 논점의 배열이 논리적 위상에 맞게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검토한다.

개요를 치밀하게 작성해 놓으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

첫째, 집필 과정에서 일어나기 쉬운, 글이 다른 방향으로 빗나간다는지, 엉뚱한 이야기가 끼어든다는지, 중요한 내용을 빠뜨린다는지, 쓸데없이 앞의 이야기를 다시 중언부언한다는지 하는 잘못을 미리 막을 수 있다. 개요가 일종의 설계도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다.

둘째, 머릿속에서 짜여진 구성이 잘 되었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주제문의 의도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항목 간의 균형은 맞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개요는 X선 촬영 사진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구성의 잘잘못 여부를 쉽게 알아볼 수 있으며, 용이하게 고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작문 과정 중에서 얻어지는 직접적인 이점은 아니지만, 잘 짜인 개요는 그 자체만으로 한 편의 글을 대신할 수 있으며, 또한 필요한 서적을 읽으면서 그 내용을 간결하게 개요를 작성해 두면, 그 책을 다시 읽을 때도 큰 도움이 된다.

개요 짜기는 문제 분석을 하면 쉬워진다. ‘지문 및 분석하기’에서 예를 든 내용 중 문제 분석 후 문제 분석한 결과가 무엇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바로 개요의 본론이 된다. 개요의 본론을 이미 정리했다면 서론과 본론은 쉽게 쓸 수 있음을 알 수 있어야 한다.

5. 서론·본론·결론 쓰기

글의 구조는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듯이 다양하고 고정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각 개인에게 모두 똑같은 이름을 지어주지 않듯이 글의 구조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굳이 글의 구조에 해당하는 ‘서론·본론·결론 쓰기’의 대략을 제시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논술의 기초’의 목적이 기본을 배우는 것이라는 말을 했었다. 기초를 제대로 익힌 다음에 응용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논술에서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고 창의성이란 대다수의 사람이 따르지 않는 새로운 무언가를 생각해 내는 것임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하지만, 창의적인 능력도 탄탄한 토대를 응용하여 생겨날 수 있는 능력이지 사상누각은 될 수 없음도 알아야 한다.

‘서론·본론·결론 쓰기’는 간단한 표의 제시로 그 설명을 대신하겠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서론과 본론 그리고 결론에 각각 들어갈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서론 문제 제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제에 대한 집중과 흥미 유발 · 글 쓴 동기와 의도를 밝힘 · 문제의 현황 설명
<p style="text-align: center;">본론 문제 해결 방안 제시 (주장의 전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 제시, 이에 대한 필자의 견해 진술 · 자신의 견해의 정당성을 논거를 제시하여 입증 · 통계 숫자, 권위자의 학설, 사례와 예화 등 · 예상되는 반론 격파 · 해결 방안의 구체화 및 그 유효성
<p style="text-align: center;">결론 주제의 재확인, 제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론의 요약 및 정리 · 독자의 결심 촉구, 행동으로 유도 · 새로운 과제의 제시와 앞으로의 전망

6. 논술의 개념 (심화)

논술을 잘하는 비결은 무엇일까? 수많은 논술 참고서나 기사를 보아도 언제나 그 대답은 약속이나 한 듯이 불분명하다. 바로 “논리적이고 창의적으로 논술을 작성하라”는 것, 하지만 오히려 학생들은 더 답답하다. “누가 그걸 모르나.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지. 그 방법이 있다면 누가 제발 구체적으로 좀 알려다오~!”

수험생에게 필요한 것은 추상, 원론적 방향 제시 따위가 아니다. 바로 구체적인 방법론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논술은 어째서 ‘무결점(無缺點) 논술’일까? 입시 수단으로써 작성되는 논술은 과연 어떤 기준으로 평가될까? 많은 학생들은 논술이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구분된 가점(加點) 단계에 의해 평가가 이뤄지는 것으로 혼동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대학입시에 논술시험이 주요 수단으로 등장하게 된 1994년 이래로 주요 대학들이 갖고 있는 논술의 채점 기준표를 분석해 보면 대부분의 항목이 감점(減點) 단계로 구성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심지어는 사고력이나 창의력 같은 추상적

인 범주의 평가 항목조차 말이다. 다시 말해 논술이란 가점 항목이 아닌 감점 항목에 의해 평가가 되는 시험 유형이다.

그렇다면 현시점에서 학생마다 각기 다른 능력과 입장을 초월하여 논술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확보하기 위한 최선의 길이 있다면 무엇일까. 바로 ‘논술의 기본 개념과 세부적인 평가 항목부터 정확히 이해하고, 불필요한 감점 요인을 줄여 나가는 것’, 그것이 첩경일 것이다.

개념부터 정확히 알자.

우리는 주변에서 논술과 관련된 기본 용어나 개념조차 잘못 이해하고 혼동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매사에 기본기가 중요하다’는 명언은 비단 스포츠계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제대로 논술을 준비해 보겠다.’ ‘논술왕이 되고 말겠다.’는 분명한 목표를 세웠다면 논술의 기본부터 착실히 익히기 위한 경로로서 주요 용어와 개념부터 정확히 재인식해 보려는 각오가 필요할 것이다.

그 첫걸음으로서 논술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에 대한 개념부터 본격적으로 학습해 보도록 하자.

◎ 논제

우리는 회의, 세미나 등의 활동에서 흔히 ‘논제’라는 용어를 듣게 된다. 이 논제란 과연 무엇일까? 실제로 학생들은 물론, 선생님들조차 상당수가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주제라든지 화제, 의제 등의 의미로 혼동하고 있다. 논제란 바로 출제자가 요구하는 문장, 다시 말해 ‘문제’ 자체를 지칭하는 용어다, 더 쉽게 말하자면, ‘논제’란 다른 아닌 ‘논술 문제’를 두 자로 줄인 용어란 것을 기억해 두자.

◎ 논점

그동안 각 대학에서 출제되어 온 논술 문항들은 대체로 제시문이나 시각적 자료에 대한 독해나 해석부터 요구하고, 이를 특정 사회현상과 연관 지어 평가, 응용하게 한 후 대안 모색의 논의 단계로까지 발전시키는 형태를 취해 왔다. 이처럼 논의 범주나 관점, 단계별로 논제가 요구하고 있는 세부적인 논의 점들을 바로 ‘논점’이라고 한다. 따라서 논제 속에 당연히 두 개 이상의 ‘논점’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늘 염두에 두고, 논제를 접했을 때 먼저 ‘논점 1, 논점 2...’식으로 논점이 모두 몇 개인가부터 크게 분류해 본 후에 비로소 세부적인 논제 파악에 들어가는 습관을 가지도록 하자. 그래야 어느 한 논점을 빠트리거나 논점 간 논의가 불균형해지는 등의 심각한 오류를 피할 수 있다.

◎ 주제

어떠한 글에 일관된 관점과 의식이 총체적을 내재되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그 글의 ‘주제’다. 그런데 논술에서도 이처럼 일관된 관점만 확보한다면 주제성을 인정받게 될까?

강조한 바 있다시피 논술은 엄연히 ‘주어진 문제에 대한 답을 서술하는 양식의 시험’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논제’가 요구하는 세부적 논의점, 다시 말해 ‘논점에 부합하는 논의 대상은 물론, 논의 관점과 범주 그리고 단계에까지 정확히 부합하는 일관성을 확보하였을 때, 비로소 논술로서의 주제성을 인정받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자.

◎ 논지

‘논지’란 용어 자체가 ‘말하고자 하는 뜻’으로 풀이되기에, 많은 이들이 이를 논술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 정도의 추상적 범주의 개념으로 혼동하고 있다. 하지만 논술에서 사용되는 ‘논지’란 좀 더 구체적 범주의 용어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바로 논술을 이루는 문장 가운데 글쓴이의 ‘주장’이나 ‘해석’ ‘견해’ 등에 해당되는 문장, 다시 말해 글쓴이의 주관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문장 하나하나가 모두 ‘논지’에 해당된다.

◎ 논거

단편적 주장만 나열해서는 타인을 설득하기 힘들다. 하물며 논리가 생명인 논술에 있어서 ‘논지’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렇다면 필요한 것은? 바로 주장에 설득력을 확보해 주는 뒷받침 서술이다. 이처럼 어떠한 논지를 뒷받침하는 ‘근거’에 해당하는 서술 부분을 바로 ‘논거’라 한다. 특히 ‘논거’는 구체적 사례 제시를 지칭하는 정도의 단편적 범주의 용어로 혼동되는 경우가 많은데, ‘논거’란 논증을 형성하는 서술 전체를 지칭하는 ‘포괄적’ 범주의 용어임을 꼭 기억해 두자.

그런데 어떠한 글에 주장만 있고 그 근거가 빈약하다면 설득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반면 구체적인 설명은 장황한데 정작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선명하지 않다면 주제를 상실한 글이 될 것이다. 결국 논술에 있어서 ‘논지와 논거’는 ‘바늘’과 ‘실’처럼 뗄 수 없는 유기적 결합관계라는 점을 선명히 인식해 두도록 하자.

◎ 논리

‘주제’가 논술의 ‘목적’이라면, ‘논리’는 논술의 ‘이유’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논리’라는 추상적 영역은 도대체 어떠한 기준으로 평가받

는 것일까? ‘논리’는 다름 아닌 <‘논지’와 ‘논거’의 결합에서 확보되는 조리, 타당성> (이에는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한 문장으로 선명히 표현해 낼 수 있는 문장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및 <단락 구성의 체계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평가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두자.

7. ‘교과+독서+시사’의 배경지식이 힘이다.

통합논술은 ‘유령’이 아니다. 시험의 취지와 배경부터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통합형 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규 교과목에 충실하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영역을 오가며 별개의 교과목으로 나누어진 지식을 통합적으로 재가공해낼 줄 아는, 유연하면서도 총체적인 사고 능력을 중시한다. 서 말이나 되는 구슬이라도 꿰져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얘기다. 통합교과형 논술의 특징과 시사점, 준비 방법 등을 정리해야 한다.

정확하고 깊이 있는 배경지식은 논술을 쓰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배경지식을 쌓는 가장 좋은 방법은 원전을 꼼꼼하게 읽어 완전히 자기 것으로 소화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주어진 시간이 부족하다.

근래의 논술고사는 통합형 출제 경향이 일반화되면서 배경지식이 중시되고 있다. 통합형 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과서, 교과서 외의 책, 시사 자료 등을 토대로 배경지식을 종합·정리해 논리적 설득력을 강화하는 학습 전략이 필요하다. 대입 논술고사 기출문제를 분석해 본 결과 대부분의 교과 영역이 배경지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데 그중 인문 계열에서는 사회탐구 영역, 자연 계열에서는 과학 탐구 영역의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 이해가 중요하다.

〈교과서와 관련된 기출문제 사례〉

출전	관련 개념	교과서 관련 형태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외	쾌락, 욕망	국어(하)~평론‘소설은 왜 읽는가?’김현
손봉호 문화와 예술	문화상대주의	사회~문화 변동과 민족 문화의 발전 사회문화·문화를 이해하는 관점
교육개발원, 공동사회상 I 일반사회 외	세계화. 세계무역기구(WTO)체제	시민윤리·국가발전과 지구공동체 윤리
교육인적자원부 ‘시민 윤리’외	평등의 원리, 차등의 원리 시민 사회	도덕·도덕 공동체의 균형과 공동체의 추구 시민윤리 시민 사회의 특징과 윤리적 과제
	인간과 환경의 관계	도덕·현대 사회의 도덕 문제와 환경 문제 환경 과학·환경 사상과 윤리

논술고사의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능력은 제시문의 정확한 독해와 그것을 해석하는 능력이다. 교과 학습과 더불어 ‘꾸준한 독서’를 병행한다면 논술을 쓰는 데 가장 기본적인 능력인 독해 분석력은 저절로 길러진다. 그런데 잘 이해되지 않는 책을 수십 권 쌓아 놓고 무작정 읽는 것은 논술 준비를 위해서도, 지식이나 간접 경험 습득을 위해서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고전의 경우 특히 속독해 읽는 양을 늘리는 것보다는 한 장 한 장 차근차근 들어가며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제 풍요로운 ‘열 권 같은 한 권’들

한 권 안에 다양한 주제들을 담고 있어 풍요로운 배경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책(세계의 교양을 읽는다) 최병권·이정옥 엮음.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시행된 프랑스 바칼로레아 논제와 모범답안을 수록했다. 인간·인문학·예술·과학·정치·윤리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질문과 다양한 답안이 요약돼 있다.

(한국의 교양을 읽는다) 김용석·이재민·표정훈 엮음. 총 6개 분야로 나뉘어 43개의 질문을 만들고,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로 구성돼 있다. 보편적 주제이되 한국의 현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들로 선정됐다.

(지식의 원전) 존 캐리. 르네상스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지식 역사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원전을 한 데 모은 책. 특히 과학적 지식의 형성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어 자연계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이다.

(세계 지식인 지도) 정재왕 기획, 노엄 촘스키, 에드워드 사이드, 프랜시스 후쿠야마, 앤서니 기든스, 에드워드 월슨과 같은 세계적인 석학들과의 대담을 모은 글이다. 해당 인물의 대표 저서가 소개되어 있어 관심 있는 저자의 책을 찾아 읽어보아도 좋다.

(현대 사회학) 앤서니 기든스. 사회적 상호작용, 문화, 젠더와 성, 고령화 범죄와 일탈, 계층 불평등, 빈곤, 복지, 세계화, 노동, 정치, 대중매체, 교육, 종교, 인구와 생태 등 논술 주제가 총망라돼 있어 논술을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8. 논술문의 평가

논술은 종합적인 평가 방법이다. 객관식 시험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응용력이나 비판력, 창의력과 같은 정신 능력을 주로 평가하고자 한다. 대학에서 굳이 논술 시험의 결과를 입학 전형의 자료로 삼는 이유도 학생부에 표현되지 않는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논술을 평가할 때는 문제를 잘 이해했는지, 합리적으로 문제의 해결 방안을 생각했는지, 또 논리적으로 표현하였는지 등을 평가 기준에 따라 보게 된다. 논술의 평가 기준은 대학마다 다르고, 문제의 유형에 따라서도 다르다. 그 기준을 자세

히 알면 어렵게만 여겨지던 논술이 쉬워질 수 있다. 논술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평가 기준을 알고 그에 따라 평소에 자신의 논술을 점검해 보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논술을 평가할 때는 대체로 이해 분석력, 논증력, 창의력, 표현력 등을 기준으로 삼는다.

이러한 평가 기준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각각의 평가 기준이 가지고 있는 세부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논술을 보는 안목을 키워 보자.

먼저 이해 분석력이다. 논술 문제를 잘 파악하였는지를 점검한다. 아무리 잘 쓴 글이라도 출제자가 요구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 평소에 독서를 많이 해 문제의 논점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논술에 자주 출제되는 논점들을 주제별로 정리를 해보면 좋다. 논술에 사용된 배경지식이 정확한지도 잊지 말고 검토해야 한다.

객관식 시험에만 익숙하다 보니 글을 쓸 때 핵심이 되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쓰는 경우가 많다. 틀린 지식은 당연히 감점의 요인이 된다. 혼자서는 점검이 잘 안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논술을 자주 보여주고 검토해야 한다.

이번에는 논증력에 대해 생각해 보자. 논증력이라 하면 흔히 논리적이란 말을 떠올리고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실제 논술에서는 연역법이나 귀납법같이 논리적으로 타당한 논증 형식을 기대하지 않는다.

논증력을 점검할 때는 주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적절한 논거나 사례를 제시하였는지를 본다. 또 자신이 주장에 대한 반론을 고려하면서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신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하거나 주관적 믿음을 사실인 것처럼 내세우면 평가의 결과는 좋지 않을 것이다.

다음으로 창의력이라는 평가 기준을 생각해 보자. 사고력을 강조하는 논술에서는 창의력이 중요하다. 어떻게 써야 ‘창의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게 될까? 일반적으로 창의력은 ‘새로움’과 ‘적절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쓰레기’를 ‘쓸모없는 폐기물’로만 보는 틀에 박힌 생각에서 벗어나 재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으로 보는 시각은 새로운 생각이다. 이 생각이 창의적인 생각이 되려면 ‘적절성’ 또한 갖추어야 한다.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환경오염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다면 이 의견은 설득력을 잃는다. 적절하면서도 참신한 문제해결 방법인지 점검해 보자.

표현력은 논술의 흐름에 알맞은 구성을 하고 있는지, 문장과 어휘 사용이 적절한지를 주로 점검한다. 의미 없이 문단 구분을 하거나 접속사를 적절하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조심한다.

세부적인 논술의 평가 기준을 알았다면 평가표를 만들어 실제 자기 논술문을 점검

해 보자. 처음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어렵지만 자기 평가를 통하여 수정할 때 논술 능력은 향상된다. 무엇보다 독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논술을 객관적으로 보는 안목이 중요하다. 이런 안목이 있어야 평소에 책을 읽을 때도 논제와 관련해 깊이 생각하게 된다.

가. 논술 답안 작성 요령

채점 방식에 대해 언급한 주요 대학들의 발표에 따르면, 이들 대학들이 답안에 대한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평가의 기준과 수위를 조정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대학들 나름대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인데, 실제로 논술 답안을 작성해야 하는 학생들에게도 의미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기본적인 사항은 지키고 일반적으로 흔히 범하는 실수를 줄일수록 상대적으로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시간에는 ‘논술 답안 작성의 기본’이라는 측면에서, 통합 논술 답안 작성 시 꼭 알아두어야 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논술고사를 치르기 위해 고사장에 앉아 있다고 상상해 보자. 정해진 시간이 되면 감독관이 들어와 몇 가지 주의사항을 전달한 후, 논술 문제지와 답안지를 나누어준다. 문제지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시문과 논제, 여러분은 주어진 시간 동안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맞게 자신의 생각을 최대한 분명하게 글로 옮겨야 한다.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상상력은 통제되어야 하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수많은 생각들은 정제되어야 한다. 논술은 자유로운 상상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논제에 맞는 답을 써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문계열~ 첫 문장에서 당락이 결정된다.

“화룡점정(畫龍點睛)의 마음으로 첫 문장을 쓰라!” 화룡점정의 뜻을 아는 학생들이라면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일 수도 있다. 용을 다 그리고 나서 눈을 그려 넣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화가에게 묻자, 눈을 그려 넣으면 용이 날아가 버리기 때문이라고 답했다는 고사에서 유래된 이 말은,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마치어 일을 끝내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화룡점정을 하듯 첫 문장을 쓴다는 말이 이상하게 들리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그러나 굳이 이렇게 말하는 까닭은 글의 첫 문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기 때문이다.

실제로 학생들의 글을 채점하다 보면 첫 문장만 보고도 글 전체의 내용이 한눈에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최근 통합논술의 출제 경향에서와 같이 논제에서 요구하는 바를 최대한 분명하게 한, 두 단락의 분량으로 표현해야 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첫 문장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던, 글 전체의 흐름에 막대한 영향을 주기 마련

이다. 특히 불과 300~400자 정도의 짧은 분량 안에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춘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짧은 분량 제한이 있는 논제에서 요구하는 것도 역시 글의 완성된 형식이 아니다. 첫 문장에서부터 생각의 요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필요에 따라 자세하게 설명하는 글쓰기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통합 논술에서는 보다 명료하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연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통합논술은 명쾌한 사고와 경제적인 글쓰기를 지향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연계열_ 대학마다 특성, 지원 대학의 출제경향에 맞춘 답안 작성 연습 필요

자연계열 논술의 경우, 대학들마다 문항의 유형과 요구하는 답안의 형태가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대학들이 논술고사를 통해 자연계열 학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대학 수학 능력을 평가하겠다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평가의 방법에 있어서는 각기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자신이 지원하려는 대학의 출제 경향과 평가 항목의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논술을 준비한다는 것이 불필요한 노력이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연계열 논술고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지원하려는 대학의 출제 경향과 구체적인 평가 항목에 대해 숙지하는 것이다. 그런 후에 다음의 사항들을 염두에 두고 반복적으로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1. 자연계열 학생들의 대부분은 글을 쓴다는 것에 일종의 두려움을 느낀다. 문과가 아닌 이과를 지원하게 된 동기가 수학과 과학을 잘해서이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단순히 언어나 글쓰기를 잘못해서 이과를 지원한 경우라면 글쓰기는 더욱 부담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다. 물론 자연계열 학생에게도 글쓰기는 중요하다. 하지만 글쓰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학적 문제해결 능력이다. 대학의 평가에 있어서도 글자 수나 맞춤법은 이과 글쓰기에 있어서 큰 배점을 차지하지 못한다.

이공계 대학생에게 가장 크게 요구되는 수학 능력은 새로운 이론에 대한 빠른 이해와 응용,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 등이기 때문에 글의 형식보다는 논리적인 사고 능력에 채점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즉 형식은 자유롭고, 글을 반드시 서론~본론~결론의 형태로 써야 할 것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필요에 따라서 도표와 그림을 그려서 설명할 수도 있어야 한다. 이공계의 학생들은 하나의 정해진 형태가 아닌 다양한 글쓰기가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2. 대학에서는 창의적인 사고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여러 가치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스스로 조건을 부여하여 판단하고 선택하게 하는 문제들을 출제하고 있다. 이런 문제에서는 적절한 가정을 세우고 조건을 부여해서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적인 사고력이 요구된다. 당연히 이러한 설명 과정이 구체화된 글 속에서 이해될 수 있도록 생각이 아닌 글을 통해 연습해야 한다.

3. 논술에서 논제 분석을 잘 하는 것은 기본이다. 하지만 어떤 이든 기본이 가장 힘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에 의하여 잘 알고 있다. 논제 분석을 잘하라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한다. 주어진 제시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제시문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주어진 질문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답안을 만드는 것이 두 번째이다. 강의하면서 학생들의 답안을 보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은 아니지만 출제자가 원하는 정확한 답이 아니라도 논리적인 모델을 구성하여 이로 당위성을 얻어야 한다.
4. 언어논술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는 언어적인 표현과 배경지식에서 나온다. 하지만 수리 논술에서는 수식과 수리적인 표현(그래프, 도표, 그림……)등을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수리적인 뒷받침이 없는 글은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없다. 그러므로 주어진 논제를 파악한 후에는 자신의 생각을 어떤 수리적인 모델로 표현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당연히 수리적인 표현은 일관된 흐름으로 전개되어야 논리의 전개라는 측면에서 당위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5. 논술을 평가하는 출제자는 모범답안을 정해 놓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자신만의 독특한 사고와 수리적인 접근 방법으로 접근을 하여 더 좋은 글을 작성하고 합격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일반적인 접근 방법을 활용하여 글을 쓰고 합격한다. 언어논술에서는 획일화된 답안이나 생각은 감점 요인이라 알려져 있지만 수리 논술에서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
6. 그래프나 표로 정리하여 수리적인 모델을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물론 좋은 표현 방법이고 이로 인하여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감점 요인이 되므로 이 점을 항상 고려하면서 표현을 해야 한다. 특히 그래프로 표현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축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정확한 함수적 표현이 필요하다.

나. 논술 답안 작성 시 자주 범하는 오류들

‘통합교과형 논술(이하 통합논술)’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했을 때, 관심의 초점은 단연 ‘통합교과’라는 어휘의 의미에 대한 것이었다. 교과 지식의 습득을 중요시하는 ‘교과 중심 교육과정’에 기반을 둔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에서 ‘통합교과’란 다분히 생소한 개념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주요 대학들의 대입 논술 모의고사를 통해서 대학들이 의도하는 ‘통합논술’의 성격이 상당 부분 드러났다. 이제 남은 것은 평가의 대상이 되는 답안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성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논술은 시험이다. 모든 시험이 그렇듯이 수험생의 답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결국 점수가 매겨지기 마련이다. 사실 한 개인의 가치관과 사고력을 한편의 글로 평

가한다는 것은 무척 위험스러운 측면이 있다. 이 때문에 논술에서 끊임없이 평가의 공정성이 문제가 되는 이유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논술의 평가는 오히려 공정성이 분명한 편이다. 오지선다의 객관식과 주관식 단답형에 비해 이해력, 비판적·창의적 사고력, 표현력 등의 논술의 평가 항목들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 수험생과 출제자 사이에는 수험생이 작성한 답안이 놓여있다는 것이다. 논술에서 평가의 유일한 대상은 수험생이 아니라, 수험생이 작성한 답안이다. 평가의 주체인 대학교수에게 수험생이 보여줄 수 있는 것도 답안이고, 평가 항목들이 적용되는 것도 수험생의 답안뿐이다. 따라서 논술에서 답안작성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답안을 작성할 때, 범하게 되는 사소한 실수는 답안 전체의 완성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래의 예시는 문항 유형에 관계없이 수험생들이 일반적으로 자주 범하는 표현상의 오류와 논리 전개상의 오류들을 가려 뽑은 것이다.

수험생들이 자주 범하는 표현상의 오류들

1. 감정에 호소하는 듯한 표현

“위 일화에서 거위가 지혜롭다는 뜻은 무엇일까?”
“이 어찌 부당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의문형·감탄형 문장들은 논술 답안에서 아주 흔하게 발견된다. 비판적 접근과 논리적 증명을 바탕으로 하는 논술에서 이렇게 감정에 호소하거나 단정하는 듯한 문장을 자주 사용하게 되면, 자칫 감정에 치우친 시각으로 사태를 바라보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또한 스스로 묻고 답하는 자문자답식 의문 제기는 가르치려는 태도로 보일 수 있기에 피해야 한다. 실제로는 객관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으면서도 적절하지 못한 표현 때문에 감정적이며 고압적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논술문에서는 가급적 평서문을 쓰는 것이 좋다.

2. 주어와 술어 호응이 안 되는 문장

“이러한 원인은 인간의 개인적인 욕심이 가장 크다.”
“인간이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은 과학발전이 모든 자연의 병폐 현상을 막을 수 있다는 인식이 출발점이다.”

우리말에는 주어 없이도 충분히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러한 언어 습관에 익숙해진 수험생들 중에 서로 어울리지 않는 주어와 서술어로 문장을 만드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다. 특히 너무 많은 내용을 한 문장에 담으려고 하는 만연체 문장의 경우에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한다. 주술 호응은 기초적인 글쓰기 능력에 속하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야 한다. 글이 과도하게 끊어지는 느낌을 주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간결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3. 적절하지 못한 개념 사용

“이는, 어떠한 사물의 본질을 지키지 않고 유혹에 빠져들면 그 본질은 지켜지지 않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본질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즉, 권력의 강제성은 타인과 연계되어 타인에게 해악을 끼칠 경우에만 가능하고, 개인만 연계된 경우에는 개인의 독립성이 절대적이라고 말한다.”

이 경우는 범위가 불분명한 개념을 사용하는 것과 비교적 명확한 의미의 개념이지만, 논지에 적절하지 않은 개념을 사용하는 것, 모두 해당된다. 사실, 알고 있는 지식을 조금 더 그럴듯하게 포장하려는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욕구가 지나쳐 자신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한 개념을 독자의 이해에 맡기듯 사용하는 것은 곤란하다. 출제자들이 기대하는 것은 정교하고 완성도 높은 논문이 아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이제 막 고등학교 과정을 마친 청소년들의, 기성세대와는 다른 꾸밈없는 비판의식과 창의적인 발상이 그대로 담긴 답안이라는 것을 기억하자. 무엇보다 교과과정에 등장하는 개념들과 어휘들의 의미와 용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어떤 경우에서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구사 능력을 기르도록 노력해야 한다.

4. 확신이 결여된 인상을 주는 표현

“잘못된 표현을 선택했다고 본다.”

“자연의 이치를 거스른 것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이라 본다.’ ‘~인지도 모른다.’, ‘~인 것 같다.’ 등은 언뜻 보면 겸손한 표현인 듯 보이지만, 사실 글쓴이가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인상을 준다. 주장의 설득력이 약해지는 것이다. 주관적 판단과 주장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논증의 치밀함은 그러한 판단과 주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증명하는가에 달린 문제이며, 어차피 주관적인 견해에 대한 논리적 증명의 책임은 순전히 수험생에게 있는 것이다. 독자는 확신 없는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따라서 주관적 견해는 확신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

5. 그 밖의 표현상 오류들

학생들이 작성한 답안을 살펴보면 이 밖에도 몇 가지 언급할 만한 잘못들이 눈에 띈다. 이를테면, 제시문의 요약을 요구하는 논제에서 불필요한 언급들로 요지를 파악하지 못한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경우, 일반적이지 않은 개인적 경험을 사례로 들어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 틀린 인명이나 지명을 인용하는 경우 등이다. 모두 평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표현상의 오류들이다. 평소 자신의 생각을 짧은 글로 표현해 보는 습관과 자신의 글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보다 설득력 있는 글을 쓰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다.

수험생들이 자주 범하는 논리 전개상의 오류들

1. 논의 진행 없이 주장만을 나열하는 경우

“기회주의적 태도는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왜냐하면 신념을 지키는 삶이야말로 도덕적으로 칭송을 받을만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첫 문장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 제시된 뒤의 문장도 역시 또 다른 주장에 불과하다. 논증은 주장과 근거의 결합인데, 여기서는 단순히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주장과 주장이 연결되어 있을 뿐이다.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논리적 오류는 수험생들이 가장 흔하게 범하는 오류이면서 동시에 가장 고치기 힘든 것들 중 하나이다.

수험생들이 이러한 기본적인 오류를 자주 범하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체계적인 논리 교육을 거의 받아보지 못한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보다는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지 않는 글쓰기 습관 때문인 경우가 더 많다. 조금 더 꼼꼼하게 생각해 보는 습관만으로도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오류들이기 때문이다.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은 주장은, 논술에서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도 설득력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2. 일관성 없는 논지 전개

“수력발전, 화력발전과 비교할 때, 원자력 발전은 환경오염이 적고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 원자력 발전에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원자력 발전은 인류에게 치명적인 해가 된다.”

이런 경우는 단순히 표현상의 실수로 볼 수도 있으나, 일관적인 논지 전개가 결여되었다는 측면에서 논리적인 오류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내용과는 다른 견해를 뒤에서 피력하는 것인데, 심한 경우 글의 서두와 말미에서 서로 반대의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다. 답안 작성에 앞서 논제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분명한 입장 선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오류이다. 반대로 오히려 쓸 것이 너무 많을 때, 이런 오류가 발생하기도 한다. 실제로 글쓰기에 자신이 있다는 학생들 중에도 글 속에 너무 많은 것을 담으려고 욕심을 내다가 논지를 흐트리고 처음 의도와는 다른 결론을 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개요 짜기’라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주장에 가장 적합한 근거를 가려내는 연습과 단락과 단락의 논리적 연결성을 높이는 연습이 필요하다.

3. 성급한 일반화

“거위가 인간이 주는 음식을 받아먹고 똥똥해져서 날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자연이 인간에 의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인간이 개입하지 않으면 자연은 순리대로 유지된다는 의미이다.”

제한된 정보, 부적합한 증거, 대표형이 결여된 사례부터 일반적인 결론을 유추해낼 때 범하게 되는 오류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이다. ‘비형식적 오류’들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오류이며, 일반적으로 가장 범하기 쉬운 오류들 중 하나이기도 하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는 ‘심리적 오류’들과 달리 주어진 정보의 잘못된 해석과 적용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통합논술에서는 통계자료와 같은 사례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해서 일반적인 결론을 유추해낼 것을 요구하는 자료 해석형 문항들이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자료 속의 각 요소들의 관계와 대표성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는 습관이 필요하다.

4. 지나치게 보편적인 결론과 현실성 없는 대안 제시

“미래의 병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의 상호협조가 필요하다.”
 “개발에 의한 자연의 훼손을 막는 방법은 더 이상의 개발을 멈추는 것을 들 수 있다.”

첫 번째 사례는 지나치게 보편적인 결론을 내린 경우이다. 흔히 일상생활에서 ‘너무 뻥한 이야기’라 말하는 경우인데, 무언가 그럴듯한 결론을 내린 듯 보이지만, 실제로 수험생의 견해는 전혀 드러나 있지 않다. 설령 이러한 보편적인 결론에 전적으로 동조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보편적인 결론에 대한 수험생의 이해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는 등의 최소한의 언급이 필요하다.

두 번째 사례는 현실성이 없는 막연한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인데, 요소들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종의 ‘흑백논리’라고도 볼 수 있다.

때로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극단적인 판단이 실현 가능성 없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실현 가능성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사실 사안과 관계된 다각적인 접근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따라서 평소 시사적인 이슈의 발생과 배경과 관련 요소들 간의 관계를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안목을 기를 필요가 있다.

5. 그 밖의 논리 전개상의 오류들

위에서 언급한 것들 이외에 수험생들의 답안에서 자주 눈에 띄는 논리 전개상의 오류로는, 종합적 혹은 변증적 대안 제시가 아니라 단순 절충식의 결론을 내리는 경우, 전제와 결론이 전혀 관계가 없는 경우, 애초에 받아들일 수 없는 전제로부터 논의를 진행해 억지스러운 결론을 이끌어 내는 경우 등이 있다.

프랑스의 언어학자 방브니스트(Emile Benveniste 1902~1976)는 ‘언어의 의미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관계로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맥락 속에서 언어의 실제적인 의미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말은 동일한 어휘와 개념일지라도 사용되는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일상생활 속에서 특정 어휘와 개념들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곧 세상을 배우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또한 수험생들이 일정한 틀과 규칙으로 논술을 이해하기보다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방식으로 논술을 이해한다면, 더욱 설득력 있는 답안을 작성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6. 최근 논술고사 출제 방향과 대비 방법

수능시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가 다시 학생부 실질반영비율 논의에 밀리면서 논술고사 열풍이 언제였느냐 싶게 수그러졌다. 불과 수년 전만 해도 그렇게 떠들어대던 논술에 대한 열기가 온데간데 없어졌다. 그러나 논술고사로 충원되는 학생 비율이 감소는 것에 비해, 실제 감소 인원은 그리 크지 않다.

지원할 대학의 출제 경향과 모의고사 문제 등을 분석해서 스스로 글을 써 가며 대비하는 데, 수험생에게 주어진 시간은 결코 넉넉하지 않다. 그렇다고 불안감에 휩싸일 필요는 없다. 어차피 모든 수험생들이 비슷한 조건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얼마나 착실하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판가름 나는 승부라고 보면 될 것이다.

통합교과형 논술은 다양한 교과를 소재로 하여, 개별 교과에서 습득한 지식과 정보를 통합해 문제를 해결하는 비판적, 창의적 사고 능력을 측정하는 유형의 시험이다. 암기식 학습에 매달려온 수험생들에게는 다소 버거운 시험이다.

가. 통합교과형 논술의 특징

① 높은 자료 분석 능력 요구

통합교과형 논술에서 주어지는 자료는 교과 안팎을 아우르는 다양한 내용들이다. 이를 다각적,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비판적 사고 능력과 자료를 적절히 응용하여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적 사고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그림이나 사진, 통계자료 등 시각 자료가 자주 등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② 2~6문항 묶음 출제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어 한 편의 완결된 답안을 쓰는 통합논술은 없다. 대부분 대학이 몇 개의 문항을 세트로 묶은 문제를 출제한다. 결론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만큼 결론 도출까지의 과정을 여러 문항으로 나누어 물음으로써 각각의 과정에 대해 정확히 평가하기 위한 의도이다.

③ 통합적 사고 요구

통합교과형 논술에서는 특정 교과가 아닌 다양한 교과를 아우르는 통합적 사고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가 나온다. 다양한 분야의 자료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능력, 다양한 자료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능력과 함께 통합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능력도 중요하다. 인문계열에서는 국어영역과 사회탐구 영역을, 자연계열에서는 수리영역과 과학탐구영역 또는 과학탐구 과목 간 통합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다.

④ 현실 적용 능력

추상적인 주제보다는 구체적인 주제가 선호된다. 일상생활이나 시사 문제를 교과 과정과 연계함으로써 현실적인 문제 해결능력과 대안 제시 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다. 교과서 지문과 시사적인 주제가 결합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된다. 자연계열에서는 교과의 기본 원리와 개념을 주어진 문제 해결에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주로 평가한다.

나. 평가 항목별 대비 방법

통합교과형 논술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항목을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다. ‘비판적 분석 능력’과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논리적 서술 능력’이다. 시험을 치를 때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만큼 통합교과형 논술 대비를 위해서는 평가 항목에 대한 분석에서부터 대비를 시작해야 한다.

① 비판적 분석 능력

자료에 대한 비판적 분석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교과 과정에 나오는 기본 개념과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교과서의 내용을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 그 속에 담긴 원리와 법칙, 또는 원인과 결과 등을 깊이 있게 공부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또한 대부분의 자료가 글로 제시되는 만큼 다양한 자료를 정확하게 독해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②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자료의 내용을 응용하여 통합적,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단기간에는 그러한 능력을 기르기 힘들지만 모든 수험생들에게 마찬가지로 상환이므로 지금 최선을 다하겠다는 자세가 중요하다. 우선 교과 내용을 공부할 때 교과서의 개념과 원리를 사회현상이나 주변 사물에 적용해 보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주변의 자연현상이나 사회 현상도 깊이 있게 관찰하고 그 원인이나 배경, 그로 인해 파생되는 결과 등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③ 논리적 서술 능력

논술고사는 어떠한 유형으로 출제되든 본질적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이나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시험이다. 통합교과형이라는 이름이 붙어도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시험이다.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일관된 논지를 펼칠 수 있도록 글쓰기 요령을 익혀 두고 글쓰기 연습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자연 계열의 경우에도 서술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다.

다. 실전 대비 방법

① 교과서로 준비하라

통합교과형 논술고사 대비의 출발점은 교과서다. 제시문에 교과서가 많이 등장할 뿐만 아니라 논제 자체가 고교 교육과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교과서에 등장하는 주요 개념과 원리들을 다시 한번 이해하는 정도로도 훌륭한 대비가 된다. 어려운 고전을 읽느라고 애를 쓰는 것은 공연한 일이다.

② 대학을 분석하라

이전의 논술고사 기출문제는 다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다행히 대학들마다 출제 방향과 모의고사 문제, 모범 답안 등을 홈페이지에 충실하게 실어 두고 있다. 이들 문제를 훑어보는 것도 빼놓아서는 안 되는 준비다. 대학들의 출제 경향이 점차 비슷해지고 있으므로 여러 대학의 문제들을 검토하는 것이 좋다.

③ 배경지식을 쌓아라

배경지식을 통합교과형 논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편이다. 그렇다고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책을 읽는 방법보다는 모의고사에 출제된 개념이나 원리, 인물이나 사건 등을 중심으로 지식을 넓혀가는 방법이 유리하다. 교과서 내용과 밀접하게 관련된 일상생활의 문제나 시사 쟁점 등도 반드시 정리해야 하는 내용이다.

④ 첨삭을 받고 다시 써라

통합교과형이 됐다고 해도 논술고사는 역시 글을 쓰는 시험이다. 글쓰기는 기본적인 방식을 배운 뒤 많이 쓸수록 솜씨가 느는 게 보통이다. 남은 기간 동안 모의고사나 실전적인 글쓰기를 통해 최대한 많이 써봐야 한다. 첨삭지도를 받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첨삭을 받은 후에는 자신의 글이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한 뒤 다시 써 보는 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여러 주제에 대해 한 번씩 쓰는 것보다 같은 주제로 여러 번 고쳐 쓰는 것이 단기간에 실력을 쌓는 방법으로는 유용하다.

「국어 논리 논술 교육」에 대한 토론문

장 영 속

(강릉원주대학교 교양기초교육본부 강사)

이 발표는 학생들이 논리적이고 창의적이며 비판적인 글쓰기를 익히는데 유용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논술을 기초 영역과 심화 영역으로 나누어 각 영역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기초 영역에서는 논술의 목표, 논술의 개념, 논술만의 특징, 개요 작성, 집필(서론, 본론, 결론 쓰기) 시 주의사항과 각 단계에서 꼭 써야 할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화 영역에서는 논술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다시 정리하였고, 대입 논술에서 배경지식을 쌓고자 할 때 도움이 되는 서적들을 소개하였고, 각 대학에서 발표한 논술 답안의 평가 방법을 분석한 후에 논술 답안작성 요령을 살펴보고, 논술 답안작성 시 자주 범하는 오류들도 유형 별로 설명하였습니다. 기초 영역에서는 글쓰기의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심화 영역에서는 대학 입학 논술에서 답안을 작성하는 방안을 꼼꼼히 설명하고 주의사항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논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글쓰기를 지도하다 보면 이론적인 지식이 모자라 글쓰기가 어렵다고 하는 경우보다 글쓰기의 실제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이 더 많은 듯합니다. 그래서 글쓰기의 이론적인 부분보다는 평소 글쓰기를 강의를 하면서 부딪치는 어려운 점들을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1. 서울대학교 입학 관리 본부가 제시한 ‘논술 평가 기준’을 보면 ‘창의력’이 가장 비중이 높은 항목입니다. 이 창의력을 높이기 위해서 논술 답안 평가장에서 “창의력은 ‘새로움’과 ‘적절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적절하면서도 참신한 문제해결 방법’이 되도록 답안을 작성하라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창의력’ 부분이 학생들이 글쓰기를 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은 글쓰기의 기초 부분부터 시작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글쓰기를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이나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창의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2. 이 발표문에서 ‘논술 방안 작성 시 자주 범하는 오류들’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첨삭을 받고 다시 써라’라고 하였습니다. 학생이 쓴 글을 스스로 첨삭해 보고 잘못된 점을 수정해 나간다면 가장 좋은 경우일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교수자나 다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글을 수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저도 역시 글쓰기 강의에서 학생들의 글을 첨삭 지도해 주고 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동료 첨삭 방법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학생 스스로 퇴고하는 방법과 전문가(교수자 포함) 첨삭, 동료 첨삭 등 여러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각 첨삭 방법들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첨삭지도의 효율을 높이면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있다면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발표자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方玉潤의 『詩經原始』
- '淫詩' 혐의가 제기된 시들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

이 남 중

(전주대학교 한문교육과 교수)

목 차

1. 서언
2. '詩無邪' - 시경해석의 정언명제
3. 기존 『詩序』 비판 및 새 '詩序'의 안출
4. 朱子 '淫詩說' 비판 - 「桑中」과 「溱洧」를 둘러싸고
5. '原始' - 詩의 原意 규명
6. '淫詩' 혐의 詩 釋例
7. 결어

I. 들어가는 말

方玉潤(1811~1883)은 雲南 寶甯 출신으로 咸豐(1851~1861) 중에 軍功(軍功)으로 銓選隴西州同을 지냈다. 『鴻濛室文鈔』, 『詩鈔』등 50종에 가까운 많은 저작이 있으며, 본고의 검토 대상인 『詩經原始』는 同治(1862~1874) 중에 쓰여졌다. “詩에는 四家가 있었으나 毛氏가 홀로 전해졌다. 唐代까지는 이론이 없었으나, 宋 이후에는 여러 설들이 다투게 되었다.” 『四庫全書總目』에 나오는 이 말은 중국의 시경학사에 대한 개론이라 할만하다.¹⁾ 이를 간단히 부연하자면 다음과 같다. 漢代로부터 唐代에 이르는 詩經學의 내용은 대체로 지금 通行하는 『十三經注疏』本 『毛詩正義』에 들어 있는 『詩序』·『毛傳』·『鄭箋』·『詩譜』·『孔疏』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각각 미세한

1) 『四庫全書總目』 “詩有四家, 毛氏獨傳, 唐以前無異論, 宋以後則眾說爭矣.”

부분에서 일치되지 않지만 漢/唐代 詩經學을 대표하는 한 몸으로 간주되고 있다. ‘宋 이후’는 宋代 및 그 이후에 전개된 시경학을 가리킨다. 歐陽修(1007~1072), 蘇轍(1039~1112), 鄭樵(1104~1162), 王質(1135~1189) 등이 이 시기의 주요 학자인데, 그들은 『毛傳』·『鄭箋』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자신의 견해로 결론을 내리거나 『詩序』를 공격하는 등 漢唐詩學의 기반을 허물었다. 朱子(朱熹, 1130~1200)는 宋學을 집대성하여 『詩集傳』 및 『詩序辨說』 등의 저술을 남겼는데, 그의 시경학의 요체는 『詩序』를 버리고 채용하지 않는 입장에 서서 詩文 자체에서 시 본래의 뜻을 구하는 한편 또 毛/鄭을 채택하고 간혹 三家를 수록하되, 한결같이 자신의 뜻을 위주로 버리고 취하기를 진행하였다.²⁾ 朱子는 이렇듯 漢唐詩學의 요체가 되는 「詩序」를 비판하여 詩文 자체에서 시 본래의 뜻을 구하는 방식으로 宋代詩學의 전범으로 우뚝 섰으며 元明 시기를 거치는 동안 독존의 지위를 누렸다. 이러한 사정은 麗末 이후 우리 땅에서의 시경 읽기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학문의 과정에서 궁극적 귀결이란 불가능한 일이다. 더구나 秦始皇 시기 焚書를 통하여 멸실된 이후 漢代에 들어와 복원과정을 거치며 제출된 다양한 텍스트 및 견해의 공존을 특징으로 하는 『시경』의 경우에 사정은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당시로서 매우 제한적이기는 했으나 三家詩에 대한 적극적인 접수 및 『詩序』에 대한 비판을 골간으로 하는 朱子의 詩經學은 후대에 다시 두 부류의 학자들로부터 협공을 받았다. 한쪽은 주자가 「詩序」를 비판하는 것 자체를 비판하여 「詩序」를 옹호하였고, 한쪽은 주자의 「詩序」에 대한 비판의 정도가 철저하지 못함에 대하여 비판적이었는데, 주자는 이들로부터 모두 비판을 받았다.

清代에 들어와 經學界는 대체로 宋學을 비판하는 토대 위에서 東漢 古文經學의 부흥과 西漢 今文經學의 부흥을 도모하는 학파로 재편되었다. 詩經에 있어서 陳啓源(?—1683?)의 『毛詩稽古編』과 陳奐(1786~1863)의 『詩毛氏傳疏』가 古文經學의 옹호에 매진한 저작이라면, 陳喬縱(1809~1869) 부자의 『三家詩遺說考』와 王先謙(1842~1917)의 『詩三家義集疏』는 今文經學 연구의 대표 저작이다. 이들은 文字·名物·音韻·訓話·校勘 등에 있어 약간의 새로운 견해를 제출하고 있고 또 輯佚, 즉 일실된 자료를 찾아 모으는 등 많은 성과를 냈다. 그러나 思想과 文化 방면에 가해진 淸朝의 엄격한 통제는 『詩經』의 思想內容과 藝術形式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기 어렵도록 하였으며, 微言大義 및 讖緯를 강조한 나머지 『詩經』에 대한 왜곡된 해석을 내놓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³⁾

이러한 학문풍토 속에서 이 시기 『시경』 연구자들의 연구는 계파적 시각에 갇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姚際恒(1647~1715?)과 崔述(1740~1816), 그리

2) 줄고 ‘魏源 『詩古微』 연구’ 참조.

3) 李先耕 點校 『詩經原始』(中華書局, 2006년 2월) 「點校說明」 2쪽.

고 方玉潤 등은 漢學 또는 宋學의 울타리를 벗어나 經文 자체에서 의미를 추구하고 또 詩를 가지고 詩를 논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崔述의 『讀風偶識』는 嘉慶年間(1796~1820)에 저술되었는데 漢學과 宋學의 울타리를 벗어나 시 원문을 우선시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다만 그의 연구는 『國風』에 한정되어 있고, 천하의 흥망과 국가의 치란 등 여러 문제들을 일반적인 수준에서 함께 다루고 있는 점이 아쉬움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까닭에 전통적인 詩經學의 울타리를 벗어나 독립적인 사고로 연구를 진행한 淸代의 학자로는 보통 姚際恒과 方玉潤을 꼽는다.⁴⁾

姚際恒의 『詩經通論』은 康熙年間(1662~1722)에 씌어졌는데, 이는 方玉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저작이다. 그의 『詩經通論』은 당시로서는 ‘여러 학파가 혼전하는 가운데 초연히 홀로 존재했던 하나의 학파(各派混戰中的超然的一派)’였다.⁵⁾ 요제항은 「詩序」에 대하여 “東漢의 衛宏(서기 25~57년 사이에 활동)이 처음 제출한 것으로 첫머리 한마디 말은 스승으로부터 전해들은 말로서 간략하고 혼후한 가운데 예스럽고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 비록 한두 가지 그럴듯하게 들어맞는 부분이 없지 않으나 固滯, 膠結, 寬泛, 填湊 등의 여러 폐단이 모두 모여 있다. 그 아랫부분은 衛宏이 직접 지어놓은 것으로 더욱 박잡하기 이를 데 없어 식견을 갖춘 사람을 기다릴 것도 없이 그것이 예전의 저작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고 하였다.⁶⁾ 그는 나아가 漢代 학자를 비판하여 “漢代 학자의 잘못은 고집불통에 있었다[漢人之失在于固].”라고 하였고, 또 宋代 학자를 비판하여 “宋代 학자의 잘못은 망령됨에 있었다[宋人之失在于妄].”라고 하였다. 또 朱子の 『詩集傳』에 대하여는 “겉으로는 『詩序』와 달리 하면서 암암리에 그것을 따르고 있으며, 또 올바른 것을 거스르고 잘못된 것을 따르고 있다. 근거도 없이 자신의 견해만을 쓰고 있으니 더욱 세상 사람들을 미혹시키기에 족하다.”라고 하였다.⁷⁾ 그는 나아가 孔子께서 ‘鄭나라 소리는 음란하다[鄭聲淫]’라고 한 한 마디 말을 오독하여 망령되이 『鄭風』의 詩들을 음란한 것으로 여긴 점이야말로 주자가 범한 가장 심각한 오류라고 지적하였다.⁸⁾

『시경』에 대한 姚際恒의 이러한 견해는 方玉潤에게 그대로 계승된다. 방옥윤이 비록 요제항의 『詩經通論』에 대하여 ‘분석과 결단이 정밀하지 못하였고, 立論이 온당하지 못하다’거나 ‘식견이 보잘것없었으며, 학력이 천박하다’, ‘의리는 적고 변론만 많다’라고 하는 등 혹평을 서슴지 않았으나 기본 시각만큼은 두 사람이 정확히 공유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방옥윤의 『詩經』에 대한 철학은 『詩經原始』의 卷首上의 「詩經

4) 李家樹 『傳經以外的詩經學』(香港大學出版社, 1994) 56쪽.

5) 何定生 「關於詩經通論及詩的起興」, 『中山大學言語歷史研究所周刊』, 9卷97期. 李家樹, 위의 책 56쪽 재인용.

6) 姚際恒 「詩經通論序自」 “東漢衛宏始出詩序, 首惟一語, 本之師傳, 大抵以簡略示古, 以渾淪見該, 雖不無一二宛合, 而固滯·膠結·寬泛·填湊, 諸弊叢集. 其下宏所自撰, 尤極踳駁, 皆不待識者而知其非古矣.”

7) 姚際恒 「詩經通論序自」 “時復陽違序而陰從之, 而且違其所是, 從其所非焉. 武斷自用, 尤足惑世.”

8) 姚際恒 「詩經通論序自」 “集傳紕繆不少, 其大者尤在誤讀夫子「鄭聲淫」一語, 妄以鄭詩爲淫, 且及于衛, 且及于他國.”

原始自序」, 「凡例」, 「詩無邪太極圖說」과 卷首下의 「詩旨」에 기술되어있다.

본고는 부제를 통해 밝혔듯이 ‘淫詩’ 혐의가 제기된 시들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될 것이다. ‘淫詩’에 대한 논의는 春秋 시기부터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으나 다수의 시편들에 대하여 淫詩로 규정한 것은 朱子에 의해서이다. ‘淫詩’로 지목된 시를 그대로 ‘淫詩’로 받아들일 것인가의 여부를 가리는 문제는 『詩序』에 대한 수용과 배격의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詩序』는 『시경』을 先王, 즉 고대 이상적인 통치자의 정치행위의 산물이라는 시각 하에 고안된 正變 및 美刺가 골간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한 검토와 결론을 내리는 과정은, 한대학자와 송대학자를 싸잡아 비판한 요제항의 언설에서 보듯 『詩序』에 대한 수용과 배격의 문제에 더하여, 이미 그 권위가 『詩序』의 지위보다 높아져 있던 朱子 詩經學에 대한 수용과 배격을 두고 단안을 내려야 하는 작업이다. 이 문제에 맞서서 감연히 자기의 견해를 밝힌 이가 姚際恆이었고 方玉潤이었다. 본고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方玉潤의 시경에 대한 기본 철학 및 『詩序』와 朱子の 『詩集傳』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Ⅱ. ‘思無邪’ - 『詩經』 해석의 정언명제

『詩經原始』의 卷首上에는 「詩無邪太極圖」(그림 1)와 함께 圖說이 있는데, 그림은 『太極元樞』에서 錄出하였다고 하였다.⁹⁾ 『詩經』 삼백 편을 한마디 말로 개괄한다면 생각에 사특함이 없다는 것이다.’라는 孔子의 언설에서 얻어진 ‘詩無邪’의 개념을 우주의 생성원리를 형상화한 太極圖와 접합시킴으로써 ‘詩無邪’를 不可易의 명제로 세워둔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이 그림과 그림을 설명한 圖說에 방옥운 시경에 대한 철학이 집약되어 있다. 검토할 부분이 많으나 「圖說」 가운데 본고의 주제와 관련된 부분만 떼어내 읽기로 한다. 이에 그림의 구성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1] 『詩經』에 또한 어찌 太極이 있겠는가만, 孔夫子께서 “『詩經』 삼백 편을 한마디 말로 개괄한다면 생각에 사특함이 없다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던가? 『시경』 삼백 편을 한 마디 말로 개괄한다면, 바로 이 한마디 말인데, 이는 실로 시를 짓는 이의 指南이라 하겠다. … [2] 생각에는 眞(바른 것)과 淫(음란한 것)이 있고, 哀(슬퍼함)와 樂(즐거워함)이 있는데, 모두 두 가지 기운에 의하여 감축된 것이다. 오직 이 사특함이 없는 마음을 간직하여 다스렸기 때문에 슬퍼하여도 상함에 이르지 않고 즐거워하여도 음란에 이르지 않는다. 이에 바른 것은 보존되고 음란한 것은 사라지게 되는데, 이것이 『시경』의 요지이다. … [3] 風에는 正과 變있으며, 雅 또한 正과 變이 있다. … 대저 이른바 變이라는 것이 꼭 모조리 쇠락한 세상의 소리에서 나와서 혹 음란하고 사특한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체재에 보통의 격조와 다름이 있어 음률이 그에 따라 변화하게 되는데, 바로 그것들을 變이라 이를 따름이다. … 10)

9) 方玉潤 『詩經原始』 「詩無邪太極圖」 “詩無邪太極圖，從太極元樞錄出”

[1]에서 원문의 '作詩者之真樞'에서 '真樞'를 편의상 '指南'이라 번역해두었다. 시를 짓는 사람은 '생각에 사특함이 없는[思無邪]' 것을 '指南'으로 삼아야 하고 읽는 사람은 그것을 '主宰'로 삼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니, 양자 모두에게 '思無邪'는 중요한 지도 이념이라는 말이다. [2]에서 방옥윤은 생각 가운데 '바른 것[貞]', '음란한 것[淫]', '슬퍼함[哀]'과 '즐거워함[樂]'이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불가피하게 이러한 정서가 작품 가운데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궁극적으로 '즐거워하여도 음란에 이르지 않고, 슬퍼하여도 상함에 이르지 않을 수 있다'고 하였다. 그 까닭으로 '思無邪'를 들고 있다. 공자의 「關雎」에 대하여 '樂而不淫, 哀而不傷'이라 평론한 中和를 중심에 두는 심미관이 '思無邪'를 기초로 『詩經』 전체에 적용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주자는 "단지 '思無邪' 한 구절이 좋을 따름이다. 『詩經』의 전체 시들이 모두 「思無邪」한 것은 아니다."¹¹⁾라고 하였다. 방옥윤의 견해가 朱子를 겨냥하여 정명으로 비판하는 입장에 서있음을 알 수 있다. [3]은 變風 및 變雅에 대한 견해가 밝혀져 있다. 變風과 變雅는 正風과 正雅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詩序』의 한 부분인 『大序』에서 비롯되어, 鄭玄의 『詩譜序』, 陸德明의 『釋文』을 거치며 일반화된 이론이다. 이에 의하면 文王으로 대표되는 周나라 극성기의 政教를 입은 지역의 시가를 正風, 正雅로 王政이 쇠퇴한 시기, 또는 정치의 중심에서 벗어난 지역의 시가를 變風, 變雅로 본다. 朱子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變風이라 일컬어지는 邶風 이하의 13개 國風의 시들 가운데 일부 작품들을 남녀 간의 음행을 기록한 '淫詩'로 보았다.¹²⁾ 방옥윤은 "變이 모두 쇠락한 세상의 소리에서 나와서 혹 음란하고 사특한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체재에 보통의 격조와 다름이 있어 음률이 그에 따라 변화하게 되는데, 그것들을 變이라 이를 따름이다."라고 하였다. 정확히 주자에 의하여 고착화되고 이후 그를 따르는 학자들에 의하여 심화된 이른바 '淫詩說'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다. 이렇게 방옥윤의 '詩無邪'론은 주자에 대한 비판을 기반으로 제출되었다. 이에 대하여는 4장 「朱子 '淫詩說' 비판」에서 다시 자세히 다루어질 것이다.

10) 方玉潤 『詩經原始』 「詩無邪太極圖」 “『詩』亦何太極之有? 然夫子不云乎: 「『詩』三百, 一言以蔽之, 曰: 『思無邪。』」 『三百』蔽以一言, 則此一言也, 實作詩者之真樞也. … 思有貞淫, 思有哀樂, 皆二氣之所感. 唯持有無邪之思以制之, 故哀而不至於傷, 樂而不至於淫. 於是貞者存而淫者去, 此『詩』之大要也. … 風有正變, 雅亦有正變. … 夫所謂變者, 非必盡出於衰世之音, 而或有淫邪之思也, 但其體裁有異常格, 音律因之變換, 卽謂之變耳. …”

11) 『朱子語類』 “只是「思無邪」一句好, 不是一部詩皆「思無邪」”

12) 『朱子語類』 “子衿只是淫奔之詩, 豈是學校中氣象! 褰裳詩中『子惠思我, 褰裳涉溱』, 至『狂童之狂也且』, 豈不是淫奔之辭!”

Ⅲ. 기존 「詩序」 비판 및 새 「詩序」의 안출

「毛詩序」를 일컬어 흔히 「詩序」라 칭한다. 毛詩와는 별도로 존재했던 三家詩에는 「詩序」가 전하지 않는다는 인식 때문이다. 그러나 학자들에 따라서는 三家詩에도 「詩序」가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 예를 열거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엄밀히 이야기한다면 「詩序」보다는 「毛詩序」라 칭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方玉潤을 따라 그대로 「詩序」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방옥윤이 「詩序」를 단호히 배격하였다. 다음은 『詩經原始』에 서두에 보이는 方玉潤의 「自序」 가운데 일부이다.

秦에서 감행한 焚書의 맹렬한 불길이 그친 뒤에, 위조된 『詩序』가 비로소 출현하여 지은이를 子夏에 가탁하더니, 또 孔子가 지은 것이라고도 하였다. 唐 이전에는 오히려 이에 대한 의의가 없었으나, 宋 이후에 비로소 의심을 두는 사람들이 있게 되었다. 歐陽氏(歐陽脩)와 鄭氏(鄭樵)가 앞에서 논박하였고, 朱晦翁(朱熹)이 뒤에서 그것에 대하여 분변하자, 그 학문은 마침내 쇠미해졌다.

방옥윤의 이러한 견해는 姚際恆의 견해와 일치한다. 방옥윤은 「詩旨」에서 姚際恆의 「詩經通論序」를 약간 간략하게 손질한 상태로 소개한 뒤에 그 나름의 견해를 병기하고 있다. 필요한 부분을 떼어내 읽기로 한다.

[1]東漢 衛宏이 처음으로 「詩序」를 내었다. [2]그것의 첫머리에 위치한 한 마디 말은 스승으로부터 전수된 바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대체로 간략한 서술로서 옛것임을 알 수 있고 혼후한 표현으로 내용이 두루 갖추어졌음을 드러낸다. 하지만 한두 군데 분명히 들어맞는 부분을 제외하면, 변통을 모르는 고루함과 오류와 연계된 정보, 그리고 적절한 범위를 벗어나 이것저것 주워 모은 등의 여러 폐단이 모여져 있다. [3]그 아랫부분은 衛宏 스스로가 지은 것인데, 더욱 박잡하기 이를 데 없는 수준으로, 식견이 있는 이를 기다리지 않아도 그것이 모두 옛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 [4]宋代에 들어와 晁說之(1059~1129), 程泰之(程大昌, 1123~1195), 鄭漁仲(鄭樵, 1104?~1162?) 등이 모두 일어나 그를 배격하였고, 朱仲晦(朱熹, 1130~1200) 역시 그들을 계승하여 『辨說』을 지어 「詩序」의 거짓됨을 힘써 꾸짖었다. 또 이로부터 스스로 『集傳』을 짓게 되니, 그의 설은 거침없이 행해질 수 있었다. [5]그러나 늘 겉으로는 「序」와 달리 한다 하면서도 암암리에 그것을 따랐다. 또 그 중에서 올바른 것은 거스르고 잘못된 것을 따르기도 하였다. 이렇게 주관적인 판단으로 자신의 견해를 고집하니 세상을 더욱 미혹시킬 수 있었다. 이로 인하여 이전에 「序」를 따르는 것을 탄식하던 사람들이 『集傳』이 나오자 모조리 등을 돌려 『集傳』을 따랐고, 뒤에 『集傳』을 비판하던 사람들이 또 모조리 등을 돌렸지만 그대로 「序」를 따랐다. 방향을 바꿔가며 서로를 따라 그침이 없으니, 經典을 궁구하는 선비들이 장차 어느 것을 따라야 할 것인가? [6] … 오늘날 옳고 그름에 대한 절충은 오직 「序」와 『集傳』에 있을 따름이라고 생각한다. … 오직 「序」의 경우는 몽매한 자들이 그것을 높여서 子夏의 저작이라고 하고, 『集傳』에 있어서는 지금 세상에서 중주로 여기며 법도로 받들고 있다. 내가 생각하기에, 漢人의 잘못은 고루함(固)에 있었고, 宋人의 잘못은 망령됨(妄)에 있었다. 고루함의 잘못은 그저 高叟와 닮을 뿐이지만, 망령됨의 잘못은 또 咸丘蒙이 「北山」시의 네 마디 말을 가지고 天子가 부친을 신하로 삼은 증거로 삼고 있음이다.¹³⁾

[1]에서는 「詩序」의 子夏 저작설을 부정하고 東漢의 衛宏이 지은 것이라 하여 그 권위를 끌어내렸다. [2]는 「詩序」의 '첫머리에 위치한 한 마디 말'에 대한 매우 제한적인 인정인데,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3]은 '첫머리에 위치한 한 마디 말'의 다음에 오는 내용은 衛宏이 저작했다는 지적이다. [4]는 「詩序」에 대한 비판 과정에서 형성된 宋代 詩經學과 그 계보 및 영향력에 대한 기술이다. [5]는 宋代 詩經學의 완성자인 朱子에 대한 비판이다. 비판의 내용은 주자가 길으로는 「序」를 배격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도 모르게 그것을 따랐으며, 「序」중에서 올바른 것은 거스르고 잘못된 것은 따랐다는 것이다. 이렇듯 주자의 잘못된 견해는 오히려 그의 학문적 권위에 힘입어 세상을 크게 오도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6]은 「序」에 대한 비판 역시 주자 비판의 일환임을 말해준다. 「序」를 맹신하는 漢唐 학자들은 몽매함에 그칠 뿐이지만, 朱子로 대표되는 宋代 학자들은 孟子가 설파했듯이 「北山」시의 네 마디 말을 가지고 天子가 부친을 신하로 삼은 증거라 하였던 咸丘蒙이 범한 오류를 답습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다고 질타하였다.

방옥윤의 입론은 姚際恆으로부터 계발된 부분이 많다. 아래 내용은 요제항의 『詩經通論』에 대하여 입장을 밝힌 것이다.

지금까지 『詩』를 해설하는 여러 학자들에 있어서, 「序」를 공격하는 이들은 반드시 朱子를 중주로 삼고, 주자를 공격하는 이들은 반드시 「序」를 따랐는데, 그들 양자에 잘못된 바가 있음을 모르지 않았으나, 대체로 홀로 자신의 견해를 펴낼 수 없었기에 곧장 타인의 견해를 빌려 귀의처로 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姚際恆이 일어나 양자 모두를 배척하니, 담력과 식견이 모두 훌륭했다고 이를 만하다. 다만 아쉽게도 그의 소견이 아직 참되지 않아서 왕왕 단서를 들춰내지만 끝까지 궁구하지 못하며, 생각이 다하여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에는 또 짐짓 고담준론을 펼쳐서 세상 사람들을 속이고 자신의 단점을 꾸었다. 이는 그가 詩人의 본래 뜻에 있어서는 진실로 밝혀낸 바가 있지 않았던 것이니, 역시 가슴속의 지혜는 넉넉하였으나 義理가 부족한 때문이었다. 그러나 당시로서는 정말로 대단한 호걸지사였다. 글 가운데 언급한 것처럼 『集傳』을 따르느라 경전을 폐기하는 데에 이른다면 진정으로 용렬하고 망령된 무리이니, 어찌 함께 같은 수준으로 얘기할 수 있겠는가?¹⁴⁾

- 13) 方玉潤 『詩經原始/詩旨』 “姚氏際恆 『詩經通論/序』略曰，自東漢衛宏，始出『詩序』，首唯一語，本之師傳。大抵以簡略示古，以渾淪見該。雖不無一二婉合，而固滯膠結，寬泛填湊，諸弊叢集。其下宏所自撰，尤極踳駁，皆不待識者而知其非古矣。自宋晁說之·程泰之·鄭漁仲皆起而排之，而朱仲晦亦承焉，作為『辨說』，力詆「序」之妄，由是自為『集傳』，得以肆然行其說。而時復陽違「序」而陰從之，而且違其所是；從其所非焉。武斷自用，尤足惑世。因歎前之遵序者，『集傳』出而盡反之以遵『集傳』；後之駁『集傳』者，又盡反之而仍遵序。更端相循，靡有止極。窮經之士，將安適從哉？… 今日折中是非者，惟在序與『集傳』而已。… 唯序則昧者尊之，以為子夏作也；『集傳』則今世宗之，奉為繩尺也。予謂漢人之失在于固，宋人之失在于妄；固之失僅以類夫高叟，妄之失且為咸丘蒙以「北山」四言為天子臣父之證矣。”
- 14) 方玉潤 『詩經原始/詩旨』 “案，自來說『詩』諸儒，攻「序」者必宗朱，攻朱者必從「序」，非不知其兩有所失也，蓋不能獨抒己見，即不得不借人以爲依歸耳。姚氏起而兩排之，可謂膽識俱優。獨惜其所見未真，往往發其端不能竟其委；迨思意窮盡，無可說時，則又故爲高論以欺世，而文其短。是其於詩人本義，固未有所發明，亦由於胸中智慧有餘而義理不足故也。然在當時，則固豪傑士矣。若篇中所云，以遵『集傳』故而至於廢經，則真庸妄流，豈可同日並語哉！”

方玉潤은 姚際恒에 대하여 ‘소견이 참되지 않아 단서를 들춰내지만 끝까지 궁구하지 못하며, 생각이 궁해지면 짐짓 고담준론을 펼쳐서 세상 사람들을 속이고 자신의 단점을 꾸몄다.’라는 비판을 감추지 않았으나, 「序」와 朱子를 동시에 공격한 공로를 인정하여 ‘담력과 식견이 모두 훌륭한’ 인물로 ‘당시로서는 정말로 대단한 호걸지사였다’는 말로 크게 인정하고 있다. ‘기존 「詩序」 비판’에 집중하여 논의를 진행하는 자리에서 ‘주자에 대한 비판’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은 역시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주자에 대한 비판이 「詩序」에 대한 비판과 맞물려있기 때문이다. 방옥윤의 「詩序」에 대한 비판과 관련하여 좀더 주의할 기울여야 할 점은 「大序」까지도 모두 衛宏이 지은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지는 「自序」의 글을 보기로 한다.

詩는 반드시 제목이 있어야 하고, 제목엔 반드시 序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定例이다. 지금 ‘三百’은 제목이 없는데다가 또 「序」도 없다. 그런데 세상에 전하고 있는 『大序』와 『小序』는 또 모두 衛宏이 가탁한 것이니, 그것을 근거하여 신뢰할 수는 없다.¹⁵⁾

방옥윤은 이렇듯 「大序」와 「小序」를 막론하고 모두 衛宏의 가탁이라 하여 「詩序」의 권위를 끌어내리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기존의 「詩序」를 폐기하는 대신 그 나름의 참담한 경영을 통하여 새로운 ‘詩序’를 안출하여 개별 시편의 제목 아래 배치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詩經原始』 卷首上에 보이는 「凡例」를 참고하기 바란다.¹⁶⁾

IV. 朱子 ‘淫詩說’ 비판 - 「桑中」과 「溱洧」를 둘러싸고

朱子는 시의 산생, 즉 노래가 불리게 되는 基因을 외부사물에 의하여 촉동된 감정의 움직임으로, 그리고 그 감정의 움직임을 天賦의 欲(정욕)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¹⁷⁾ 욕망이 노래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특히 풍요의 모음인 국풍의 시들은 ‘里巷의 歌謠의 작품에서 나온 것이 많아서, 이른바 男女가 서로 읊고 노래하여 각기 그 情을 말한 것¹⁸⁾’이라고 하였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후대 방옥윤이 시경 이해의 정언명제로 삼고자 했던 공자의 말씀 ‘思無邪’를 두고도 이렇게 말하였다. “단지 「思無

15) 『詩經原始』 卷首上 「凡例」 “詩必有題，題必有序，此定例也。今『三百』既無題，復無序。而世所傳大·小『序』，又皆衛宏所託，未可據以爲信。”

16) 새로운 「詩序」의 제출에 대하여 『詩經原始』 卷首上 「凡例」의 첫 번째 항목에 자세한 기술이 있다. 『해람인문』 제49집(강릉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21.12) 줄역 「譯註 『詩經原始』」 57~59쪽 참조

17) 朱子 「詩經集傳/序」 “人生而靜，天之性也。感於物而動，性之欲也。夫既有欲矣，則不能無思，既有思矣，則不能無言。既有言矣，則言之所不能盡，而發於咨嗟詠歎之餘者，必有自然之音響節族而不能已焉。此詩之所以作也。”

18) 朱子 「詩經集傳/序」 “凡詩之所謂風者，多出於里巷歌謠之作，所謂男女相與詠歌，各言其情者也。”

邪」한 구절이 좋은 뿐, 『시경』 한 권의 책 전체가 모두 ‘思無邪’한 것은 아니다.”¹⁹⁾ 주자는 이렇게 시경을 근엄한 위대한 교과서로 추켜올렸던 漢唐詩學의 공고한 성채를 허물고 서민의 애환이 담긴 일반 사람의 문학텍스트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남녀가 서로 읊고 노래한 시’들을 주자는 淫奔之詩 또는 淫亂之詩로 지목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聖人께서 ‘鄭聲은 음란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대체로 鄭나라 사람들의 시가 많은 경우 당시의 풍속에서 남녀가 바람이 나서 눈이 맞아 도망간[男女淫奔] 내용을 말하고 있기에 이러한 말씀이 있었던 것이다.”²⁰⁾라고 하였으며, “변풍의 경우는 또 음란한 시들이 많다.”라고도 하였다.²¹⁾ 그리고 국풍 가운데 「邶風」, 「鄘風」, 「衛風」, 「王風」, 「鄭風」, 「陳風」 등의 개별 시편 30편을 淫詩로 지목하였다.²²⁾ 주자의 음시 판정은 한편으로 漢/唐詩學의 골간을 이루는 「詩序」의 부정이기도 하다. 전통적으로 諷刺로 읽어서 교화의 기능을 강조하고자 했던 「詩序」의 낡은 버릇에 ‘남녀가 눈이 맞아 바람난 것을 풍자하는 시’가 아니라 ‘바람난 남녀가 직접 읊은 상큼한 또는 질펀한 연애 이야기’로 시의 산생 배경을 다시 조직해냈다. 그의 신설은 「詩序」와 그를 기본 요소로 하는 漢/唐詩學에 대한 강한 타격이 되었다. 이것이 이른바 주자 ‘淫詩說’의 대략이다.

주자가 ‘淫詩說’을 가다듬을 당시에 이미 그의 지우었던 呂祖謙(1137~1181)과 벌였던 논쟁은 그것이 물고 올 문화의 기반에 대한 파괴력을 반증하는 사례라 할 것이다. 동시대인 嚴粲(南宋 후기 인물)은 『詩緝』에서 “鄭風과 衛風에는 淫詩가 많다. 衛는 통치자의 교화 스타일로 말미암은 것이고, 정풍은 시대의 혼란상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漢書/地理志』에는 모두 풍토로 인한 습속으로 여겼다. 정말로 이와 같다면 교화라는 말은 그저 공허한 말이 되고 正風인 二南의 의리라는 것도 허망한 것이 되고 만다.”²³⁾라고 하였다. 주자의 ‘淫詩說’을 사실로 받아들였을 경우 직면하게 되는 심리적 공황상태를 가감 없이 드러내고 있는 사례라 하겠다. 그만큼 주자의 ‘음시설’은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는 획시대적인 것이었는데, 이 때문에 그를 추종하는 인물들만큼이나 비판자들도 많게 되었다.

시경원시 卷首의 詩旨에서 ‘음시설’을 둘러싸고 쟁론한 수편의 글이 실려 있다. 그것들은 주로 「桑中」과 「溱洧」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桑中」과 「溱洧」를 차례로 읽고 논의를 계속하겠다. 다음은 「桑中」이다.

19) 朱子語類 “只是「思無邪」一句好，不是一部詩皆「思無邪」。”

20) 朱子語類 “聖人言「鄭聲淫」者，蓋鄭人之詩，多是言當時風俗男女淫奔，故有此等語。”

21) 朱子語類 “若變風，又多是淫亂之詩。”

22) 朱熹가 淫(奔)詩라고 여긴 30편은 다음과 같다. 『邶風』「靜女」, 『鄘風』「桑中」, 『衛風』「氓」, 「有狐」, 「木瓜」, 『王風』「采葛」, 「大車」, 「丘中有麻」, 『鄭風』「將仲子」, 「叔于田」, 「遵大路」, 「有女同車」, 「山有扶蘇」, 「摯兮」, 「狡童」, 「褰裳」, 「丰」, 「東門之墀」, 「風雨」, 「子衿」, 「揚之水」, 「野有蔓草」, 「溱洧」, 『齊風』「東方之日」, 『陳風』「東門之枌」, 「東門之池」, 「東門之楊」, 「防有鵲巢」, 「日出」, 「澤陂」

23) 嚴粲 『詩緝』 “鄭衛多淫詩，衛由上之化，鄭由時之亂也。漢地理志，皆以為風土之習。固然若是則教化為虛言而二南之義誣矣。”

爰采唐矣，	새삼을 캐네
洙之鄉矣。	洙읍의 시골에서
云誰之思？	누구를 그리워하나
美孟姜矣。	아름다운姜씨네 딸이네
期我乎桑中，	桑中에서 나를 기다리다
要我乎上宮，	上宮으로 나를 맞아들이고
送我乎淇之上矣。	淇水 가에서 나를 전송해주네

爰采麥矣，	보리를 베네
洙之北矣。	洙읍의 북쪽에서
云誰之思？	누구를 그리워하나
美孟弋矣。	아름다운弋씨네 딸이네
期我乎桑中，	桑中에서 나를 기다리다
要我乎上宮，	上宮으로 나를 맞아들이고
送我乎淇之上矣。	淇水 가에서 나를 전송해주네

爰采葑矣，	순무를 캐네
洙之東矣。	洙읍의 동쪽에서
云誰之思？	누구를 그리워하나
美孟庸矣。	아름다운庸씨네 딸이네
期我乎桑中，	桑中에서 나를 기다리다
要我乎上宮，	上宮으로 나를 맞아들이고
送我乎淇之上矣。	淇水 가에서 나를 전송해주네

이 시에 대하여 「詩序」에서는 “바람난 자들을 풍자한 시이다. 衛나라의 公室이 음란하여 남녀가 서로 바람나 윗자리에 있는 世族들까지도 서로 妻妾을 훔쳐 남들이 모르는 곳에서 만나기로 기약하니, 정치가 문란하고 백성들이 흩어져서 막을 수가 없었다.”라 하였다.²⁴⁾ 주자는 「詩序」 가운데 ‘刺奔’, 즉 ‘바람난 자들을 풍자한 시’라는 내용을 버리고 대신 ‘바람난 사람이 스스로 말한 것’으로 대체하여 “衛나라 풍속이 음란하여 世臣의 집안으로 지위에 있는 자들이 서로 妻妾을 훔쳤다. 그래서 이 사람이 스스로 말하기를 ‘장차 洙땅에서 唐(새삼)을 캐면서 그리워하는 사람과 더불어 서로 만나기로 약속하며, 맞이하고 전송하기를 이와 같이 했다.’고 한 것이다.”라 하였다.²⁵⁾ 주자는 이어서 『禮記/樂記』에 “鄭나라와 衛나라의 음은 亂世의 음으로, ‘慢’에 가깝다. 桑間과 濮上의 음은 亡國의 음으로, 정사가 흩어지며 백성들이 유리해서 윗사람을 속이고 사사로움을 행하여 그칠 수가 없었다.”라 한 것에 보이는 ‘桑間’이 바로 이 「桑中」시라고 하였다.²⁶⁾ 인용된 『禮記/樂記』의 ‘桑間과 濮上’에 대하여 鄭玄은 『史記』를 근거하여 주석을 달았는데,²⁷⁾ 『史記』의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다.

24) 『毛序』 “「桑中」, 刺奔也, 衛之公室淫亂, 男女相奔, 至于世族在位, 相竊妻妾, 期於幽遠, 政散民流而不可止.”

25) 朱子 『詩集傳』 “衛俗淫亂, 世族在位, 相竊妻妾, 故此人自言‘將采唐於洙, 而與其所思之人, 相期會迎送如此也.’”

26) 朱子 『詩集傳』 “樂記曰, 鄭衛之音, 亂世之音也, 比於慢矣. 桑間濮上之音, 亡國之音也, 其政散, 其民流, 誣上行私而不可止也. 按桑間, 卽此篇, 故小序亦用樂記之語.”

27) 『禮記』 鄭玄注 “濮水之上, 地有桑間者. 昔殷紂使師延作靡靡之樂, 已而自沉於濮水. 後師涓過焉,

衛靈公이 쭈나라로 가는 도중에 濮水에 이르러 머물게 되었다. 한밤에 거문고 소리를 듣고서 좌우 신하들에게 묻자 모두 듣지 못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이에 師涓을 불러 “내가 거문고 타는 소리를 듣고 좌우에게 물어보았더니 모두 듣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그 형상이 귀신과 비슷하니 나를 위해 들어보고 기록하라.”라고 하였다. 師涓이 “예” 하고 대답하고, 이어서 자리에 단정히 앉아 거문고를 끌어당겨 그 소리를 들으며 기록하였다. … 濮水の 속소를 떠나 쭈나라로 가서 晉平公을 만났다. 晉平公이 施惠의 누대에 주연을 베풀었다. 취흥이 도도해지자 衛靈公이 “근자에 새로운 음악을 들었는데 연주하도록 하여주십시오.”라고 청하자, 晉平公이 좋다고 허락하고는 즉시 師涓으로 하여금 師曠 옆에 앉게 하고 거문고를 끌어다 연주하게 하였다. 다 마치기 전에 師曠이 그를 잡아 제지하며 말하였다. “이것은 亡國의 소리이니 다 마쳐서는 안 됩니다.” 平公이 그 까닭을 묻자, 師曠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곡은 師延이 지은 것입니다. 그는 紂와 더불어靡靡한 음악을 지었는데, 武王이 紂를 정벌하자 동쪽으로 도망하다가 스스로 濮水 물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음악을 들은 곳은 필시 濮水가일 것입니다. 이 음악을 먼저 듣는 사람의 나라는 국토가 깎여나가게 될 것입니다.” 平公이 “내가 좋아하는 것은 음악이니 끝까지 듣기를 원한다.”고 하자, 師涓이 연주하여 곡을 마쳤다.²⁸⁾

이에 桑間濮水는 ‘靡靡한 음악’, 즉 남녀가 모여서 밀회의 기쁨을 노래한 음악과 또 남녀가 은밀히 만나는 장소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어 왔다. 『漢書』에서 “衛나라 땅에는 桑間의 濮上에 으스스한 곳이 있는데, 남녀들이 역시 자주 모여서 음악과 여색이 출현하였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鄭衛之音’ 즉, 鄭나라 衛나라의 음악”이라 칭한다.”는 기사는 이러한 사정을 잘 말해주고 있다.²⁹⁾ 한편 『좌전』에서 申公巫臣과 夏姬의 일을 두고 신숙계가 ‘桑中の 즐거움[桑中之喜]’을 운위하여 일찍부터 이 「桑中」시를 남녀의 부적절한 음분의 이미지로 읽고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이렇게 하여 「桑中」은 ‘靡靡之音’, 즉 유약하고 퇴폐적인 음악의 대칭으로 쓰이는 ‘桑間濮上’의 이미지가 입혀졌다. 그러기에 이 시는 열거되어 있는 세 명의 여인, 즉 姜氏 집 만말과 弋氏 집 만말, 그리고 庸氏 집 만말에 대하여 한 남자가 동시에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정황, 또는 음란을 일삼는 일로 서로 친구사이가 된 세 남자가 각각 자신들의 연애얘기를 한마디씩 읊을 것을 조합하여 이 시를 조직해냈을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있게 되었다. 주자가 「桑中」을 ‘桑間濮上’과 연결시켰던 것에 일정한 근거가 있었던 것이다. 다음은 「溱洧」를 보기로 한다.

溱與洧方渙渙兮.
士與女方秉簡兮.

溱水와 洧水는 넘실대는데
남자와 여자가 난초를 들고 있네

夜聞而寫之。為晉平公，鼓之。是之謂也。桑間在濮陽南。”

28) 『史記·樂書』 “衛靈公之時，將之晉，至於濮水之上舍。夜半時聞鼓琴聲，問左右，皆對曰不聞。乃召師涓曰，吾聞鼓琴音，問左右，皆不聞。其狀似鬼神，為我聽而寫之。師涓曰，諾。因端坐援琴，聽而寫之。… 去之晉，見晉平公。平公置酒於施惠之臺，酒酣，靈公曰：“今者來，聞新聲，請奏之。平公曰，可。即令師涓坐師曠旁，援琴鼓之。未終，師曠撫而止之曰，此亡國之聲也，不可遂。平公曰，何道出？師曠曰，師延所作也。與紂為靡靡之樂，武王伐紂，師延東走，自投濮水之中，故聞此聲必於濮水之上，先聞此聲者國削。平公曰，寡人所好者音也，願遂聞之。師涓鼓而終之。”

29) 『漢書·地理志下』 “衛地有桑間濮上之阻，男女亦巫聚會，聲色生焉。故俗稱鄭衛之音。”

女曰：	여자가 말하네요
「觀乎？」	“구경할까요?”
士曰：	남자가 말하네요
「既且」	“이미 갔다 왔다고”
「且往觀乎！」	“그래도 또 가서 구경해요!”
洧之外	유수 가는
洵訏且樂」	정말 넓고 즐거울 텐데”
維士與女，	남자와 여자가
伊其相謔，	웃으며 서로 농담하며
贈之以勺藥。	작약을 선물하네

溱與洧瀏其清矣。	진수와 유수는 깊고도 맑은데
士與女殷其盈矣。	남자와 여자가 많이도 모였네
女曰：	여자가 말하네요
「觀乎？」	“구경할까요?”
士曰：	남자가 말하네요
「既且」	“이미 갔다 왔다고”
「且往觀乎！」	“그래도 또 가서 구경해요!”
洧之外	유수 가는
洵訏且樂」	정말 넓고 즐거울 텐데”
維士與女，	남자와 여자가
伊其將謔，	웃으며 서로 함께 농담하며
贈之以勺藥。	작약을 선물하네

이 시에 대하여 「詩序」에서는 “「溱洧」는 문란함을 풍자한[刺亂] 시이다. 전쟁이 그치지 않으니, 男女가 서로를 버려 음란한 풍속이 크게 유행하였지만 그치게 하지 못하였다.”라고 하였다.³⁰⁾ 주자는 이 시를 가리켜 “바람난[淫奔] 자가 스스로 서술한 말”이라고 하였다. 그 근거로 3월 上巳의 때에 남녀가 물가에 모여 澤蘭을 캐어 불길한 기운을 제거하던 鄭나라의 풍속을 들었다. “여자가 남자에게 ‘구경갈까?’라고 하면, 남자가 ‘이미 다녀왔는데.’라 하고, 이에 여자가 다시 청하여 ‘그래도 또 가서 구경해요! 洧水 가는 정말 넓고 즐거울 텐데.’라고 하였다. 이에 남자와 여자가 서로 희롱을 하며, 또 勺藥을 선물하여 정을 두터이 맺은 것이다.”³¹⁾ 「詩序」에서는 鄭나라 풍속이 음란해진 까닭을 전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찾았지만, 주자는 정나라 풍속의 음란함은 이미 오래 전부터 유전되어 온 해묵은 습속으로, 전쟁 때문만은 아니라고 하였다.³²⁾ 「詩序」는 풍자로 읽어서 전쟁을 반대하는 의식으로까지 연결될 여지를 열어두었고, 주자는 단순히 바람난 남녀가 스스로 자신들의 언행을 서술하며 즐기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淫詩’로 본 것이다. 마찬가지로 戰國 말기 楚나라의 宋玉이 登

30) 『毛序』 “溱洧刺亂也。兵革不息，男女相棄，淫風大行，莫之能救焉。”

31) 朱子 『詩集傳』 “鄭國之俗，三月上巳之辰，采蘭水上，以祓除不祥。故其女問於士曰，盍往觀乎？士曰，吾既往矣。女復要之曰，且往觀乎？蓋洧水之外，其地信寬大而可樂也。於是士女相與戲謔，且以勺藥相贈，而結恩情之厚也。此詩淫奔者自叙之詞。”

32) 朱子 『詩序辨說』 “鄭俗淫亂，乃其風聲氣習流傳已久。不為兵革不息，男女相棄而後然也。”

徒子の 입을 빌려 “鄭나라 衛나라의 溱水와 洧水 사이에 … 여러 여자들이 나와 뽕잎을 따고 있었는데, 신이 그중에서 특히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시를 읊어 ‘큰길을 따라가 그녀의 옷자락을 잡네.’라고 하고는 아름다운 꽃을 바치고 교묘하게 말을 하였습시다.”³³⁾라고 한 기록은 『鄭風』에 들어 있는 「遵大路」가 남녀 간의 일을 읊은 시임을 입증하는 사례일 뿐만 아니라 역시 「溱洧」 역시 같은 부류로 읽혔음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어준다. 이 밖에도 『呂覽/本生篇』에서 “鄭/衛의 음악은 즐기는 것만 힘쓰니 생명을 해치는 도끼라고 이름한다.”라 하였다. 감각적 쾌락의 탐닉을 경계하는 말이다. 이에 대하여 漢末의 高誘는 “鄭나라는 淫僻하여 남녀가 溱水와 洧水 사이에 사사롭게 모여서 ‘詢訏之樂’과 ‘芍藥之和’가 있었다.”라고 하였다.³⁴⁾ 여기서 ‘詢訏’는 「溱洧」에 보이는 ‘詢訏且樂’의 ‘詢訏’가 변형된 표현으로, ‘詢訏之樂’은 남녀가 모여 희롱하며 노니는 즐거움을 뜻하는 말이다. ‘桑中之喜’가 「桑中」을 연상케 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高誘보다 약간 앞서서 鄭玄이 『毛詩傳箋』에서 “남녀가 서로를 버려 각기 배우자가 없이 지냈는데 봄기운이 느껴워 모두 나와서 캐온 향기로운 풀에 의탁하여 음란한 행실을 하였다.”고 하고, 1장의 攄머리에서 “사내가 여인과 함께 구경 가고 이로 인하여 서로 희희낙락하며 부부간의 일을 행하고 이별할 때에는 여인에게 芍藥을 주어 사랑의 정을 맺은 것이다.”라고 해석한 것은 역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주자가 鄭나라의 3월 上巳 날의 풍속을 운운하며 “바람난[淫奔] 자가 스스로 서술한 말”이라고 한 것은 이 시를 둘러싼 이러한 해석을 배경으로 함은 물론이다.

「詩序」와 주자의 「溱洧」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앞서 살펴본 「桑中」의 경우와 정확히 일치한다. 「詩序」는 교조적인 태도를 견지한 해석이고 주자는 당시로서는 시 본래의 의미에 다가간 해석이라 할 수 있다. 주자가 이들 시에 대한 「시서」의 견해를 부정하며 ‘淫詩’로 끌어내리고 있을 때에 呂祖謙과 이 문제를 둘러싸고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 방옥윤은 『詩經原始』의 「詩旨」에서 이를 주제로 주자와 呂祖謙, 그리고 몇몇 학자들의 주장을 차례로 제시하면서 각각에 대한 평어를 달고 있다. 방옥윤이 인용한 순서에 따라 呂祖謙의 견해와 이에 대한 방옥윤의 평어, 주자의 견해와 방옥윤의 평어를 비교하여 방옥윤과 주자가 어떠한 양상으로 견해를 달리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아래에서 검토되는 자료는 모두 『詩經原始』의 「詩旨」에 들어있는 내용인데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요점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첫 번째 의제는 「桑中」과 「溱洧」 등은 음란을 권하는 내용에 가까운데, 孔子가 취하여 시경에 편입한 까닭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이다. 두 번째 의제는 『樂記』에 나오

33) 『登徒子好色賦』 “鄭衛溱洧之間, … 群女出桑, 臣觀其麗者, 因稱詩曰, ‘遵大路兮攬子祛’, 贈以芳華, 辭甚妙.”

34) 『呂覽/本生篇』 “鄭衛之音, 務以自樂, 命之曰伐性之斧.” 高誘注 “鄭國淫僻, 男女私會於溱洧之上, 有詢訏之樂, 芍藥之和.”

는 ‘桑間濮上의 音’이 「桑中」시가 아님을 어찌 증명하는가의 문제이다.

첫 번째 의제에 대한 呂祖謙의 견해는 공자의 ‘思無邪’설을 시경의 宗旨로 파악한 후 “시인이 간사함이 없는 마음으로 지은 것을 학자가 간사함이 없는 마음으로 살피면, 가엾고 애석하게 여기며 징계하는 뜻이 은연중에 저절로 언어바깥에 드러나게 된다.”고 하였다. 두 번째 의제에 대하여 여조겸의 견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음악은 아악과 속악으로 구분되면 『詩』는 雅樂으로서 제사와 朝聘에 사용된다. ‘桑間濮上의 音’은 鄭/衛의 음악으로 속악에 해당하며 아악인 『詩』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이미 『詩』에 들어 있는 「桑中」과 「溱洧」 등은 ‘桑間濮上의 音’, 즉 음란한 내용의 시가 될 수 없다. 그것들은 비록 周의 道가 쇠하였을 때 지어져 변질된 점이 있으나 여전히 中和의 聲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荀子에 의하여 추인된 바 있다. 공자가 「桑中」과 「溱洧」류의 변질된 세태를 반영한 시들을 『詩』에 편입시킨 까닭은 세태변화의 시초에 신중을 기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공자 이전부터 아악과 속악이 뒤섞여 있었다면 衛에서 魯로 돌아와 樂을 바로잡을 때 우선적으로 바로잡을 대상이었어야 하는데, 공자는 그것들을 존치시키고 있다. 이는 「桑中」과 「溱洧」류의 시가 淫詩가 아니라는 사실을 반증하며, 아울러 아악과 속악이 별도로 존재했다는 가설을 방증하는 자료가 된다. 이에 鄭聲을 몰아내는데 골몰했던 공자가 『詩』를 刪定하면서 鄭聲을 거두어 경전에 편입시킬 리는 없는 것이다.³⁵⁾

이에 대하여 『詩經原始/詩旨』에 인용된 朱子の 反論은 다음과 같다. 출처는 「讀 呂氏家詩記桑中篇」, 즉 ‘呂祖謙의 『呂氏家塾讀詩記』의 「桑中」편을 읽고 쓴 글’이다.

孔子가 ‘생각에 사특함이 없다.[思無邪]’라고 칭찬한 것은 『詩』 삼백편이 선을 권면하고 악을 징계하여 그 전체적인 뜻이 올바름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 없다고 여긴 것이지, 詩를 지은 사람들이 생각한 바에 모두 사특함이 없다고 여긴 것은 아니다. (여조겸이 말한 것처럼) 지금 그가 사특함이 없는 생각으로 음란한 일을 퍼냈으나 가엾어 하고 애석하게 여기며 징계하는 뜻이 저절로 언어 너머로 드러난다고 꼭 말한다면, 이는 그들이 비록 사특함이 있는 생각으로 지었으나 나는 사특함이 없는 생각으로 읽으니 그들이 자신의 추악함을 스스로 그려낸 것들이 바로 내가 두려워하고 징계할 자료가 된다고 말하는 것만 하겠는가? 『雅』와 『鄭』의 약간 편에 대해서는 孔子가 衛나라로부터 魯나라로 돌아온 이후에 아직 바뀐 것이 없었다. 「桑中」시에 대한 「小序」의 문장은 「樂記」와 부합되니³⁶⁾ 이 시를 ‘桑間’으로 보는 것에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지금 반드시 ‘三百篇’이 모두 ‘雅(雅樂)’라고 한다면 사특한 것과 올바른 것이 뒤섞여 더 이상 孔子 때의 예전

35) 方玉潤 『詩經原始/詩旨』 “呂氏祖謙『讀詩記』曰, 「桑中」·「溱洧」諸篇, 幾於勸矣, 夫子取之, 何也? 曰, 仲尼謂『詩』三百, 一言以蔽之, 思無邪. 詩人以無邪之思作之, 學者亦以無邪之思觀之, 閔惜懲創之意, 隱然自見於言外矣. 或曰『樂記』所謂「桑間濮上之音」, 安知非即此篇乎? 曰, 『詩』, 雅樂也, 祭祀朝聘之所用也. 桑間濮上之音, 鄭衛之樂也, 世俗之所用也. 雅鄭不同部, 其來尚矣. 寧有編鄭衛樂由於雅音中之理乎? 「桑中」·「溱洧」諸篇, 作於周道之衰, 其聲雖已降於煩促, 而猶止於中聲. 荀卿獨能知之. 【其辭, 雖近於諷一勸百, 然猶止於禮義. 大叙獨能知之.】 仲尼錄之, 所以謹世變之始也. 借使仲尼之前, 雅·鄭果嘗龐雜, 自衛反魯正樂之時, 所當正者, 無大於此矣. 『論語』答顏子之問, 乃孔子治天下之大綱也. 於鄭聲亟欲放之, 豈有刪詩示萬世, 反收鄭聲以備六藝乎?”

36) 『禮記/樂記』에 “桑間濮上之音, 亡國之音也, 其政散, 其民流, 誣上行私而不可止也.”라 하였다. 「桑中」시의 「小序」에 “「桑中」, 刺奔也. 衛之公室淫亂, 男女相奔, 至于世族在位, 相竊妻妾, 期於幽遠, 政散民流而不可止.”라 하였다.

모습이 되지 않는다. 대저 二南은 正風으로 房中之樂이며 鄉樂이고, 二雅의 正은 朝廷의 음악이며, 『商頌』과 『周頌』은 종묘의 음악이다. 이는 序義와 傳記에 보이니, 모두 고거할 자료가 있다. 變雅에 이르러서는 원래 이미 일에 베풀어진 바가 없었고, 變風은 또 단지 里巷의 가요일 뿐이었는데, 그것들이 樂官에서 관리된 까닭은 그것으로 시대의 변화를 알고 지역의 풍속을 살필 수 있었기 때문일 따름이다. 지금 기어코 '三百篇'이 모두 제사와 朝聘에 사용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桑中」과 「溱洧」 같은 시들로 응당 어떠한 귀신에게 올리고 어떠한 빈객을 맞아야 했을지 알지 못하겠다. 옛날 太師가 詩를 진술하여 민간의 풍속을 살핌에는 본디 그 선악을 따지지 않고 모두 보존하여 교훈으로 삼았다. 그러나 그것이 선왕(先王)의 『雅』와 『頌』 가운데 正樂과는 쓰임이 또한 달랐으니, 본디 '잡다하게 많음[龐雜]'을 꺼리지 않았던 것이다. 지금 『雅』와 『鄭』의 실질에 대하여 자세히 살피지 않았고 '잡다하게 많다'는 명분에 대하여 두려워함이 또 지나치게 심하여, 도리어 諷刺라는 아름다운 이론으로 꾸며서 억지로 『雅』와 『頌』의 반열에 놓았으니, 이는 오히려 '잡다하게 많음'이 심해졌는데도 스스로 알지 못하는 꼴이 되어버렸다. 두 편의 詩가 그래도 中和한 聲에 머물고 있다고 여겼던 것과 太史公이 이른바 孔子가 모두 현악기에 맞추어 노래하여 「韶」와 「武」의 음악에 부합할 것을 추구하였다고 일컬은 것에 있어서, 그 잘못은 대체로 또한 이와 같은 것이다. 그러나 古樂이 이미 없어져버려 살피서 바로잡을 바가 없기에, 나는 홀로 그것의 이치와 글을 가지고 미루어서 반드시 그렇지 않을 것임을 알 따름이다. 또 '백 가지를 칭찬하고 한 가지를 풍자하는[勸百風一]' 것에 가깝지만 예의에 머물렀다고 여기는 경우는 또 『大序』를 믿음에 지나친 경우가 된다. 저들 「子虛賦」와 「上林賦」는 그래도 이른바 諷(풍자)이라는 요소가 있기는 하다. 「漢廣」은 불가함을 알고서 구하지 않았고, 「大車」는 두려워하는 바가 있어서 감히 하지 않았으니, 그래도 예의에 머무름이 있었다. 「桑中」과 「溱洧」 같은 것에 있어서 나는 그것이 어떤 말로 풍자한 것인지, 또 무슨 예의에 머물렀는지를 알지 못한다.³⁷⁾

주자의 견해는 '思無邪'에 대한 해석부터 달라져 있다. '사특함이 없다는 것'은 본디 '권선징악', 즉 선을 권면하고 악을 징계하여 전체적으로 올바른 뜻에서 나온 것이라는 의미이지, 시인의 생각에 사특함이 전혀 없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하였다. '시인이 사특함이 없는 생각으로 음란한 일을 표현했다'라고 그것을 읽는 사람이 사특함이 없는 마음으로 읽는다면 은연중에 가엾고 애석하게 여기며 징계하는 뜻이 절로 언어바깥에 드러난다.'는 것은 '시인이 자신의 추악함을 스스로 써낸 것들이 바로 독

37) 方玉潤 『詩經原始/詩旨』 “朱子曰，孔子之稱思無邪也，以爲『詩』三百篇，勸善懲惡，其要歸無不出於正，非以作詩之人所思皆無邪也。今必曰彼以無邪之思，鋪陳淫亂之事，而閔惜懲創之意自見於言外，則曷若曰彼雖以有邪之思作之，而我以無邪之思讀之，則彼之自狀其醜者，乃所以爲吾警懼懲創之資邪？若夫『雅』·『鄭』若干篇，自衛反魯以來，未之有改。至於「桑中」「小序」之文與『樂記』合，則是詩之爲桑間不爲無據。今必曰三百篇皆雅，則邪正錯糅，非復孔子之舊矣。夫『二南』正風，房中之樂也，鄉樂也；『二雅』之正，朝廷之樂也；商·周之『頌』，宗廟之樂也。見於序義/傳記，皆有可考。至於變雅，則固已無施於事，而變風，又特里巷之歌謠，其領在樂官者，以爲可以識時變，觀土風耳。今必曰三百篇皆祭祀朝聘之所用，則未知「桑中」「溱洧」之屬，當以薦何等之鬼神，接何等之賓客耶？古者太師陳詩以觀民風，固不問美惡而悉存以訓也。然其與先王『雅』·『頌』之正，施用亦異，則固不嫌於龐雜矣。今於『雅』·『鄭』之實，察之既不詳，於龐雜之名，畏之又太甚，顧乃文以風刺之美說，強而置諸『雅』·『頌』之列，是乃反爲龐雜之甚而不自知也。其以二詩爲猶止於中聲者，太史公所謂孔子皆弦歌之；以求合於『韶』·『武』之音，其誤蓋亦如此。然古樂既亡，無所考正，吾獨以其理與詞推之，有以知其必不然耳。又以爲近於勸百風一，而止乎禮義，則又信『大序』之過者。夫「子虛」「上林」猶有所謂諷也。「漢廣」知不可而不求，「大車」有所畏而不敢，猶有所謂禮義之止也。若「桑中」「溱洧」，則吾不知其何詞之諷，而何禮義之止乎？”

자가 두려워하고 경계할 자료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이는 여조점을 향한 더할 나위 없이 신랄한 비판이다. 이어서 「桑中」시 역시 '상간복상'의 '桑間'으로 보는 것 역시 「小序」의 문장이 「樂記」와 부합되기에 일정한 근거를 갖추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桑中」은 음란한 곡이 되는 것이다. 나아가 주자는 음악을 雅樂과 俗樂으로 대별하고 시를 雅樂으로 파악하여 『詩經』 전체를 雅樂으로 보는 태도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자는 이 부분에 대하여 '정변설'에 기대어 풍시 가운데 변풍을 가리켜 그저 '里巷의 가요'일 따름이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이들 변풍의 시들을 시경에 편집한 까닭은 그것들이 시대의 변화와 지역의 풍속을 살피는 자료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경우에 「桑中」과 「溱洧」류의 시들은 '里巷의 가요', 즉 民歌 이상의 의미를 갖지 않는다. 주자는 여조점의 주장대로 '시경 시가 모두 제사와 朝聘에 사용되었다고 한다면, 「桑中」이나 「溱洧」같은 시들을 어떤 귀신에게 올리고 또 어떤 빈객을 맞이했는지 모른다고 하였다. 이 역시 여조점을 향한 더욱 수위가 높아진 신랄하기 그지없는 비판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공격의 창끝이 「시서」로 향하여 刺淫으로 해석하는 태도를 배격한다. 변풍은 그저 변풍일 따름이지 『雅』『頌』과 그 지위를 나란히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경을 두고 中和한 聲에 머물러 있다고 한 荀子의 해석이나 공자가 시경 시 전체를 현악기로 연주하며 聖王의 음악과 부합시키고자 하였다는 司馬遷의 견해는 모두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이 되어버린다. 그리고 여조점이 「桑中」이나 「溱洧」류의 시를 두고 '백 가지를 권하고 한 가지를 풍자하는 [勸百風一]' 것에 가깝지만 예의에 머물렀다고 한 것에 대하여 주자는 『大序』를 지나치게 신뢰한 결과라 하여 '발호정, 지호예의'의 의미를 깎아내렸다. 결과적으로 『大序』까지 인정하지 않은 꼴이다. 결론적으로 「桑中」과 「溱洧」는 '지호예의'의 범주에 들어가는 「漢廣」이나 「大車」류의 시들과는 판연히 다른 그저 바람난 남녀가 스스로 자신들의 음행을 서술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방옥윤은 이러한 주자의 견해에 대하여 단호히 배격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내용을 읽기로 한다.

晦翁(朱子)의 이 논의는 「鄭나라 음악은 음탕하다[鄭聲淫]」라는 한 마디 말을 잘못 읽었을 뿐만 아니라 또 「溱洧」와 「桑中」 두 편의 시에 대하여도 역시 그 표현된 글을 세밀하게 읊조려본 적이 없음을 드러낸다. 「溱洧」시에서 「남자와 여자[惟士與女]」라 하였으니, 자기 자신의 일을 말한 것은 아니다. 「桑中」시에서 한 때에 세 장소에서 세 사람과 기약하고 있으니, 또 어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었겠는가? 두 시에 대하여 분명히 알게 되면 그밖에 이른바 淫奔의 가사라는 것 역시 분명하지 않을 것이 없게 된다. 게다가 孔子께서 기어이 「사특함이 없다[無邪]」는 한 마디 말을 내걸어서 가르침으로 삼았던 까닭은 바로 그 표현된 글이 음란함에 가까워 사람들이 혹 음란한 것으로 오인해 음란하게 여기면 사람들에게 음란하고 사특한 생각으로 인도함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임을 염려했을 따름이다. 이는 곧 晦翁이 마침내 성인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여 『詩』 해설에 수백 년 간 논쟁의 문을 열어준 것이니, 어찌 공자께서 미리 헤아릴 수 있는 바였겠는가?³⁸⁾

방옥윤은 '鄭나라 음악은 음탕하다[鄭聲淫]'는 공자의 말을 오독하였다는 지적으로 시작하였다. 이는 앞서 검토했던 요제항의 견해와 정확히 일치한다. 요제항은 주자가 범한 오류 중에 가장 심각한 오류가 바로 '鄭聲淫'에 대한 오독이라고 꼬집은 바가 있다. 방옥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주자가 시 작품의 원문을 제대로 읽지 않았다고 질타한다. '표현된 글을 세밀하게 읊조려본 적이 없음을 드러낸다.'가 그것인데, 학자들 사이에 주고받을 수 있는 매우 모욕적인 언사의 하나이기에 그 비판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 방옥윤은 작품의 원문을 세밀하게 읽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 시 본래의 뜻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溱洧」에서는 '惟士與女' 한 구절로 인하여 話者が 작품 속의 인물이 아니고 곁에서 지켜보는 입장에 서있는 시인이라는 점을 적시하였다. 「桑中」에서는 한 때에 세 장소에서 세 사람과 기약하고 있으니,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점을 근거로 역시 話者が 작품 속의 인물이 아님을 증명해냈다. 방옥윤이 얻어낸 결론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로 남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추론을 통하여 이 두 편의 시는 淫詩가 아니며 대신 음란한 풍속을 풍자하는 刺淫詩로 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정풍과 위풍에 속한 기타 시들에 대하여 음사의 혐의를 두는 것은 심각한 오류일 수 있다는 데에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다음은 여조점의 의견에 대한 방옥윤의 평어이다.

「溱洧」는 곧 淫奔을 풍자하는 작품이며, 「桑中」은 실제로 제목이 없는 시, 곧 無題詩이다. 모두가 세상을 풍자하고자 하는 것일 따름이니, 음분의 시에 견줄 바가 아니다. 이는 대체로 鄭나라와 衛나라의 풍속은 정말로 음란하였으나, 鄭나라와 衛나라의 시는 음란한 시가 아니었기 때문인데, 이는 어찌된 것인가? 만약 鄭나라의 풍속이 음란하지 않았다면 「溱洧」는 풍자할 바가 없고, 衛나라의 풍속이 음란하지 않았다면 「桑中」이 무엇을 풍자했겠는가? 게다가 「新臺」와 「靜女」 등의 여러 시들이 衛나라의 음란한 풍속의 실제적인 자취가 아니던가? 요컨대 그 풍속이 비록 음란했어도 수록한 시들은 모두 음란함을 풍자한 작품이며 淫奔의 글이 아니라는 사실을 구분하지 않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부자께서 음악을 논하면서 굳이 「鄭나라의 음란한 음악을 추방한다[放鄭聲]」라고 하였는데, 어찌 음악을 바로잡을 때에 또 반대로 음란한 시들을 수록했겠는가? 대체로 추방[放]은 음악 가운데 음란한 것을 추방하였을 따름이지, 鄭나라 음악을 죄다 모조리 추방한 것은 아니었다. 만약 鄭나라 음악을 죄다 추방해버렸다면, 현명한 사람을 좋아하는 내용의 「緇衣」나 친구를 그리워한 「風雨」 등의 여러 시들이 똑같이 刪去 대상에 들었을 터, 어떻게 그대로 남아 『經』을 이룰 수 있었겠는가? 이것은 역시 분명하여 쉬이 드러나는 일인데, 후세 학자들이 어찌하여 시골벽적인 논의가 이처럼 그치지 않는 것인지 알지 못하겠다. 呂氏는 비록 이러한 점에 대하여 약간 알고는 있었으나 명백하게 결론짓지 못하고서

38) 方玉潤 『詩經原始/詩旨』 “案，晦翁此論，不唯誤讀鄭聲淫一語，且「溱洧」·「桑中」二詩亦並未嘗細吟其詞。「溱洧」之詞曰，惟士與女，則是非爲己而言也。「桑中」一時而期三人於三地，又豈一人所能爲哉？二詩明，則其他所謂淫奔之詞者，亦無不明矣。且夫子所以必標無邪一語爲訓者，正恐其詞之鄰於淫，人或誤認爲淫而淫之，則未免啟人以淫邪之思耳。乃晦翁竟錯會聖言，致啟說『詩』門戶數百年之爭，則豈夫子所能逆計哉？”

그저 荀卿의 ‘中聲’ 이론을 인용하여 증명하는 것으로 그쳤을 뿐이다. 그렇다면 여전히 의심을 품고 결정하지 못하였으니 그 중정한 도리를 얻지 못한 것이다. 그리하여 또 朱晦翁(朱子)이 반복하여 변론하면서 한번 정하고는 바꾸지 않는 마음을 더욱 굳건히 하도록 인도하고 말했다. 이것은 葩經(詩經)에게 있어 하나의 커다란 재난의 시절이었으니, 어찌 한이 되지 않겠는가!³⁹⁾

방옥윤은 「溱洧」를 刺淫의 시로, 「桑中」을 ‘無題詩’로 모두 세상을 풍자하는 시로, 淫詩와는 거리가 멀다고 하였다. ‘雅樂과 鄭樂이 部類를 달리한다.’는 呂祖謙의 견해에 대하여 지지하는 입장에 선 것이다. 여조겸 견해의 미흡한 점에 대한 지적과 보완은 그대로 주자에 대한 비판이다. 여조겸의 분석과 논리가 명석하지 못했던 탓에 주자가 그릇된 생각을 굳히게 되었고 이에 시경 해석에 커다란 병폐를 낳게 되었다는 것이다. 방옥윤은 여조겸과 마찬가지로 속악과 시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취하여 여조겸의 논리를 보완하였다. 鄭/衛의 풍속은 음란하였으나, 鄭/衛의 시는 음란한 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인데, 이에 鄭/衛의 풍속이 음란하였기 때문에 음란함을 풍자하는 시인 「溱洧」와 「桑中」의 존립 공간이 만들어진다. 같은 논리로 「新臺」나 「靜女」 등도 음시의 혐의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그것들이 분명 음란한 풍속의 흔적이지만, 시경에 수록된 만큼 음란한 풍속을 풍자한 작품일지언정 淫詩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放鄭聲’은 음란한 음악에 대한 선별적 추방을 의미하며 鄭나라 음악 전체에 대한 추방은 아니게 된다. 현인을 좋아하는 내용의 「緇衣」나 친구를 그리워하는 내용의 「風雨」 등의 존재가 그 증거라고 하였다. 荀子の ‘中聲’이론을 들어 「溱洧」와 「桑中」이 음시가 아니라고 하지만 그것으로 주자의 그릇된 생각을 되돌릴 수는 없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여조겸의 생각은 朱子가 그의 잘못된 견해를 고착화 하는 데에 일조했을 뿐이라는 것이 방옥윤의 결론이다. 비판의 대상은 역시 주자였다.

V. ‘原始’ - 詩의 原意 규명, 細讀, 以意逆志, 寄託된 의미 발굴하기

방옥윤은 자신의 저서에 ‘原始’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는 작가가 처음 써냈을 때의 원래 의도를 찾아내서 작품의 의미를 제대로 규명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 할 수 있다. 그의 ‘原始’과정은 「溱洧」와 「桑中」의 해석에서 보듯 주로 작품의 원문 안에서

39) 方玉潤 『詩經原始/詩旨』 “案, 「溱洧」乃刺淫之作, 「桑中」實無題之詩. 凡皆所以諷世云耳, 非淫奔者比也. 蓋鄭·衛之風誠淫, 鄭·衛之詩則非淫, 何也? 夫使鄭風不淫, 則「溱洧」無所刺; 衛風不淫, 則「桑中」何所諷? 且「新臺」·「靜女」諸詩, 非衛淫風之實迹乎? 要知其風雖淫, 而所收之詩則皆刺淫作, 非淫奔詞, 不可以不辯也. 不然, 夫子論樂必曰「放鄭聲」, 豈有正樂時又反收淫詞乎? 蓋放者, 放其聲之淫者耳, 非盡鄭聲而悉放之也. 使盡鄭聲而悉放之, 則「緇衣」好賢, 「風雨」懷友諸詩, 均在所刪之列, 何以尚存爲經? 此亦明顯易見之事, 不知後儒何以嘵嘵不已如是. 呂氏雖稍見及於此, 而不能明白剖決, 止引荀卿中聲之說以證之, 則仍是狐疑不定, 未有以得乎中也. 故又啟朱晦翁反覆辯論, 而愈堅其一定不移之心. 此葩經一大厄時也, 豈不恨哉!”

답을 찾는 방식이었다. 작품을 ‘세밀하게 읽는 것’이야말로 그가 주로 사용했던 더없는 좋은 방안이었던 것이다. ‘표현된 글을 세밀하게 읊조려본 적이 없음을 드러낸다.’ 라고 하여 주자에게 면박을 주었던 사례에서 보듯 이는 상대방을 비평하는 힘 있는 도구이기도 하였다. 다음 「詩經原始自序」의 뒷부분에 방옥운 『시경』 읽기의 ‘原始’ 과정이 잘 드러나 있다.

나는 어려서부터 『시경』을 읽어 지금에 이르도록, 늘 책을 덮고 세 번 탄식하면서 그저 孔子가 음악을 바로잡으시던 때에 유감을 가질 뿐이었다. 최후로 姚際恒의 『詩經通論』을 얻어 읽었다. 역시 번거로운 정도로 다방면의 자료를 인용하여 증거를 대고 있는데, 『시서』와 『시접전』 양자 사이에서 변론을 진행한 부분은 꽤나 명확히 이해한 바가 있었다. 열개 중에 두셋 정도는 정확한 견해를 피력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분석과 결단이 정밀하지 못하였고, 立論이 온당하지 못하였다. 식견이 보잘것없었으며, 학력이 천박하였다. 의리는 적고 변론만 많았다. 역시 침을 놓아 고칠 수 없을 정도로 고질이 되어버린 깊은 병으로부터 일으켜 세우기에는 부족한 것이었다. 이에 나는 식견이 고루함을 헤아리지 않고, 반복해서 깊이 연구에 몰두하여 그 사이의 논의에 참여했다. 그 과정에서 옛사람이 시를 지은 본래의 뜻을 구하는데 힘썼을 뿐, 『시서』를 돌아보지 않았고, 『시접전』을 돌아보지 않았다. 역시 요제항의 『시경통론』도 돌아보지 않았다. 오직 올바른 것을 따르고 그릇된 것을 바로잡았을 뿐이다. 그렇게 이루어진 저작을 『原始』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는 대체로 시인이 시를 지은 처음의 뜻을 추구하고자 한 것이다. 비록 시인의 본래 의도가 어떠하였는지는 알지 못하더라도 글을 따라 뜻을 살피나가면, 옛사람이 시를 지은 전체적인 요지는 역시 이것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시경원시의 저술 동기 및 과정에 대한 술회이다. 저술의 결정적 계기는 姚際恒의 『詩經通論』이었고, 이후 ‘반복적인 깊은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시서』와 주자와 그리고 마지막엔 요제항까지 비판했으며, 그 과정에서 오직 바른 것은 채택하고 그릇된 것은 바로잡는 방식으로 일관했다고 하였다. 『詩經原始』의 「詩旨」에는 그가 작품을 ‘세밀하게 읽으며’ 작자의 원뜻을 찾아나가는 데에 준칙으로 삼을 만한 전인들의 제언을 인용하고 방옥운 자신의 의견을 달아놓았다.

우선 ‘以意逆志’이다. 이것은 “글자를 가지고 말을 해치지 말며, 말을 가지고 본래의 뜻을 해치지 말며, 읽는 자의 뜻을 가지고 작자의 의도를 헤아려야 본래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는 말로 일찍이 孟子가 『詩經』 독법으로 제시했던 이론이다. 당시로서는 전혀 새로운 것이 없는 이 가르침을 두고 방옥운은 이렇게 논평하고 있다.

‘詩辭(시에 표현된 글)’와 ‘文辭(문에 표현된 글)’는 현격히 다르다. 文辭는 대부분 명백한 표현으로 뜻이 드러나 이해하기 쉬워, 글을 대하게 되면 바로 드러내고자 하는 뜻을 이해하게 된다. 詩辭는 많은 경우 모호하고 은미하며 완곡하여 좀처럼 명백하게 말하려 들지 않으니, 혹 기탁하여 뜻을 붙여두기도 하고 혹 심한 표현으로 사람을 놀라게 하니, 모두가 작품이 드러내고자 하는 뜻이 있는 바가 아니다. 만약 그저 표현된 글에 구애되어 의미를 추구하고자 한다면, 본래의 뜻을 해치지 않는 경우는 드물어진다. 孟子의 이 말씀은 가히 『詩』를 잘 읽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예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뜻을 가지고 시인의 뜻을 헤아릴 수 있었던 자가 누구였는가?

‘기탁된 의미’를 탐색해내거나 과장된 표현에 가려진 진실을 밝혀내는 작업이 ‘以意逆志’의 운용으로 가능하며 자신의 독해법으로 삼았다는 이야기이다. 후미에 ‘예로부터 지금까지 ‘以意逆志’, 다시 말하여 자신의 뜻을 가지고 시인의 뜻을 헤아릴 수 있었던 자가 누구였던가?’라는 물음을 던져두었다. 이는 당시까지의 시경학자들이 ‘以意逆志’라는 기본 독법조차 실천하지 못했다는 질책이다. 질책의 대상에 주자가 빠져있으리라는 상상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기탁된 의미’에 대한 탐색과 관련해서 방옥윤은 明代 章潢(1526~1608)의 의견에 귀를 기울인다. 『詩旨』에 실어둔 章潢의 여러 문건 중에 두 개를 읽도록 한다.

[1]孟子는 「왕도정치를 한 성왕들의 자취가 사라지고 난 뒤에 시가 없어졌고, 시가 없어지고 난 뒤에 『春秋』가 지어졌다.」라 했는데, 이는 곧 『詩序』에서 「先王이 詩로써 인륜을 후하게 하고, 교화를 아름답게 하였으며 풍속을 개선하였다」라 한 말과 같다. 무릇 시인이 읊조리고 노래하는 것은 그 일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늘 사물에 기탁하여 뜻을 나타내고 사물에 감촉하여 흥을 일으키는 것이다. 비록 눈앞의 경물을 빌려서 자신의 슬프고 기쁜 정회를 펴낸다 하더라도, 붙여진 뜻은 넓고 은미하여 보통의 정감으로 헤아릴 수 있는 바가 아닌 것이 있는 것이다. 하물며 그 언어가 직설적이지만 의미는 완곡함에 있어서이겠나? 역시 완곡한 언어 가운데 뜻이 직설적인 경우도 있으며, 혹 언어가 은미한 것 같아도 뜻이 드러나 있기도 하고, 역시 분명히 드러나는 언어 가운데 뜻이 매우 은미한 경우가 있기도 하다. 그러므로 찬미하는 말이 원망하는 것 같기도 하고, 원망하는 말이 사모의 뜻을 간직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가르쳐 인도하는 말이 하소연 같기도 하고, 풍자하는 말이 칭찬 같기도 하지만, 요컨대, 하나같이 성정의 올바름에서 나오는 것이다.⁴⁰⁾

[2]『詩』를 읊조리고 『書』를 읽자면 마땅히 그 시대를 논해야 한다. 혹 시기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거나 혹 형편상 감히 말할 수 없는 경우라면, 늘 虛를 빌려 實로 삼거나 이것에 기탁하여 저 것을 형용하곤 하였다. 그런데 『詩』를 이야기하는 이들이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서 본디 완곡하고 함축적인 표현을 반대로 직설적인 표현으로 보거나, 본디 은미한 표현을 반대로 드러내서 노출시킨 표현으로 본다. 그 사이에 부녀자들의 말로 가탁한 모든 표현들을 바로 정말이라 믿어버리기도 하고, 游女나 靜女를 빌려 비유한 것들은 또 모두 淫詞로 지목하여, 작자의 뜻이 마침내 꼭 막혀 창달되지 못하도록 하였다. 대체로 자신의 생각으로 작자의 뜻을 헤아릴 수 없었기 때문에 건성건성 소리나 쫓아다니는 수준을 면하지 못하였고, 詩人의 뜻은 더 이상 남아있지 못하였다. 또 商과 賜와 같이 미처 말하지 않은 것까지 유추하여 알거나 ‘나를 일으켜주기를’ 어찌 바라겠는가?⁴¹⁾

40) 方玉潤 『詩經原始/詩旨』 “又(章潢『圖書編』)曰, 孟子云「王者之迹熄而『詩』亡, 卽『詩序』「先王以是厚人倫; 美教化, 移風俗」之謂也. 凡詩人之咏歌, 非質言其事也, 每託物表志, 感物起興. 雖假目前之景, 以發其悲喜之情; 而寓意淵微, 有非恆情所能億度之者. 況其言雖直, 而意則婉, 亦有婉言中而意則直也; 或其言若微, 而意則顯, 亦有顯言中而意甚微者. 故美言若黜, 怨言若慕, 誨言若愬, 諷言若譽. 要之, 一出於性情之正.”

41) 方玉潤 『詩經原始/詩旨』 “又(章潢『圖書編』)曰, 誦『詩』讀『書』當論其世, 或時所難言, 或勢不敢言, 每借虛以爲實, 託此以形彼. 而說『詩』者不悟其意, 本婉言也, 反直言之; 本託言也, 反質言之; 本微言也, 反顯言之. 中間凡託爲婦人女子之辭者, 卽信爲實言; 而假游女靜女爲比喻者, 又皆指爲淫詞, 使作者之志意咸晦塞而不達矣. 蓋惟不能以意逆志, 故不免逐響尋聲, 而詩人之旨無復存也. 又安望如商·賜告往知來, 以起予哉?”

[1]에서 章潢은 시를 선왕에 의한 정치의 산물로 본다. 이에 대상에 대한 표현과 묘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 시는 '하나같이 성정의 울바름에서 나오는 것'으로 귀결된다. [2]에서 章潢은 虛를 빌려 實로 삼거나 이것에 기탁하여 저것을 형용하지 않을 수 없는 시인의 상황에 대한 몰이해를 경계한다. 겉으로 드러난 내용 그대로를 사실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부녀의 말에 가탁한 표현들을 그대로 믿거나, 遊女나 靜女에 비유된 표현을 淫祠로 지목하는 등을 오류의 예로 지적하고 있다. 방옥윤은 章潢의 위 두 발언에 대하여 “배우는 사람들은 이를 반복하여 參究하여 살피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여 전적으로 찬동하는 입장임을 나타냈다.⁴²⁾

VI. '淫詩' 협의 詩 釋例 넷

본장에서는 '淫詩'로 규정된 시들 중에서 위에서 거론된 바 있는 「子衿」, 「褰裳」, 「桑中」, 「溱洧」에 대하여 방옥윤의 해석을 살펴보기로 한다.

6~1. 「子衿」

青青子衿,	푸르른 그대들의 옷깃
悠悠我心.	그리운 나의 마음 끝없도다
縱我不往,	비록 나는 못 가더라도
子寧不嗣音?	그대들은 어찌 소식도 없나
青青子佩,	그대들의 푸른 패옥 끈
悠悠我思.	나의 그리움 끝없도다
縱我不往,	비록 나는 못 가더라도
子寧不來?	그대들은 어찌 오지도 않나
挑兮達兮,	왔다 갔다 하면서
在城闕兮.	성 누각에 있도다
一日不見,	하루라도 못 보면
如三月兮.	석 달을 못 본 듯하도다

방옥윤은 『毛序』에서 “「子衿」은 學校가 폐지됨을 풍자한 시이다. 세상이 혼란해지면 學校의 정사가 다스려지지 않는다.”⁴³⁾라고 한 내용을 바꾸어 “학교가 廢해짐을 傷心한 시이다.”⁴⁴⁾라는 새로운 序를 안출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42) 方玉潤 『詩經原始/詩旨』 “案，前條見詩人立言多寄託微婉，故足以感人於無形；後條見後人說『詩』多膠滯鮮通，詎能得會心於言外。學者不可不反覆以參觀也。”

43) 『詩序』 “子衿，刺學校廢也。世亂則學校不修焉。”

44) 方玉潤 『詩經原始』 “子衿，傷學校廢也。”

『序』에서는 “학교가 폐해진 것을 풍자하는 시다.”고 하였다. 唐·宋·元·明의 여러 유학자들도 모두 그 설을 근본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집전』에서만은 오직 음란한 시라 여겼다. 『白鹿洞賦』에 이르러서는 또 “靑衿(유생)의 의문을 풀어 답한다.”고 하여, 『序』의 설을 그대로 썼는데 이는是非를 가리는 마음을 끝내 버려두기는 곤란했음을 의미한다. 姚際恆은 (“『小序』)에서 ‘학교가 폐해짐을 풍자한 시[刺學校廢]’라는 견해는 근거가 없다. 이 시는 아마도 친구를 그리워하는 시일 것이다. ‘비록 나는 못 가더라도[縱我不往]’라는 말을 음미해보면 마땅히 스승이 제자에게 한 말이다.”라고 하였다. 나 방옥윤의 생각으로는 『序』에서 한 말은 원래 틀리지는 않는데, 다만 “학교가 폐해짐을 풍자한 것이다.”라고 한 점이 시인의 語氣를 잃은 것이라 본다. 이것은 아마도 학교가 오랫동안 버려져 수리되지 못하자 배우는 자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어떤 자는 떠나가고 어떤 자는 머무르다보니 평일의 융성했던 것 같이 다시 모일 수 없는지라, 그래서 그 스승이 상심하여 이 시를 지어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이다. “학문의 도는 건문이 적고 학식이 비루한데도 스스로 안주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학교가 폐해진지 오래되었다. 나는 다시는 강의 자리에 가서 널리 가르칠 수 없다. 저 푸른 옷깃을 한 학생들을 생각해볼 적에, 평소 늘 나를 따랐으니 내 마음에 걸려있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내가 설사 나의 문하에서 공부했던 여러 제자들과 서로 조력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여러 제자들이 그들이 들은 바를 높이고 앎을 실천함에 각기 연원이 있으니, 날마다 내 앞으로 와서 나의 德音을 이을 것을 어찌 생각지 않겠는가? 그들이 오지 않는 까닭을 알았다. 나이가 여러 경박하고 방탕하여 날마다 登臨을 일삼아, 城에 오르기도 하고 樓閣에 오르기도 하며 마음껏 놀이에 빠져있으니, 그들의 뜻이 황폐해진 것이로다. 이것이 내가 근심과 걱정예 휩싸여 한때도 잊을 수 없는 까닭이니, 비록 하루 정도의 잠시 보지 못함일지라도 석 달 동안의 오랜 이별로 느껴질 뿐만이 아닌 것이다. 내가 내 문하에서 공부했던 제자들에 대한 마음이 과연 어떠한가?”⁴⁵⁾

주자는 ‘靑靑子衿’ ‘子寧不嗣音’ ‘靑靑子佩’ ‘子寧不來’의 ‘子’를 男子로 보고, ‘悠悠我心’ ‘縱我不往’ ‘悠悠我思’의 ‘我’를 女子 자신으로 보았다. 그리고 ‘嗣音’을 ‘소식을 계속하여 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작중 화자를 ‘남자를 사랑하는 여인’ 자신으로 보아, “이 시 또한 ‘음분’의 시이다.”라고 단정하였다.⁴⁶⁾ 그리고 『詩序辨說』에서 “의심의 여지는 상편(「風雨」)과 같다. 대체로 말뜻이 경박하니 學校에 연계하는 것은 더욱 그럴싸하지 못하다.”⁴⁷⁾라고 하였다. 상편 「風雨」에 대하여 「詩序」는 “君子를 그리워한 시이다. 난세에는 그 법도를 변치 않는 군자를 그리워한다.”⁴⁸⁾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주자는 『시서변설』에서 “『序』의 뜻은 매우 훌륭하지만, 시에 표현된 글을 살펴 보면 경박하고 무람없으니 어진 사람을 그리워하는 뜻이 아니다.”⁴⁹⁾라고 하였다.

45) 方玉潤 『詩經原始』 「子衿」 解語, “『序』謂「刺學校廢」 唐·宋·元·明諸儒, 皆主其說. 而『集傳』獨以爲淫詩. 迨至『白鹿洞賦』, 又云「廣靑衿之疑問」, 仍用『序』說, 是是非之心終難昧矣. 姚氏際恆以爲「刺學校無據, 疑亦思友之詩」 玩「縱我不往」之言, 當是師之于弟子也. 愚謂『序』言原未嘗錯, 特謂「刺學校」則失詩人語氣. 此蓋學校久廢不脩, 學者散處四方, 或去或留, 不能復聚如平日之盛, 故其師傷之而作是詩. 曰: 學問之道未可孤陋自安也, 今學校廢久矣, 予不能再赴講席而廣教, 思彼靑靑子衿者, 相從有素, 能無繫予心哉? 然予縱不能與諸及門互相助益, 諸及門尊聞行知, 各有淵源, 寧不思日來吾前, 以嗣吾德音耶? 其所以不來者, 吾知之矣: 年少佻達, 日事登臨, 或城或關, 遊縱自恣, 則其志荒矣. 此吾所以憂思, 刻不能忘, 則雖一日之暫違, 不啻三月之久別. 予之心念及門也爲何如哉?”

46) 朱子 『詩集傳』 “子, 男子也. … 我, 女子自我也. 嗣音, 繼續其聲問也. 此亦淫奔之詩.”

47) 『詩序辨說』 “疑同上篇. 蓋其詞意儂薄, 施之學校, 尤不相似也.”

48) 『毛序』 “「風雨」思君子也. 亂世則思君子不改其度焉.”

방옥윤은 『子衿』 해석은 ‘학교가 폐해진 것을 풍자한 시’라고 한 「詩序」의 토대 위에서 진행되었다. 주자가 『白鹿洞賦』에서 ‘靑衿’을 儒生의 의미로 사용한 사실은 이 시를 淫詩로 보고 있는 朱子 견해의 취약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리고 친구를 그리워하는 시일 가능성 및 ‘縱我不往’ 한 구절로부터 스승이 제자에 대하여 한 말이 라는 의견을 제시한 姚際恒의 해석에 주목하였다. 이에 방옥윤은 학교가 오래 버려져 예전의 학생들이 오지 않자 이에 대한 감개를 읊은 스승의 시로 해석해냈다.

6~2. 「褰裳」

『毛序』에는 “「褰裳」은 바로잡아주기를 생각한 시이다. 狂童이 제멋대로 행동하자 나라 사람들이 큰 나라가 자기 나라를 바로잡아주기를 바란 것이다.”라고 하였다.⁵⁰⁾ 방옥윤이 새로 안출한 序는 “유익한 친구에 의해 바로잡히기를 바란 시이다.”이다.⁵¹⁾ 시를 읽도록 한다. 번역은 논의의 편의를 고려하여 주자의 견해에 따랐다.

子惠思我,	네가 날 사랑하고 그리워하면
褰裳涉溱.	치마 걷고 溱水 건너겠다.
子不我思,	네가 날 그리워하지 않는다면
豈無他人.	어찌 다른 사람 없겠니?
狂童之狂也且.	미친 녀석 미친 행동!

子惠思我,	네가 날 사랑하고 그리워하면
褰裳涉洧.	치마 걷고 洧水를 건너겠다.
子不我思,	네가 날 그리워하지 않는다면
豈無他士.	어찌 다른 사내 없겠니?
狂童之狂也且.	미친 녀석 미친 행동!

방옥윤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小序』에서는 “바로잡아지기를 생각한 시이다.”라고 했으나, 바로잡아질 연고에 대하여는 말하지 않았다. 『大序』에서는 마침내 忽과 突이 나라를 놓고 다투는 사건으로 이를 채워 넣어, “미친 녀석[狂童]이 제멋대로 행동하니, 나라 사람들이 큰 나라가 자기 나라를 바로잡아주기를 바랐다.”라고 하였다. 이에 狂童이 突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고, 또 狂童이 祭仲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게 되었다. 『집전』에서는 “음란한 여인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한 시이다.”라고 하였는데, 모두 狂童을 狂且(미치광이)나 狡童(교활한 애)으로 오인한 것일 따름이다.⁵²⁾ 아이에 대하여 狡라 하였으니, 狡獪(교활)한 어린애임은 의심할 것이 없다. 狂人에 대하여 단지 狂이라 하였으니, 추악한 狂人임은 역시 의심할 것은 없다. 저 狂童의 경우라면 무슨

49) 『詩序辨說』 “序意甚美. 然考詩之詞, 輕佻狎暱, 非思賢之意也.”

50) 『毛序』 “褰裳, 思見正也. 狂童恣行, 國人思大國之正己也.”

51) 方玉潤 『詩經原始』 “褰裳, 思見正於益友也.”

52) 朱子 『詩集傳』 “狂童, 猶狂且狡童. … 淫女語其所私者曰, 子惠然而思我, 則將褰裳而涉溱以從子. 子不我思, 則豈無他人之可從而必於子哉? 狂童之狂也且, 亦諛之辭.”

교활함이 있겠으며, 또한 어떠한 狂이 우려할만한 것이겠는가? 孔子가 陳 땅에 계실 때 “돌아가자! 돌아가! 내 고장의 어린 학생들이 狂簡(狂簡 : 뜻은 높으나 일에 소략함)하여 (자신의 재주를) 가꾸어낼 줄을 모른다.”⁵³⁾ 라고 하였으니, 여기서의 狂童이란 재능은 있으나 가꾸어낼 줄을 모르는 後生을 일컫는 말이다. 가꾸어낼 줄을 모르기 때문에 가꾸어내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니, 이는 이름난 스승이나 유익한 친구가 하루라도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시인은 어진 친구가 자제들을 다듬어서 (인재를) 이룰 것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 그래서 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시를 주었다. “자제들이 그대에 의해 바로잡혀지길 기다린 지가 오래되었소. 그대는 은혜롭게 나를 생각하시어 와주시겠소? 溱水와 洧水가 비록 깊기는 하지만 치마를 한 번 걸으면 건널 수 있다오. 만약 뜻이 없으시다면, 어찌 보고서 선(善)을 도울 다른 사람이 없겠소? 또 어찌 솥들에 갈 듯 단련해서 인재를 이뤄줄 다른 선비가 없겠소? 그렇지만 子弟들 같은 광간함을 어찌할 바가 없다오. 날마다 그들의 狂簡함을 보지만 가꾸어줄 줄을 모른다오. 그대가 아니고서는 그들의 광간함을 바로잡아 줄 수가 없소. 그대는 삼가 사양하지 않음이 옳아요.” 지금까지 이 시에 대하여 이러한 해석은 없었다. 내가 문맥을 따르고 뜻을 살펴봄에 마땅히 이와 같아야만 될 따름이다. 그렇지 않다면 『左傳』에서 子太叔이 이 시를 노래하여 韓宣子를 전별했는데, 한선자가 그것을 탓함이 없을 수 있었겠는가?⁵⁴⁾

시에 보이는 ‘狂童’에 대하여 주자는 『鄭風』 「山有扶蘇」에 보이는 ‘狂且’와 ‘狡童’으로 해석하였다. 「山有扶蘇」에 대하여 주자는 음탕한 여자가 자신의 연애상대에게 “子都 같은 멋쟁이를 만나지 못하고 이런 미친놈(狂人)을 만난 것은 어찌된 것인가?”라 말하며 희롱하는 시라고 해석한 바 있다. 「치마를 걸어 올리고[褰裳]」에 대하여도 「山有扶蘇」와 마찬가지로 주자는 음탕한 여자가 자신의 연애 상대에게 희롱하는 말로 보았다. 그리고 『詩序辨說』에서 “이 序의 잘못은 아마도 子太叔과 韓宣子の 말에 근거한 것일 테지만 斷章取義한 뜻을 살피지 못한 것이다.”라고 하여, 『毛序』의 오류를 지적하였다. 子太叔과 韓宣子는 방옥윤의 해석 말미에도 보이는데, “『左傳』에서 子太叔이 이 시를 노래하여 韓宣子를 전별했는데, 한선자가 그것을 탓함이 없을 수 있었겠는가?”가 그것이다. 이 이야기는 『左傳·昭公 16년』의 ‘여름 4월’ 기사에 보인다. 晉平公 때 국정을 담당했던 正卿 韓起(韓宣子)가 鄭나라에 사신을 갔다가 귀국할 때 송별하는 자리에서 鄭의 여섯 명의 卿들에게 詩를 읊어보도록 한다. 이 자리에서 子太叔은 바로 이 「褰裳」을 읊었다. 이에 한선자는 “내가 지금 이곳에 와 있으니 어찌 감히 그대에게 다른 사람에게 가는 노고를 끼치겠습니까?”라고

53) 『論語·公冶長』 “子在陳曰，歸與歸與。吾黨之小子狂簡，斐然成章，不知所以裁之。”

54) 方玉潤 『詩經原始』 「褰裳」 解語, “『小序』曰「思見正也」, 而不言其見正之故。『大序』遂以忽·突爭國事實之, 曰「狂童恣行, 國人思大國之正己也」於是而有以狂童指突者, 亦有以狂童指祭仲者。『集傳』則云: 「淫女語其所私者」皆誤認狂童爲狂且·狡童耳。童而曰狡, 則爲狡獪小兒也無疑。狂僅曰狂, 則爲醜惡狂人也亦無疑。若夫狂童, 何狡之有? 亦何狂之足慮? 子在陳曰: 「歸與! 歸與! 吾黨之小子狂簡, 不知所以裁之」是狂童者, 後生有才而未知所裁之稱。以其不知所裁, 故思所以裁之, 此名師益友之未可以一日無也。詩人有望於良友之裁成其子弟也, 故遺之以詩曰: 子弟之待正於君也久矣, 子其惠然思我而來臨乎? 溱·洧雖深, 一褰裳可涉渡也。若其無意, 則豈無他人之相觀益善乎? 抑豈無他士之砥礪於成乎? 而無如子弟輩之狂, 日見其狂而未知所裁者, 非子不能正其狂也。子慎勿辭焉也可。自來此詩無是解者, 愚循文按義當如是耳。不然, 『左傳』子太叔之歌是什以餞韓宣子, 而宣子能無怪之耶?”

하였다. 이 말에 자태숙이 사례하자, 한선자는 이어서 “홀륭합니다. 그대가 (變心을警戒한) 이 詩를 말한 것이! 이 詩를 읊어 나를 깨우쳐주지 않았다면 어찌 두 나라가 끝까지 우호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善哉, 子之言是! 不有是事, 其能終乎?]”라고 말하였다.⁵⁵⁾ “그대가 날 그리워하지 않는다면, 어찌 다른 사내 없겠는가?”에는 분명 信義의 문제가 언급되고 있고, 자태숙과 한선자는 그러한 뜻으로 읊고 또 받아들였다. 방옥윤은 이 역사 전고를 통하여 「褻裳」이 바람난 여인의 농지거리일 수는 없다고 하였고, 주자는 그것이 바람난 여인의 희롱하는 얘기에 불과하지만 전체적인 의미와 관계없이 자신이 필요한 뜻만을 취하는 「斷章取義」의 예로 단정하였다.⁵⁶⁾ 양자의 해석에 대하여 시비와 우열을 가리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다시 방옥윤의 해석으로 돌아가자. 방옥윤 해석의 핵심어는 ‘狂童之狂’의 ‘狂’을 『論語』에 보이는 ‘狂簡’으로 파악한 것이다. 이렇게 하여 「褻裳」은 ‘유익한 친구에 의해 바로잡히기를 바란 시’, 즉 ‘뜻은 높으나 일에 소략한[狂簡] 자제를 위하여 명망 있는 친구에게 가르침을 부탁하는 시’가 되었다.

6~3. 「桑中」과 「溱洧」

「桑中」과 「溱洧」에 대하여는 많은 부분 본문에서 다루어졌다. 여기서는 두 편의 시에 대한 방옥윤의 해석 부분을 그대로 옮겨서 앞서 논의된 내용에 대한 참조 자료로 삼고자 한다.

6~3~1. 「桑中」

方玉潤 新序 : 음란함을 풍자한 시이다.⁵⁷⁾

『小序』에는 “淫奔을 풍자한 시이다[刺奔]”라고 하였다. 『大序』에는 “남녀가 서로 바람이 나서 世族으로서 직위에 있는 사람들조차 서로 아내와 첩을 훔쳐서 으스스한 곳에서 만나기로 기약하니, 정치가 문란하고 백성들이 흩어져서 막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였다. 『集傳』에서는 역시 그러한 견해를 중시하면서도 다만 음분한 사람이 직접 지은 것이라고 하였으니, 이는 『序』와 다른 점이다. 이는 대체로 주자(朱子)의 생각에 남을 풍자하는 시가 ‘나와 만나기로 약속한다[期我]’라고 하거나 ‘나를 맞이한다[要我]’, 또는 ‘나를 전송한다[送我]’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며, 또 스스로 그 자신을 풍자하는 대상 가운데로 빠뜨리는 것이 된다고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시에 표현된 글을 오독하여 아직 깊이 그 뜻을 탐색하지 않은 것이다. 시에서 읊은 것에 ‘새삼[唐]’이라 하고, ‘보리[麥]’라 하고, ‘순무[葑]’라 하였으니, 채집한 것이 한 가지가 아니다. ‘매읍의 시골[洧鄉]’이라 하고, ‘매읍의 북쪽[洧北]’이라 하고, ‘매읍의 동쪽[洧東]’이라 하였으니, 또 그 장소가 한 곳이 아니다. ‘강씨 댁 큰아씨[孟姜]’라 하고, ‘익씨 댁 큰아씨[孟弋]’라 하고, ‘용씨 댁 큰아씨[孟庸]’라 하

55) 『左傳·昭公十六年』 “夏四月, 鄭六卿餞宣子于郊, 宣子曰 二三君子請皆賦, 起亦以知鄭志. … 子大叔賦褻裳. 宣子曰, 起在此, 敢勤子至於他人乎? 子大叔拜, 宣子曰, 善哉! 子之言是. 不有是事, 其能終乎?”

56) 『左傳·襄公二十八年』 “賦『詩』斷章, 余取所求焉.”

57) 刺淫也.

였으니, 또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약속하고[期]’, ‘맞이하고[要]’, ‘전송하는[送]’ 경우에 반드시 ‘桑中’의 ‘上宮’과 ‘기수 가[淇上]’에서 하였다면, 어찌 한 사람이 한 때에 약속했는데 세 곳의 세 사람이 함께 이곳에 모였겠는가? 아니라면 세 사람이 세 때에 각기 약속할 바를 약속한 것인데 세 곳의 세 사람이 이곳에 모두 모인 것인가? 한 명의 사람이 세 때와 세 장소의 사람과 일에 대하여 읊었다면, 그 사람은 필시 몸을 나누어서 풍자하는 대상 가운데로 스스로를 빠뜨릴 수 없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오히려 그것을 일러 스스로 자기의 일을 읊은 것이라고 하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인가? 시를 읊는 사람이 이미 시 가운데의 사람이 아니라면, 시 가운데의 일 또한 시를 읊는 사람의 일이 아니고, 시를 읊은 사람은 시 중의 사람, 즉 작중인물을 대신하여 글을 지은 것에 불과하다. 게다가 시 가운데의 일 또한 이처럼 공교롭고 특이하게도, 똑같이 한 날 약속하고는 바로 한 장소에서 함께 모일 수는 없을 것이다. 이는 시 가운데의 인물 또한 정말로 그러한 사람이 있고 정말로 그러한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시인의 상상을 읊은 것일 따름이다. 채집한 물건은 이들 새삼[唐]과 보리[麥]와 순무[藟]를 벗어나지 않는다. 노년 지역은 이들 매읍의 시골[洙鄉]과 매읍의 북쪽[洙北]과 매읍의 동쪽[洙東]을 벗어나지 않는다. 설사 그리워한 사람이라 하여도 역시 이들 강씨 덕 큰아씨[孟姜]와 익씨 덕 큰아씨[孟弋]와 용씨 덕 큰아씨[孟庸]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이들 강씨 덕 큰아씨[孟姜]와 익씨 덕 큰아씨[孟弋]와 용씨 덕 큰아씨[孟庸]는 오히려 정신이 황홀하고 희미한 몽상 사이에 존재한다. 설사 이른바 나를 만나기로 약속하고[期我], 나를 맞이하고[要我], 나를 전송한다고[送我] 한 것조차도 또 어찌 정말로 천천히 왔다가 서서히 가버린 것이겠는가? 이것은 후세에 이른바 無題詩라는 것이다. 李商隱의 시에 ‘온다는 것은 빈말인가 가고는 발길 끊으셨네[來是空言去絕蹤]’라 하였고, 또 ‘畫樓 서편 桂堂 동편이었네[畫樓西畔桂堂東]’라 하였다. 만약 정말로 그 사람이 있었다면, 또 어찌 굳이 이러한 긴가민가하고 먼 듯 가까운 듯한 말을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의심하여 하나로 정하지 못하게 하였겠는가? 그렇다면 음란을 풍자하는 시인데, 역시 나라를 망하게 하는 소리[亡國之音]라고 이르는 것은 또 무슨 연고인가? 대저 소리는 마음으로부터 생겨나고, 시는 때에 따라 변하게 된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러한 마음이 있는 다음에 이러한 풍속을 이루며, 역시 반드시 이러한 풍속에 영향을 받은 다음에 이러한 시를 이루게 된다. 시는 풍속과 더불어 바뀌어 가고, 시대는 마음에 기초하여 융성하고 쇠퇴한다. 그 소리를 듣고서 정치의 득실을 아는데, 그 시를 읽고서 오히려 나라가 장차 망하게 될 것을 알지 못하겠는가? 예로부터 ‘나라를 망하게 하는 소리’로서 桑間과 濮上이 걸핏하면 함께 일컬어지곤 하였다. 꼭 이 시를 전적으로 지목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이 시는 역시 그러한 종류이다. 만약 空言이라 하여도 역시 세상의 명운과 관련이 있다면 聖人께서는 그것을 취하여 경계로 삼으셨으니, 정말로 한갓 음란한 자로 인하여 퍼낸 것일 뿐만이 아니다. 시를 지은 사람이라 하여도 역시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⁵⁸⁾

58) 方玉潤 『詩經原始』 「桑中」 解語, “『小序』謂「刺奔」. 『大序』謂「男女相奔, 至于世族在位相竊妻妾, 期于幽遠, 政散民流而不可止」. 『集傳』亦主其說, 而惟以爲奔者所自作, 則與『序』異. 蓋其意以爲刺人之詩不應曰「期我」·「要我」·「送我」, 又自陷其身於所刺之中. 是誤讀詩詞而未嘗深探其旨耳. 夫詩之所咏曰「唐」·曰「麥」·曰「藟」, 匪一其采矣. 曰「洙鄉」·曰「洙北」·曰「洙東」, 又匪一其地也. 曰「孟姜」·曰「孟弋」·曰「孟庸」, 更匪一其人. 而期·而要·而送之者, 則必於「桑中」之「上宮」與「淇上」, 豈一人一時所期, 而三地三人同會於此乎? 抑三人三時各期所期, 而三地三人畢集於此乎? 以一人而賦三時三地之人之事, 則其人必不能分身以自陷於所刺之中可知矣. 而猶謂之爲自咏其事也何哉? 賦詩之人既非詩中之人, 則詩中之事亦非賦詩人之事, 賦詩人不過代詩中人爲之辭耳. 且詩中事亦未必如是之巧且奇, 同期於一日之中, 卽同會於一席之地. 是詩中人亦非真有其人, 真有其事, 特賦詩人虛想. 所采之物, 不外此唐與麥與藟耳; 所遊之地, 不外此洙之鄉·洙之北·洙之東耳; 卽所思之人, 亦不外此姜之孟·弋之孟與庸之孟耳. 而此姜與弋與庸, 則尚在神靈恍惚·夢想依稀之際. 卽所謂期我·要我·送我, 又

6~3~2. 「溱洧」

方玉潤 新序 : 음란함을 풍자한 시다.⁵⁹⁾

『序』에서는 “어지러움을 풍자한 시이다. 전쟁이 그치지 않고 남녀가 서로 버리며 음란한 풍기가 크게 유행했다.”고 했다. 이 시와 『出其東門』은 정나라 遊覽 풍속의 盛行을 바로 서술한 것이거늘, 어찌 어지러움을 풍자한 것인가? 만일 전쟁이 그치지 않고 남녀가 서로 버린다면, 어찌 난초를 캐고 작약을 선물로 주는 일이 있겠는가? 그래서 『辯說』에서는 정나라 풍속의 음란함은 바로 教化와 氣質의 流傳됨이 이미 오래되어서이고 전쟁이 그치지 않은 것 때문이 아니라 남녀가 서로 버린 이후에야 그리된 것이라 여겼던 것이다. (이런 풀이는) 거의 사실에 가까울 것이다. 그러나 『집전』에서 또 “(이 시는) 바람난 자가 스스로 서술한 말”이라 한 것은 옳지 않다. 姚際恆은 말하길, “시 가운데 남자와 여자[士女]라는 글자가 몹시 많아, 남자와 여자가 自作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음란함을 풍자한 것은 음란한 시가 아니다. 이 시는 시인이 그 나라의 풍속이 이와 같음을 自敍한 것으로, 반드시 풍자를 말하지 아니해도 풍자는 저절로 그 안에 있게 되는 것이다. 정나라의 執政이 전성기일 때를 생각해 보면, 남자와 여자들은 반드시 유람했을 것이다. 꽃을 옮겨 심는 곳은 많았고 밭을 갈아 농사짓는 사람은 적었다. 날씨가 화창하고 좋은 시절의 아름다운 풍경을 만날 때마다 다뒤편을 서로 유람을 나가, 난초와 작약을 서로 선물하고 이를 美談으로 전파하며 남녀가 농지거리 하고 이를 편안히 여겨 부끄러울 줄 모르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그러면 그 풍속은 방탕으로 흘러 되돌아가기 어렵다. 시삼백 편 가운데 달리 一種이 되어, 후세 밖에 나가 유람하며 노는 아름다운 시의 기원을 연 것이다. 공자 성인께서 이 시를 보존하신 것은, 한 편으로는 음란한 시가 시작되는 바를 나타내려 했기 때문이며, 또 한 편으로는 음란한 풍속은 종식되기 어려움이 있음을 드러내어 장차 이 시로써 萬世의 경계로 삼으려 하셨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야 “음란한 鄭聲”은 성왕들에 의해 반드시 내쳐져야 하는데도 어찌서 존재하게 된 것이겠는가?⁶⁰⁾

豈真姍姍其來，冉冉而逝乎？此後世所謂無題詩也。李氏商隱詩云「來是空言去絕蹤」，又云「畫樓西畔桂堂東」，使真有其人在，則又何必爲此疑是疑非若遠若近之詞，使人猜疑莫定耶？然則刺淫之詩亦謂之亡國之音者，則又何故？夫音由心生，詩隨時變。故必有是心而後成是俗，亦必因是俗而後爲是詩。詩與風爲轉移，時因心爲隆替。聞其音而知政治之得失，讀其詩尚不知其國之將亡乎？古來亡國之音，桑間濮上動輒並稱，雖未必專指此詩，而此詩亦其類也。藉使空言亦關世運，聖人取以爲戒，固不徒爲淫者發，卽作詩者亦不可不深長思也。”

59) 刺淫也.

60) 方玉潤 『詩經原始』 「溱洧」 解語, “『序』謂「刺亂. 兵革不息, 男女相棄, 淫風大行」. 此詩及『出其東門』正敍鄭俗遊覽之盛, 何以刺亂? 使兵革不息, 男女相棄, 豈尚有采蘭贈勺事耶? 故『辯說』以爲鄭俗淫亂, 乃其風聲氣習流傳已久, 不爲兵革不息, 男女相棄而後然也. 庶幾近之矣. 然『集傳』又以爲「淫奔者自敍之詞」, 則非. 姚氏云: 「篇中士女字甚多, 非士與女所自作明矣」蓋刺淫, 非淫詩也. 此詩人自敍其國俗如此, 不必言刺而刺自在. 想鄭當國全盛時, 士女務爲遊觀. 蒔花地多, 耕稼人少. 每值風日融和, 良辰美景, 競相出遊, 以至蘭勺互贈, 播爲美談, 男女戲謔, 恬不知羞. 則其俗流蕩而難返

VII. 결어

여기까지 『詩經原始』를 앞에 두고 朱子の ‘淫詩說’에 대한 저자 方玉潤의 견해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해왔다. 방옥윤은 朱子の ‘淫詩說’을 비판하는 강력한 준거로서 孔子의 ‘思無邪’설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孔子의 ‘鄭聲淫’ 한 마디 말을 오독하여 『鄭風』의 詩들을 음란한 것으로 여긴 점이야말로 朱子가 범한 오류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라는 姚際恒의 견해에 동의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詩經』 삼백여 편의 시에 사특한 시란 한 편도 들어있지 않다는 ‘詩無邪’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한편 그는 기존 『詩序』, 즉 『毛序』에 대하여 비판을 가했다. 그의 비판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볼만하다. 기존의 『詩序』가 東漢의 衛宏에 의한 것이며 子夏가 저작했다는 종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토대 위에서, 다시 『詩經』의 시 각 편에 대하여 새로운 『詩序』를 안출해냈다. 이 과정에 그 나름의 『詩經』 세밀하게 읽기, 즉 詩의 原意를 규명하는 작업을 진행한 결과가 곧 『詩經原始』에 들어 있는 시 각 편에 대한 해석이다. ‘詩無達話’ 즉 『詩經』 詩에 대하여는 확실하고 적절한 해석이 없어 사람에게 따라 의견이 달라질 수밖에 없음은 방옥윤의 저작 『詩經原始』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개념일 것이다. 편폭의 제한으로 인하여 淫詩로 규정된 시만 해도 30수인데 본고에서 전편을 읽은 것은 4수에 그쳤다. 이에 방옥윤의 ‘시 읽기’의 양상을 제대로 드러내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이에 대하여는 방옥윤의 『詩經原始』 및 詩經學 전반에 대한 필자의 인식이 자라남을 기다려 다시 쓰고자 한다. 대신 방옥윤이 『詩經原始』에서 『鄭風』의 시들에 대한 해석을 마치고 전체적으로 마무리하는 글이 있어 결어로 갈음하고자 한다.

『鄭風』은 옛날에 음란하다고 지목되었는데, 이제 그것을 보면 대체로 다 君臣과 朋友, 師弟와 夫婦가 서로 사모하는 시들이다. 음란한 시에 속한 무리는 단지 「將仲子」와 「溱洧」의 한두 편뿐이다. 그러나 「將仲子」는 寓言이지, 진실한 정황이 아니다. 설사 그것이 진실이더라도 올곧은 여자 [貞女]가 남자를 사절하는 말이다. 「溱洧」는 음란함을 풍자한[刺淫] 것으로 음란한 자의 自作이 아니니, 어찌 음시라고 이를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聖人의 말씀이 그른 것인가? 나는 생각하기로, 『鄭風』은 실로 음란하였지만, 刪定을 거치면서 음란한 것은 걸러지고 아름다운 것만 남았으니, 이 때문에 『鄭風』에 아름다운 시들이 많아져 더는 옛날의 『鄭風』이 아니게 된 것이다. 그 중에서 「溱洧」 한 편만이 여전히 남아 刪削되지 않은 것은, 그것이 鄭나라의 實錄이었기 때문에 篇의 말미에 남겨두어 경계로 삼은 것일 따름이다. 이것이 이른바 ‘鄭聲을 내치는[放鄭聲]’ 것이었다. 宋나라 유학자들은 이를 살피지 않고서, 다만 “鄭聲은 음란하다[鄭聲淫]”는 한마디 말만을 읽고, 마침내 “내치다”는 放”자를 이해하지 못하고서 鄭나라 시에 속한 모든 시들을 다 음란한 것으로 배척하였다. 군신·봉우·사제부부가 서로 사모하는 일체의 시들을 桑中과 濮上의 예로 범주화해 버렸다. 그래서 마침내 한 때의 충신·현사·義夫·烈婦로 하여금 수천 수백 년간 (오명을 씌운) 모두 冤痛함을 머금고 억울함을 짊어지게 했어도, 누구도 이를 밝혀 씻어주는 사람이 없었다. 이

也。在三百篇中別爲一種，開後世治遊豔詩之祖。聖人存之，一以見淫詞所自始，一以見淫俗有難終，殆將以爲萬世戒。不然，「鄭聲淫」爲聖王所必放，而又何存乎？”

것이 어찌 한 때 한 사람의 아쉬움이겠는가? 나는 그래서 이를 특별히 나타낸 것이니, 차라니 후세의 학자들에게 죄를 얻을지언정 감히 전대의 성인을 억울하게 모함하지는 못하겠다. 세상의 『風』과 『雅』에 뜻을 가진 자들은 마땅히 나의 한 조각 고충을 살펴 알아야 할 것이다.⁶¹⁾



그림_1_詩無邪太極圖



그림_2_思無邪圖

61) 方玉潤『詩經原始』“以上鄭詩凡二十一篇。案：『鄭風』古目爲淫，今觀之，大抵皆君臣朋友·師弟夫婦互相思慕之詞。其類淫詩者，僅『將仲子』及『溱洧』二篇而已。然『將仲子』乃寓言，非真情也。即使其真，亦貞女謝男之詞。『溱洧』則刺淫，非淫者所自作，何得謂爲淫耶？然則聖言非歟？竊意『鄭風』實淫，但經刪定，淫者汰而美者存，故鄭多美詩，非復昔日之鄭矣。其『溱洧』一篇尚存不刪者，以其爲鄭實錄，存之篇末，用爲戒耳。此所謂「放鄭聲」也。宋儒不察，但讀「鄭聲淫」一語，遂不理會「放」字，凡屬鄭詩，悉斥爲淫。舉凡一切君臣朋友·師弟夫婦互相思慕之詞，無不以桑中·濮上之例例之。遂使一時忠臣賢士，義夫烈婦，悉含冤負屈於數千百載上，而無人昭雪之者。此豈一時一人之憾？愚故特爲標出，寧使得罪後儒，不敢冤誣前聖。世之有志『風』『雅』者，當能諒予一片苦衷也。”

「方玉潤의 『詩經原始』: ‘淫詩’ 혐의가 제기된 시글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김 영 식

(강릉원주대학교 인문학연구소 특별연구원)

1) 발표자는 《詩序》의 기록을 주희의 입장과는 서로 대척점에 있는 것으로 보았다.(<---“《詩序》에 대한 비판을 골간으로 하는 朱子の 詩經學은”) 즉 《詩序》의 말을 주희는 비판적으로 받아들여 자신의 논지를 전개했다는 것이다.

음란한 시에 대해, ‘자음설(刺淫說: 음란함을 풍자했다는 설)’(<---“공격의 창끝이 <시서>로 향하여 刺淫으로 해석하는 태도를 배격한다” “그러나 이러한 추론을 통하여 이 두 편의 시는 淫詩가 아니며 대신 음란한 풍속을 풍자하는 刺淫詩로 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을 주희는 ‘음시(淫詩)’라 하여 이 둘이 아주 상이한 것으로 발표자는 본 것 같은데, 어찌 보면 ‘자음설’이란 그 말 속에는 ‘음시’의 개념이 들어 있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고 ‘자음설(刺淫說)’과 ‘음시설(淫詩說)’ 논리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아닌, 즉 표현만을 달리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발표자는 이에 대해 ‘자음설’과 ‘음시설’을 좀 더 차별화하여 설명해 줄 수 있는가?

2) 공자가 말한 ‘放鄭聲’ ‘鄭聲淫’의 한 마디 말을 주희가 오독(誤讀)했다고 방옥윤이 비판했는데(<---“방옥윤은 朱子の ‘淫詩說’을 비판하는 강력한 준거로서”), (본 토론자가 보기에는) 방옥윤의 입장에서 논지를 전개한 발표자는 과연 주희가 오독했다고 여기는가?

정성(鄭聲) 곧 정나라의 시 가운데는 모든 시는 아닐지라도 (당시 사람의 관점에 선) 음란한 것이 있어 이것의 확산이나 유행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정성을 내칠’ 필요성을 느낀 것이고, 정성 중에는 (당시 입장에서) 음란하다고 여길 수 있는 시들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를 주희가 오독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3) ①공자가 시경을 편찬할 때, (주희 입장에서는) ‘음시’라고 여겨질 수 있는 시들을

공자는 왜 편입시켰다고 발표자는 생각하는가?

②혹시 오늘날 우리가 흔히 윤리·도덕적으로 생각하는 ‘淫’이라는 개념이 공자 당시의 개념과 동일한 것이라 생각하는가?

(유학이 漢代에 통치이념으로 확립되기 이전에는, 남녀 간의 관계를 그리 엄격하게 보지 않았다. 또한 ‘淫’을 ‘음란하다’고 풀이하기도 하지만, 원래 ‘淫’이란 ‘정도에 지나치는 것’을 말하는 경우가 많다. 뒤에 붙인 뜻풀이를 볼 것)(공자는 <關雎>를 평할 때 “樂而不淫, 哀而不傷”이라 했는데, 발표자는 이것을 “즐거워하여도 음란에 이르지 않고, 슬퍼하여도 상함에 이르지 않을 수 있다.”고 번역했으나, 이것을 “(관저의 시는 읽으면) 즐겁기는 하나 (그 즐거움이 너무) 지나치지 않고, 슬프기는 하나 마음 상하게까지 하지는 않는다.”로 본 토론자는 번역하는 입장이다.(본 토론자는 <關雎> 시를 읽을 때마다 ‘음란하다’고 느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참고 : 한어대사전에서의 淫의 뜻풀이

1. 浸淫; 浸漬. 2. 潤澤. 3. 過度, 無節制; 濫.

4) 각주 17 바로 다음에 “욕망이 노래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고 했는데, 논리적 비약이 아닌가? 사람이 시를 짓게 되는 것은 각주 17에서 밝혔듯이, 사람은 하늘이 부여한 성(性), 곧 天性이 사물에 감촉돼 움직여지고, 천성적 욕구가 있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말하게 되는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영탄하게 되고 이것이 시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지, 욕망이 노래를 만들어 낸다는 것은 여러 단계를 건너뛴 지나친 비약으로 보인다. 원인을 가까운 것에서 찾아야지, 먼 곳에 있는 것을 끌어다 대면 어떤 논리든 만들어내지 못할까?

5) 각주 19번 다음의 문장 : “주자는 이렇게 시경을 근엄한 위대한 교과서로 추켜올렸던 漢唐詩學의 공고한 성채를 허물고 서민의 애환이 담긴 일반 사람의 문학텍스트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남녀가 서로 읊고 노래한 시’들을 주자는 淫奔之詩 또는 淫亂之詩로 지목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앞뒤의 문맥이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로 모순되는 느낌까지 있다.

시경이 일반 사람의 문학텍스트로서의 가능성이 있다면, 어찌 남녀가 서로 읊고 노래한 것을 음분시(바람나서 함께 달아나는 내용의 시)나 음란시(음란한 성격의 시)로 지목을 할까? 일반 사람의 자연스런 감정으로 이해해야지!

6) ○각주 41의 끝부분 번역을 가다듬었으면 좋겠다.

즉 “又安望如商、賜告往知來, 以起予哉?”을 “또 商과 賜와 같이 미처 말하지 않

은 것까지 유추하여 알거나 ‘나를 일으켜주기를’ 어찌 바라겠는가?”로 번역했다.
--->“또 商(자하)과 賜(자공)와 같이 지난 것을 알려주면 미래의 것을 알아서 나를 일으켜 주길 어찌 바라겠는가?” (*논어의 회사후소繪事後素와 관련된 일화 : 공자가 자하 곧 상과 이야기 하던 중 하나를 알려주니 자하가 더욱 깨달아 진보된 질문을 하자, 공자가 칭찬하여 나를 일으키는 자는 자하로다 라고 하였다.)

○ 각주 35의 끝부분은, 원문은 번역을 하지도 않았고, 또 대충 넘겼는데, 잘 번역하면 보다 좋은 논문이 될 수 있을 것이다.(인용한 이 부분은 일부가 번역이 아니고, 발표자의 생각을 기록한 것이 잘못 끼어든 것으로 보인다.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문제된 부분: 仲尼錄之, 所以謹世變之始也. 借使仲尼之前, 雅、鄭果嘗龐雜, 自衛反魯正樂之時, 所當正者, 無大於此矣. 《論語》答顏子之問, 乃孔子治天下之大綱也. 於鄭聲亟欲放之, 豈有刪詩示萬世, 反收鄭聲以備六藝乎?)

공자가<桑中>과<溱洧>류의 변질된 세태를 반영한 시들을《詩》에 편입시킨 까닭은 세태변화의 시초에 신중을 기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이는<桑中>과<溱洧>류의 시가 淫詩가 아니라는 사실을 반증하며, 아울러 아악과 속악이 별도로 존재했다는 가설을 방증하는 자료가 된다. 이에 정성(鄭聲)을 몰아내는데 골몰했던 공자가《詩》를 산정(刪定)하면서 정성(鄭聲)을 거두어 경전에 편입시킬 리는 없는 것이다)

흠에게서 자아 형이상학*

백 승 환

(강릉원주대학교 철학과 교수)

목 차

- I. 문제설정 및 진행방식
- II. 흠의 긍정적-건설적 태도: 자아 형이상학의 확립
- III. 흠의 부정적-파괴적 태도: 자아 형이상학의 전복
- IV. 흠의 자아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제언

I. 문제설정 및 진행방식

필자는 이 논문을 통해 흠의 자아 형이상학을 의미 있게 재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오늘날의 철학 사조에서 자아 논의는 흔히 이론적 자아와 실천적 자아의 상호 구별을 통한 접근에 기초하고 있으며, 흠도 『인성론』 1권 논의와 2권 및 3권 논의의 상호 구별을 통해 현대적 논의 방식에 일정 정도 부합하는 자아론을 제시한다. 하지만 본고의 관심은 자아의 두 측면을 망라해서 살피는 데 놓이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흠이 실천적 자아 논의에 앞서 주목하는 이론적 자아 논의를 검토하는 데 본고는 관심을 갖는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필자는 『인성론』 2권 및 3권 논의보다 1권 논의에 초점을 맞춘다. 물론 이러한 논설 방식이 결코 실천적 자아 논의가 이론적 자아 논의에 비해 철학적 중요성이 떨어짐을 뜻하지는 않는다. 대다수의 연구가들에 동조해서 필자도 단지 이론적 자아 논의가 올바르게 정립된 후에야 비로소 실천적 자아 논의도 이룩될 수 있다고 굳게 믿을 뿐인 것이다.¹⁾ 자아의 두 측면을 엄밀하게 분리해서

* 본 발표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에 기초한 것이며 (NRF-2020S1A5B5A17088939), <인간·환경·미래> 2021, 제27호, 43-71면에 게재되었음을 밝힘.

1) 물론 이러한 해석적 흐름을 따르지 않는 예외도 있기는 하다. 예외로 간주될 대표적 경우의 하나로 특히 McIntyre (1989), pp. 545-557 참조. 대체로 매킨타이어의 해석은 무엇보다 자아의 두 측면을 일단 인정한 후에 이론적 자아 논의에 내재하는 다양한 결함들이 실천적 자아 논의에 의해 어떻게 보완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과정에 집중한다.

검토하는 것이 쉽지도 않고 애당초 분리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는 비판이 얼마든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흠은 그러한 구별을 일단 전제로 삼고서 자아 논의를 전개하고 있음을 기억하자. 흠은 우리가 이어서 살필 1권, 4부, 6절 논의에서 특히 아래처럼 주장하면서 자신의 이와 같은 생각을 표면화한다.

(…) 이 물음에 대답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사유 내지 상상력에 관련되는 인격의 동일성과 우리가 우리들 자신에게 취하는 관심이나 우리의 정념들에 관련되는 인격의 동일성을 구별해야 한다. 첫 번째의 것은 현재의 우리 주제이다. (T 1.4.6.5, SBN 253-254)²⁾

자아 논의를 흠이 인격의 동일성 문제로 새기는 가운데, 사유 내지 상상력에 의한 것과 관심 내지 정념들에 의한 것을 구분해서 두 차원으로 인격의 동일성을 나눈 채로 탐구하는 그의 기획에 우리는 무엇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구분된 이 두 차원은 각각 이론적 자아와 실천적 자아의 상호 구별에 대응하는 것이다. 그리고 인용문의 마지막 문장에서 흠이 자아 논의에 대한 검토를 위해 가장 우선해서 자신의 시야에 두려는 자아로 실천적 자아가 아니라 이론적 자아를 명시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후자가 전자를 정초하는 일종의 형이상학적 기초를 마련한다는 사실을 그가 이미 깨닫고 있음은 꽤 분명해 보인다. 본고는 이러한 밑그림을 바탕으로 두고서 흠의 이론적 자아론을 살핀다. 필자는 흠의 논의가 경험론에 충실하면서도 동시에 경험만으로는 해명되지 않는 형이상학적 사유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려움에 빠진다고 여기며, 그러한 어려움은 흠이 부록에서 자신이 앞서 살핀 자아 문제를 다시금 곱씹어 살피는 상황에 이르러서 극대화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이제 필자는 흠의 논의가 지닌 실천적 함의와는 별개로 그의 이론적 자아론은 실패에 이른다고 믿는다. 부록의 부정적 논조는 이와 같은 필자의 회의적 결론을 떠받치는 결정적 근거로 작용한다. 하지만 정작 해명될 필요가 있는 내용은 자아 문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흠이 견지해 왔던 태도가 부록에서 불현듯 전복되는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다. 필자는 전거를 살펴서 나름의 흠적 진단을 내린 후에 그것에 대한 적절한 처방을 꾀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논의는 세 단계로 나뉘어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첫째, 일단 가장 먼저, 흠이 처음으로 자아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인성론』 1권, 4부, 6절 논의를 구체적으로 살핀다. 논의의 핵심은 시간이 흐르는 중에도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존재를 지속하는 자아 같은 것이 실제로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인데, 흠은 그러한 존재의 가

2) 이하 논의에서 흠의 『인성론』을 인용할 경우 알파벳 ‘T’ 다음에 권/부/절/단 순서로 적은 후에 L. A. Selby-Bigge & P. H. Nidditch 판본의 쪽수 역시 알파벳 ‘SBN’ 다음에 관례적으로 적는다. 영어 원문의 국문 번역은 이미 출간된 국역본을 대체로 참조하되 필요에 따라서 때때로 수정한다. 보다 상세한 정보를 위해 본고의 말미에 덧붙인 참고문헌 서지사항들을 참조하라.

정을 일종의 허구로 본다. 그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라 불리든 간에 그것은 경험 중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의 시각에서 보면, 우리는 서로서로 분리된 지각들의 존재만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지만 의식할 수조차 없는 자연적 성벽에 이끌려서 그것들에 불가항력적으로 동일성을 부여한다. 그리고 이러한 결실이 바로 그가 자아 문제를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로 보면서 이내 자아에 대한 그릇된 회의주의적 태도를 교정해서 올바른 자연주의적 태도로 계도하는 철학적 성취인 것이다. 여기에서 그는 요구되는 교정 규칙으로 관념 연합의 원리를 든다.

둘째, 필자는 관념 연합의 원리에 의해 제시된 자아 문제에 대한 상기의 흠의 답변이 부록에서 완전히 부정되는 모습에 주목한다. 분명히 자아 문제에 대한 자신의 설명 방식에 흠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술의 끝자락에 굳이 부록까지 덧붙여서 불평하는 것이겠다. 하지만 부록에서 표출된 흠의 불만이 적용되는 대상이 자아 문제에만 전적으로 국한되는 상황은 이채로운 듯하다. 일단 관념들 간의 관계만을 검토해서 지식의 필연성을 확증하는 논의는 관심 밖에 두고서 결국 믿음의 개연성을 따지는 현재 논의만을 살핀다고 할지라도, 관념 연합의 원리를 통해 자아 문제가 해명될 때와 비슷하게 해명된 여타 사실의 문제들인 외부 사물 문제 및 인과 필연성 문제 등에는 그가 별도로 표출하는 불만이 없으니 말이다. 필자는 이러한 상황은 흠이 뒤늦게 자아 문제의 특수성을 부록에서나마 자각하기 때문에 불거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요약해 보건대, 자아 문제의 해결은 관념 연합의 원리에 의한 서로서로 분리된 지각들의 결합 이상의 무언가를 (형이상학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흠이 인격의 동일성 절에서 견지한 자아 문제에 대한 입장은 부록에서 비판에 부쳐지는 것이다. 필자는 일련의 학자들이 취하는 해석들을 빠르게 일괄한 후에 이러한 (형이상학적) 요구에 대한 흠의 가장 적절한 응답 방식을 결국 칸트적 사유를 따르는 데서 찾으려 할 것이다.

셋째, 필자는 자아 문제의 해결을 위해 언급된 흠의 칸트화를 역설하는 과정에서 특히 포겔린이 명시한 부록을 해석하는 두 기준들을 보완해서 수용한다. 필자의 이러한 노력은 포겔린의 해석과는 차별화된 해석을 제시하는 결실에 이르는데, 그 이유는 그가 명시한 두 기준들에 필자는 흠이 뒤늦게 부록에서 자각한 자아 문제의 특수성을 부가 기준으로 더해 문제되는 상황을 엄밀히 살피기 때문이다. 흠이 필자의 해석을 좇아서 칸트적 통찰을 자아 문제의 해결을 위한 단서로 삼으면, 그의 자아 형이상학이 보다 쉽게 정립될 뿐만 아니라 『인성론』 1권 논의 이후 2권 및 3권 논의에서 계속해서 탐구되는 일상의 구체적 자아를 정립하는 데도 그는 보다 수월함을 느낄 것이라고 필자는 주장하면서 본고를 끝맺는다.

Ⅱ. 흠의 긍정적-건설적 태도: 자아 형이상학의 확립

흠은 회의주의 기획과 자연주의 기획의 상호 긴장과 협력을 통해 사실의 문제들 중의 하나인 자아 문제를 『인성론』 1권, 4부, 6절 논의에서 본격적으로 탐구한다. 특히 이 절은 1권, 4부, 5절 논의(“영혼의 비물질성에 관하여”)에서 비판된 전통적 자아 개념이 어떻게 관념 연합의 원리에 의해 수정되는 것인지를 논구하는 데 대부분의 지면을 할애한다.

우리가 경험을 통해 실제로 관찰 가능한 것만을 모든 학문의 평가 척도로 삼고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단순히 침묵해야 한다는 흠의 인간학에 기초한 가르침은³⁾ 그가 이제 자아 문제를 검토하는 때에도 계속해서 지켜지는 모습이다. 흠은 다음과 같이 운을 떼면서 자아 문제를 바라보는 그의 인간학적 시각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우리가 매우 명료하고 확정적이라고 우쭐대는 물질 관념과 외부 대상들에 관한 모든 체계들에서 우리는 그러한 모순들과 난점들을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모호하고 불확실하다고 상상하기 쉬운 마음의 본성과 내적 지각들에 관한 모든 가정들에서 더더욱 거대한 난점들과 모순들이 있을 것이라고 자연스레 예상할 것이다. (...) 비록 지적 세계가 무한한 모호함들에 연루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자연[세계]에서 발견한 것들과 같은 모순들 때문에 난처하게 되지는 않는다. 그것에 관해서 알려진 것은 그것 자체와 일치한다. 그리고 [그것에 관해서] 알려지지 않은 것은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채로 두는 것에 우리는 만족해야 한다. (T 1.4.5.1, SBN 232 [질은 글씨 필자 강조])

흠은 우리의 지적 능력에 의해 알려지는 내용만을 전적으로 수용하며, 설령 어떤 것이 우리의 지적 능력을 벗어나서 알려지지 않더라도 결코 무지를 책망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오히려 그에게는 그것을 알 수 없음을 우리가 자각한 후에 현재의 무지 상태 자체를 있는 그대로 긍정하는 자세를 기르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자세가 인간학에 기초한 가르침에 충실한 올바른 철학을 이끈다. 위의 인용문의 첫 문장에서 그는 (다양한 사실의 문제들 가운데) 모름지기 외적 대상에 대해 탐구하는 외부 사물 문제보다 내적 대상에 대해 탐구하는 자아 문제가 훨씬 까다로울 것이라고 예상한다. 물론 이후 바로 우리의 지적 능력이 유한함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전자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후자의 문제도 인간학에 기초한 가르침에 따라서 해결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흠은 종래에 많은 철학자들이 자아 개념을 쉽게 실체로 간주해 온 데 반감을 보인

3) 흠이 『인성론』을 통해 세우고자 하는 인간학은 인간의 유한성에 기초한 지극히 겸손한 학문이다: “인간학은 여타 학문들을 위한 유일하게 견고한 토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학 자체에 부여할 수 있는 그 유일하게 견고한 토대는 경험과 관찰에 놓여야만 한다.” (T Introduction 7, SBN xvi)

다. 그러한 실체의 의미가 곧 물질적인 것으로 새겨지든 정신적인 것으로 새겨지든 상관 없이, 그에게는 지각들의 담지자로 가정되는 실체 개념을 끌어들이 자아를 설명하는 시도가 결국 인간학에 기초한 가르침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판명되기 때문에 거부된다.⁴⁾ 특히 흠은 그의 중요한 형이상학적 가정들 중의 하나인 지각들이 서로서로 분리되어 존재하는 상황을 일단 당연한 사실로 인정한 후에 지각들에 독립해서 그것들을 떠받치는 실체로 가정되는 자아를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T 1.4.5.5-6, SBN 233-234) 그가 이처럼 생각하는 이유는 어떤 개념이든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 관념이 항상 그것에 상응하는 인상으로부터 도출되는 과정이 경험으로부터 실질적으로 관찰되어야만 하지만⁵⁾ 우리는 자아 관념에 상응할 자아 인상을 어디서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경험 중에 드러나는 것은 한낱 지각들의 존재일 뿐이므로, 그의 시각에서 보면, 우리는 지각들만을 살피고 지각들을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탐구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에 만족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따라서 흠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떤 철학자들은 우리가 매 순간에 우리의 자아(our SELF)라고 부르는 것을 친밀하게 의식하고, 그것의 현존과 그것의 현존상의 지속을 느끼며, 그것의 완벽한 동일성과 단순성이 논증을 통한 명증성 이상으로 확실하다고 상상한다. (...) 불행히도 이 모든 긍정적 주장들은 그것들을 변호하는 바로 그 경험에 반대되며, 여기에서 설명된 방식에 따라서는 우리는 어떤 자아 관념도 갖지 못한다. 왜냐하면, 어떤 인상으로부터 이 관념이 도출될 수 있겠는가? 명백한 모순이나 불합리 없이 이 물음에 대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아 관념을 명료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것은 필연적으로 대입되어야만 하는 물음이다. 각각의 실질적 관념을 낳는 것은 어떤 하나의 인상이어야만 한다. 하지만 자아(self)나 인격(person)은 어떤 하나의 인상이 아니며, 우리의 몇몇 인상들과 관념들이 그것을 지시하는 것으로 가정된 것이다. 만약 어떤 인상이 자아 관념을 낳는다면, 그 인상은 우리의 삶의 전 과정을 통해 불변적으로 똑같은 것으로 지속해야 한다. 자아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존재한다고 가정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항상적이고 불변하는 인상은 없다. 고통과 쾌락, 슬픔과 기쁨, 정념들과 감각들은 서로서로 잇따르며 결코 모두가 동일한 시간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인상들 중의 어떤 것으로부터 또는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자아 관념은 유래할 수 없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러한 관념은 없다. (T 1.4.6.1-2, SBN 251-252)

흠은 우리가 매 순간에 어떤 자아라고 불릴 법한 것을 경험하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 그의 시각에서 보면, 그러한 생각은 어디까지나 허구일 뿐이며, 서로서로 분리된 지각들이 우리가 경험에서 실제로 마주치는 것의 전부이다. 철학자들이 자아 개념에 흔히 귀속시키는 “동일성(identity)”과 “단순성(simplicity)”이 그의 제1 철학 원리인

4) 여기에서 흠이 고려하는 실체는 아리스토텔레스적 의미로, 즉, 우유적 속성들을 담지하는 기체로 새겨지는 것이 합당하다. 그가 실체성과 우유성을 서로 대비시켜 서술하는 부분은 이러한 해석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근거이다. 특히 T 1.4.5.5, SBN 233 참조.

5) 우리의 의식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지각들은 힘과 생생함의 정도 차이에 따라 인상들과 관념들로 구분될 수 있으며, 후자는 전자를 재현하고, 복사하며, 반영한다. 특히 T 1.1.1.1-3, SBN 7-8 참조.

복사 원리에 의해 해명될 수 없다는 사실이 그의 비판의 주요 내용을 이룬다. 보다 자세히 말해, 만약 자아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것의 성격에 부합하는 동일성과 단순성을 지녀야만, 즉, 자아 관념을 낳은 것으로 가정된 동일성과 단순성을 지니는 인상이 경험으로부터 실질적으로 관찰되어야만 하지만 그러한 인상은 없기 때문에 그는 자연스레 자아 개념을 한낱 허구로 여기는 것이다. 위의 인용문의 마지막 문장에서 그는 애당초 자아 관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까지 말하면서 자아 문제가 복사 원리에 의해 해명되지 않는 상황에 처해 있음을 거듭 강조한다.

훤은 복사 원리를 통해 모든 지각들이 인상들과 관념들로 구분됨을 일단 전제한 후에 그러한 구분에 입각해서 예외 없이 문제들을 살피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복사 원리에 의해 해명될 수 없다는 것은 그에게 심각한 도전이 된다. 다른 아닌 자아 문제가 바로 이제 그를 여기에서 궁지로 내모는 문제인데,⁶⁾ 필자는 위의 인용문을 단계별로 살피기에 앞서 논의의 명료화를 위한 차원에서 자아 개념으로 그가 이해하는 동일성과 단순성이 무엇인지 먼저 설명할 필요성을 느낀다.

필자가 보기에, 1권, 4부, 6절 논의에서나 부록 논의에서나 훤의 자아 문제에 대한 주된 관심은 단순성이 아니라 동일성에 놓인다. 하지만 그는 자주 자아 개념에 대한 설명을 위해 동일성에 더해 단순성도 함께 언급한다. 물론 훤 또한 양자의 의미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듯해 보이며, 그러한 병렬적 언급이 단순히 그가 양자의 의미를 혼동한 데서 기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분명한 듯하다. 그는 그저 서로 구별되는 양자의 유사성을 염두에 두는 가운데 검토되는 동일성 논의에 기초해서 단순성 논의에 대한 검토도 아울러 성취되는 일종의 일거양득 효과를 기대할 뿐이다.⁷⁾ 물론 그러한 효과가 실제로 기대될 만한 것인지는 적어도 필자에게 그다지 명확해 보이지 않지만 말이다.

훤은 동일성 개념을 그가 정의하는 일차원적 시간성에 기초해서 이해한다. 다시 말해,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 미래로 계속해서 흐르며,⁸⁾ 동일성은 시간의 흐름을 견뎌내는 어떤 지속적인 것에 부여되는 관계를 의미한다. (특히 T 1.1.5.4, SBN 14 참조) 이에 반해, 단순성은 시간상 고정된 한 순간에 지속적 존재자가 보이는 일종의 단면적 특성을 뜻하며, 개릿은 이것을 지속적 존재자가 지니는 성격으로 가정된 동일성을 우리가 일순간에 포착할 때 드러나는 성격으로 이해해서 곧 단순성을 동일성의 순간적-찰나적 유사체로 간주한다.⁹⁾ 보다 자세히 말해, 단순성은 고정된 어떤 시점

6) 앞서서도 이미 말했듯이, 외부 사물 문제 및 인과 필연성 문제 등에서도 유사한 난점이 발생한다.

7) 훤은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자신의 이러한 생각을 드러낸다: “인간의 마음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동일성 개념에 관한 최초의 근원과 불확실성에 대해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거의 또는 아무런 변경 없이 단순성 개념에 확장될 것이다.” (T 1.4.6.22, SBN 263)

8) 훤은 시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시간의 부분들 각각은 서로가 서로를 잇따르며 그것들 중의 어떤 것들도 서로서로 근접해 있더라도 결코 동시에 있을 수 없다는 점은 시간[개념]에서 분리 불가능한 내지 어떤 의미로는 그것의 본질을 이루는 속성이다.” (T 1.2.2.4, SBN 31)

에 서로서로 분리된 지각들이 한 데 결합되기 때문에 불거지는 상황을 특징짓기 위한 개념이며, 동일성은 시간이 흐르는 중에도 서로서로 분리된 지각들이 한 데 결합되기 때문에 불거지는 상황을 특징짓기 위한 개념이다.

이처럼 엄밀하게 따지면, 양자는 유사성은 띠지만 서로 의미가 동일하지 않아서 상호 구별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자아 문제에 대한 해결을 기도하는 흠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동일성이 됐든 단순성이 됐든 아니면 여타 무엇이 됐든 그러한 개념들은 애당초 모두 경험적 토대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한낱 허구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에게는 다른 무엇보다 복사 원리가 주어진 개념의 정당성 판별을 위한 척도가 되는 셈인데, 자아가 실제로 있다면 특히 우리는 지속성을 지니는 자아 관념을 으레 가질 것이고 또한 그것을 야기한 것으로 간주되는 지속성을 지니는 자아 인상도 가져야만 하겠지만, 지각들은 예외 없이 순간순간 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 어떤 지속적 자아 인상도 지속적 자아 관념도 가질 수 없다.

이러한 흠의 사유는 자아 문제를 (‘복합 인상-복합 관념’ 구도로 살펴야만 하지만) ‘단순 인상-단순 관념’ 구도로 보기 때문에 자아 관념에 일대일로 대응할 자아 인상을 경험에서 헛되이 찾는 오류를 범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지만, 복사 원리의 적용에 그는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 원리의 적용 대상인 지각들이 (단순하든 복합하든) 어떠한 간에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 (특히 T 1.1.1.6, SBN 4 참조) 이처럼 흠의 제1 철학 원리인 복사 원리는 자아 문제에 대해 검토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자아 문제가 복사 원리에 의해 적절하게 소명되지 않더라도 그 원리의 정당성은 결코 의심받지 않는다. 복사 원리는 어떤 경우에도 포기되지 않으므로 흠은 이제 자아 개념을 허구로 판결한 후에 어떻게 그 개념이 한낱 허구적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꽤 자연스레 생겨나는 것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그가 허구적 자아 개념을 대체하기 위해 고려하는 내용은 서로서로 분리된 지각들의 한 데 뭉침(“다발(bundle) 내지 집합(collection)”)이다. (1.4.6.4, SBN 252) 지각들의 다발로 규명되는 허구적 자아 개념은 극장과의 유비에서 한층 분명하게 논설된다.

마음은 거기에서 각각의 지각들이 잇따라서 나타나는, 즉, 지나가고, 다시 지나가며, 미끄러져 사라지고, 무한히 다양한 자태들과 상황들로 뒤섞이는 일종의 극장이다. 우리가 그 단순성과 동일성을 상상하려 드는 자연적 성향이 어떻든 간에 실상 거기[마음]에는 어떤 한 순간 단순성도 없고, [이후] 다른 순간[까지] 출몰 이어지는] 동일성도 없다. 극장의 비교가 우리를 오도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것들은 마음을 형성하는 잇따르는 지각들일 뿐이며, 우리는 이 장면들이 재현되는 장소에 대해서나 그것을 구성하는 소재들에 대해서나 최소한의 어렵פות한 개념조차 갖지 못한다. (T 1.4.6.4, SBN 253)

종래에 현학자들이 아무런 비판 없이 수용한 자아 개념은 허구에 지나지 않기 때

9) Garrett (1981), pp. 337-338 참조.

문에 흠은 이제 그의 경험주의 노선에 들어맞는 대안을 제시한다. 그는 우리가 실상 경험을 통해 서로서로 분리된 지각들이 시간의 흐름 중에서 잇따르는 것만을 관찰할 수 있다고 믿는다. 물론 이러한 흠의 사유도 이누카이가 보듯이, 지각들의 상호적 분리성과 시간의 일차원성 등과 같은 몇몇 비경험적 (형이상학적) 가정들에 의해 지지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¹⁰⁾ 하지만 그는 적어도 경험에서 실제로 관찰되는 것이상을 말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서로서로 잇따르는 지각들을 부단히 담지하는 비경험적 존재자로 자아를 상정하는 기존의 철학자들보다 엄밀하게 인간학에 기초한 가르침을 준수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흠이 인용문에서 줄곧 서로서로 분리된 지각들의 잇따름을 강조하는 이유는 모름지기 그가 여기에서 마음으로 표현되는 자아 개념의 허구성을 폭로하면서 동일성을 염두에 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시간이 흐름을 견디는 존재자로 가정된 자아의 지속성은, 양선이의 표현을 빌리자면, 지각들 간의 순전한 관계 문제를 그것들을 담지하는 존재자로 가정된 자아의 동일성 문제로 착각하는 것에 불과하다.¹¹⁾ 흠은 이러한 상황을 극장에 빗대 설명하면서 해설을 구체화한다. 영화가 상영되는 극장의 스크린에 다양한 장면들이 끝없이 나타났다가 곧 사라지듯이, 서로서로 분리된 지각들도 시간의 흐름에 맞게 잇따를 뿐이다. 그리고 그는 그러한 스크린이 실제로 무엇인지 우리가 모르듯이, 우리는 서로서로 분리된 지각들의 잇따름을 부단히 담지하는 존재자로 가정된 자아도 결코 알 길이 없다고 믿는다. 따라서 그는 자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실체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¹²⁾

지각들의 다발만이 경험에서 실제로 관찰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코 자아에 대한 믿음을 접지 않는 상황은 이제 흠으로 하여금 그러한 허구적 믿음의 근원을 밝히는 작업에 관심을 쏟도록 이끈다. 그리고 작업의 결실은 곧 그것의 근원이 관념 연합의 원리를 추동하는 힘인 상상력에 있음을 명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기에서 언급되는 상상력은 무작위적 임의성을 뜻하는 힘이 아니다. 특히 흠이 관념 연합의 원리를 이끄는 힘으로 규정하는 상상력은 그것이 지닌 자유가 제약받는 능력이다: 상상력은 관념들이 서로서로 유사하고, 시공간적 근접성을 지니면서, 인과로 놓이는 경우에 그것들의 연합을 추동하며, 이 명시된 세 (유사-근접-인과) 요건들이 미충족되는 경우라면 그러한 연합의 추동에 제약이 따른다.¹³⁾ 이처럼 상상력은

10) 필자는 대체로 이러한 이누카이의 생각에 동조하는 편이다. 그녀에 따르면, 흠의 경험론은 몇몇 비경험적 (형이상학적) 가정들을 묵시적으로 수용하는 철학 체계이기 때문에 애당초 자신이 설정한 인간학의 기초에 어긋나며, 이처럼 결합 있는 흠의 철학 체계는 제임스의 (경험주의적) 심리학에 의해 충실히 보완될 필요가 있다. Inukai (2012), pp. 384-387 참조.

11) 양선이 (2012), p. 309 참조.

12) 김효명은 흠이 극장에 빗대 설명하는 방식이 자칫 다양한 장면들이 거기에서 펼쳐지는 스크린의 존재를 애당초 인정하는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흠이 꾀하는 자아 개념 전복을 위해서 자아를 양파에 비유해서 전자를 이루는 지각들과 후자를 이루는 껍질들을 일대일 대응의 구도에서 파악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김효명 (2001), pp. 301-302 참조.

제약된 자유에 기초하는 힘이며, 그러한 특성이 자아에 대한 우리의 허구적 믿음을 가능하게 하는 원천이다.

(...) 지성은 대상들 사이의 그 어떤 실재적 연관도 결코 관찰하지 못하며, 엄밀히 검토해 보자면, 심지어 원인과 결과의 통합도 관념들의 습관적 연합으로 해소된다. (...) 동일성은 실제로 이 서로 다른 지각들에 속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들을 함께 통합하는 것도 아니며,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 반성할 때 상상력에서 그것들의 관념들을 통합하기 때문에 그것들에 귀속시킨 순전히 성질인 것이다. 이제 관념들에 상상력에서의 합일을 부여하는 유일한 성질들은 앞서 언급된 이 세 가지의 관계들 뿐이다. (...) 그러므로 유사, 근접, 인과 이 세 관계들 중의 어떤 것에 동일성은 의존한다. 그리고 이 관계들의 본질은 바로 그것들이 관념들의 쉬운 전이를 낳는 데서 성립하는 것이므로, 앞서 설명된 원리들에 따라서, 인격의 동일성에 대해 우리가 갖는 개념들은 일련의 연합된 관념들에 걸맞게 사유가 매끄럽고 끊임없이 진행되는 데서 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점이 귀결된다. (T 1.4.6.16, SBN 259-260)

자아 문제는 결국 서로서로 잇따르는 지각들을 계속해서 담지하는 존재자를 상정해서 그러한 존재자에 우리가 동일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불거지는 문제이다.

하지만 흠은 우리의 이와 같은 동일성 부여 성향을 거부 불가능한 심적 본성으로 본다. 상상력은 우리로 하여금 자연스레 애당초 서로서로 분리된 지각들이 시간의 흐르는 중에도 지속하는 자아에 담지되어 연결되는 것이라고 믿도록 추동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믿음을 지니도록 우리가 이끌리게 되는 것은 결국 태생적으로 설계된 불가피한 조건에 기인하므로(그러한 믿음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흠은 그것의 발생 원천에 대해 꼼꼼히 따지는 작업이 인간학에 기초한 가르침에 잘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단 이러한 작업 수행을 위해 지성의 역할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자연 안에 있는 어떤 의미 있는 관계도 곧 그것의 지식 판별 능력을 통해서 결코 포착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상력이 지각들 간의 관계를 믿음 차원으로 해명하는 과정에서 고려된다. 앞서서도 이미 한 차례 말했듯이, 상상력은 그것의 힘으로 작동되는 관념 연합의 원리를 통해 서로서로 잇따르는 지각들이 일정하게 묶이도록 규제하고, 순전히 지각들의 다발일 뿐인 것을 우리는 자아라고 부르며, 자아는 시간의 흐름을 견뎌내는 존재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동일성을 부여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일하게 남는 문제는 우리가 마음 내지 사유하는 인격의 잇따르는 현존을 고려할 때 어떤 관계들에 의해 우리의 이 끊임없이 진행되는 사유가 산출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유사와 인과에 [대해 검토하는 데] 국한해야 하고, 현재의 [자아 문제] 경우에 거의 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근접을 제외해야 함은 분명하다. (T 1.4.6.17, SBN 260)

흠이 자아 문제의 해결을 위해 관념 연합의 원리를 살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해 보인다. 하지만 놀랄 만한 사실은 그가 유사나 인과와 달리 근접은 현재의 문제되는 상

13) 흠의 상상력 개념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보이는 서술로 특히 김효명 (2001), pp. 102-107 참조.

황에 그다지 관련 있지 않다고 보는 탓에 그것을 따로 떼어 검토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나머지 둘을 별도로 검토하는 일은 반면에 그에게 기꺼이 감내될 필요가 있는 수고이다.

흠은 우리가 무슨 이유로 자아 문제를 위해 이렇게 선별적 관념 연합의 원리를 취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인용문의 언명은 그저 생소할 따름이다. 필자는 오히려 근접 역시 고려될 때만이 지각들이 시간적으로나 또 공간적으로나 연합되는 것도 수월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배제된 채로 유사와 인과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은 자칫 잘못하면 무리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하튼 흠은 근접에 대한 별도의 논설 없이 먼저 유사에 대해 검토한 후에 인과도 마저 살핀다. 흠의 유사에 대한 설명은 무리 없이 상식에 호소하는 내용으로 일관된다. 그의 주장의 핵심은 특히 유사는 우리의 기억 능력이 전제될 경우에만 가능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의 시각에서 보면, 자아는 없으며 우리가 그것에 부여하는 동일성도 실체 없는 신기루일 뿐이지만, 우리는 기억에 의존해서 과거와 현재의 지각들이 유사하다고 생각하고 그것들 사이에 별 차이가 없다고 간주하는 데로 나아가기 때문에 유사성을 동일성으로 착각하는 것이다.¹⁴⁾ 하지만 여기에서 문제는 흠의 이와 같은 사유가 일종의 선결 문제 요구의 오류를 암암리에 범한다는 사실이다. 우리의 기억 능력에 의존해서 우리가 과거의 지각들을 지금 떠올리는 가운데 그것들과 현재의 지각들 사이의 유사성에 기초해서 자아의 동일성을 이룩하는 상황은 애당초 그러한 기억을 지니는 자아가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도록) 존재함이 가정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¹⁵⁾ 이러한 오류와는 별개로, 흠의 인과에 대한 설명은 이제 유사를 통해 설명되기 힘든 상황을 고려해서 나름의 보완적 논증을 제시한다. 과거와 현재의 지각들 사이에서 보이는 유사성이 우리가 그것들을 담지하는 존재자인 자아를 상정해서 그것의 동일성까지 보도록 이끌지만, 우리는 과거의 여러 지각들 모두를 지금 기억을 통해 즉시 떠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흠은 유사의 원리를 보완하는 인과의 원리를 이제 새롭게 소개하는 것이다. 그는 공화국에 빗대 설명하면서 논설을 구체화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 공화국을 이루는 개개의 성원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해서 생성소멸하는 과정에도 성원들 사이의 연대 덕분에 꾸준히 공화국이 유지 가능한 것과 비슷하게, 설령 과거의 지각들 모두가 지금 소환될 수 없어서 그것들과 현재의 지각들 사이의 유사성이 파악될 수 없다고 할지라도 (과거-현재) 지각들은 결국 인과로 묶이기 때문에 쉽게 연합될 수 있으며 바로 지각들의 이러한 연합으로 인해 우리는 자아의 동일성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이다.¹⁶⁾ 하지만 즉각 제기될 법한

14) 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 기억은 동일성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지각들 간의 유사 관계를 산출함으로써 그것을 산출하는 데에도 기여한다.” (T 1.4.6.18, SBN 261)

15) 필자의 비판과 거의 유사한 비판을 스트라우드 또한 제기하고 있다. Stroud (1977), p. 124 참조.

16) 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 인간 마음에 대한 참된 생각은 그것을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의해

반론은 흠이 여기에서 애지중지하며 매달리는 인과 개념도 그에 따르면 결국 상상력에 의한 허구인데, (특히 T 1.3.14.20-22, SBN 165-166 참조) 이처럼 허구적 인과에 기대 허구적 자아에 이르는, 즉, 일종의 이중적 허구에 기초한 설명 방식이 과연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 하는 것이다. 물론 아직까지 흠은 상술된 유사의 원리와 인과의 원리에 대체로 큰 만족을 보이는 듯하다.

필자는 지금까지 충실히 흠이 자아 문제의 해결을 위해 관념 연합의 원리에 기대 보인 논증의 요체를 살폈다. 이제 필자는 절을 바꾸어서 흠이 부록에서 펼치는 논의를 살핀다.

Ⅲ. 흠의 부정적-파괴적 태도: 자아 형이상학의 전복

관념 연합의 원리에 기대 크게 문제 없이 해결된 듯했던 자아 문제는 부록에서 다시금 소환되어 의심에 부처진다. 이러한 예상치 못한 상황은 우리를 어려움에 처하게 만드는데, 그 이유는 흠 자신이 왜 인격의 동일성 절에서 견지된 입장에 이제 문제가 있다고 여기는 것인지를 결코 밝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그저 아무런 맥락 없이 불만을 토로할 뿐이다. 따라서 부록에서 표출된 그의 불평을 야기한 원인을 규명하는 작업은 적절한 해석을 찾아 제시하는 과정으로 수렴된다. 일단 흠은 우선 아래처럼 자신의 처참한 심정을 고백한다.

그러나 *인격의 동일성*에 관한 절을 좀 더 엄밀히 재검토해 보았을 때 나는 나 스스로가 다음과 같은 미로에 빠져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고백건대, 나는 어떻게 나의 이전 견해들을 수정할지 모르겠고, 어떻게 그것들을 일관되게 만들지도 모르겠다. (T Appendix 10, SBN 633)

여기에서 우리는 흠이 자신의 몇몇 철학적 장치들을 자아 문제의 해결에 이르기 위해 사용하는 데서 불거지는 난점을 직시하고 있음을 즉각 눈치챌 수 있지만, 그가 정확히 어떤 난점을 직시하고 있는 것인지를 짚어 보이기는 힘들다. 아마도 우리는 좀 더 유용한 단서를 이어지는 그의 다음과 같은 주장에서 이윽고 발견할 것이다.

요컨대, 내가 일관되게 만들 수도 없고, 나의 능력으로 그것들 중에서 하나를 포기할 수 없는 두 원리들이 있다. 즉, [하나] *우리의 모든 구분된 지각들은 구분된 존재들이라는 원리*이고, [나머지 다른 하나는] *마음은 결코 구분된 존재들 사이의 어떤 실재적 연관도 지각하지 못한다는 원리*이다. (T Appendix 21, SBN 636)

묵여 함께 결속되고, 서로서로 상호적으로 산출하며, 파괴하고, 영향을 미치며, 변경시키는 서로 다른 지각들과 서로 다른 현존들의 체계로 고려하는 것이다.” (T 1.4.6.19, SBN 261)

앞서 흠이 암시한 난점을 이제 위의 인용문의 내용에 기초해서 살펴보면 그것의 요체는 곧 언급된 두 포기되기 어려운 원리들이 일관되게 조화를 이루도록 만드는 것인 듯하다.

하지만 문맥상 지극히 자연스러워 보이는 이러한 해석이 설득력을 얻기는 다소 힘들다. 필자가 보기에, 여기에서 흠이 고려하는 두 원리들은 원래 서로 충돌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양자의 상호 일관성 여부를 우려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양자는 흠의 경험주의 체계 전체를 지탱하는 비경험적 형이상학적 가정들일 따름인데, 구분되는 것은 무엇이든 구별 가능하고, 구별 가능한 것은 무엇이든 분리 가능하며, 지각들은 서로 서로 구분되고 서로 서로 구별되니 분리된 존재들이라는 생각을 첫째 원리가 드러내는 것이고,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마땅히 서로 서로 분리된 지각들 사이에는 어떤 실재적 연관도 없으니 마음이 실제로 있지도 않은 무언가를 지각할 수 있다고 상정하는 것 자체부터가 이미 잘못이라는 생각을 둘째 원리가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다.¹⁷⁾ 흠의 생각과는 달리, 이처럼 양자는 일관되게 조화를 이루며, 이 두 원리들이 한 데 사실상 어우러지기 때문에 그의 철학이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따라서 부록에서 흠이 토로하는 불만은 이 두 원리들에 더해 결국 그가 다른 무언가를 함께 고려해서 그것들 모두를 상충하지 않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중에 불거지는 난점으로 여기는 것이 아마도 이치에 맞을 듯하다. 이러한 해석이 옳다면, 이제 중요한 문제는 흠이 이른바 제3의 것으로 고려하는 원리가 실제로 무엇인지 밝히는 것이다.

하지만 흠은 우리가 제3의 원리를 어렵게나마 알아챌 수 있도록 도울 법한 단서를 전혀 남기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특정하는 작업은 그야말로 적절한 해석을 제시하는 문제가 될 뿐이다. 이처럼 흥미롭지만 난해한 자아 문제의 해결을 위해 그동안 매우 다양한 해석들이 흠 학자들에 의해 앞다투어 창의적으로 제시됐고, 유사한 경향이 여전히 지금에 이르기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몇몇 학자들은 이와 같은 해석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범주화해 검토하면서 기존의 텍스트 이해에 깊이를 더한다. 특히 엘리스는 여러 해석들을 크게 네 개의 그룹으로 묶어서 그것들을 차례대로 논구하는 가운데 이내 세 번째 그룹의 입장에 공감을 보이는 반면에,¹⁸⁾ 양선이는 그의 분류법을 그대로 따르기는 하지만 네 그룹의 입장들이 지니는 결함들을 데넷의 철학적 인공지능 통찰을 바탕으로 메워서 더 진일보한 해석을 제시하는 데 궁극적 관심을 보인다.¹⁹⁾

17) 필자의 사유 흐름은 스트라우드의 해석과 큰 틀에서 궤를 같이 한다. Stroud (1977), p. 128 참조.

18) 엘리스의 네 그룹들을 간략히 살펴보면, [제1 그룹] 지각들이 한 데 귀속되는 주체 판별 문제, [제2 그룹] 시간의 흐름 중에도 경험에서 실제로 지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자아 확증 문제, [제3 그룹] 자아 개념의 발생이 복사 원리와 관념 연합의 원리에 의해 불충분한 방식으로 해명되는 문제, [제4 그룹] 인격의 동일성 절에서 두드러진 내용의 일부가 실제로 흠이 『인성론』 다른 곳들에서 펼친 주장들과 서로 충돌해서 체계 내적 일관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문제 상황으로 대충 정리된다. 보다 상세한 설명을 위해, Ellis (2006), pp. 195-231 참조.

필자 또한 여러 차별화된 해석상의 입장들을 비판적으로 종합하고 절충하며 지양해서 부록의 불만이 향하는 대상에 대한 필자 나름의 해석을 다음 절에서 곧장 제시할 것이다. 앞서서도 이미 말했듯이, 논의의 추상성 때문에 부록에서 표출된 흠의 불평이 거의 해석적 다툼 이상의 것이 되지 못하는 탓에, 필자가 절을 바꾸어서 보일 해석도 어느 정도는 결국 필자의 해석적 취향이 반영된 결과라는 사실이 인정될 필요가 있겠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인정이 필자의 해석은 이후 순전히 자의적으로 펼쳐질 것임을 암시하지는 않는다. 무엇보다 논의의 완결성을 위해 필자가 제시할 해석에 대해 대강이나마 추려 그려보자면, 그것은 앨리스가 분류한 네 그룹들의 입장들을 대체로 두루두루 아우르며, 앞서 이미 흠이 유사와 인과에 의한 관념 연합의 원리에 기대 인격의 동일성 절을 살피는 과정에서 직면한 문제들을 만족스럽게 해결하는 양상을 띠는 것이다.

특히 아래의 흠의 주장은 필자로 하여금 필자가 염두에 두고 있는 해석이 결국 그가 부록에서 불현듯 표출하는 불평을 완화시킬 가장 적절한 것이라는 확신에 이르도록 만든다.

만약 지각들이 어떤 단순하고 개별적인 것에 내재해 있거나, 마음이 그것들 사이의 어떤 실재적 연관을 지각한다면, 이 [자아의 동일성을 밝히는] 경우에는 아무런 어려움도 없을 것이다. (T Appendix 21, SBN 636)

우리는 앞서 흠이 결코 포기될 수 없는 두 원리들로 명시한 구체적 내용이 여기에서 약간 다른 방식으로 다시금 서술되고 있는 모습을 본다. 하지만 이 서술은, 필자가 보기에, 기존의 내용이 똑같이 대우명제 형식의 동치성에 기대 그저 반복되는 차원을 넘어선다.²⁰⁾ 보다 자세히 말해, 흠은 이제 자아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곧 지각들이 그것에 내속하는 존재자를 실제로 보이거나, 마음이 지각들이 실제로 연결되는 상황을 지각함을 보이는 데 있다고 믿는 것이며, 그것에 걸맞게 자신의 철학 체계도 수정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다.²¹⁾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것이 절대로 극복될 수 없다고 표명하려 드는 것은 아니다. [위의 어려움에 대해] 좀 더 성숙한 반성을 한다면, 아마도 다른 사람들 또는 나 자신이 저 모순들을 화해시킬 어떤 가설을 발견할 것이다. (T Appendix 21, SBN 636)

원래 원문의 한 단락에 함께 포함된 내용이지만 필자가 단계별로 논의를 분석하려는 의도에서 임의로 구분지은 이 연이은 두 인용문을 통해 흠은 자신의 철학 체계 내에서는 자아 문제의 해결이 쉽지 않음을 고백함과 동시에 보다 성숙한 반성을 꾀

19) Yang (2018), pp. 182-193 참조.

20) 대우명제 형식의 동치성은 논리학에서 흔히 다음과 같이 기호화된다: $(P \supset Q) \equiv (\sim Q \supset \sim P)$

21) 바꿔 말해, 흠은 자아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제 경험론을 넘어서는 철학적 방법론을 시도한다.

하는 존재에 의해 그러한 어려움이 아마도 장래에는 누그러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여기에서 흄이 고려하는 보다 성숙한 반성을 피하는 존재는 이전 인용문에 서술된 내용을 기초로 삼아서 추측건대, 결코 포기될 수 없지만 함께 결합되면 상충한다고 이야기된 두 원리들의 조화를 모색해서 나름의 방안을 마련한 존재일 것이다. 그는 그러한 이상적 존재가 자기 자신일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고 본다. 누가 됐든 간에 상관 없이 여기에서 어디까지나 문제되는 것은 어떻게 그러한 이상적 존재는 양자를 함께 붙들면서도 상충 없이 어우러지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필자는 결국 자아 문제의 해결에 이르기 위해 흄이 실제로 서로서로 분리된 지각들이 그것에 내속하는 자아를 보이려고 했으며, 그러한 자아를 기체로서 지각들의 기저에 두고서 그것들 사이의 실재적 연관을 지각하는 마음을 정당화하고자 했다고 주장한다. 바꿔 말해, 필자의 해석이 옳다면, 결코 포기될 수 없지만 함께 결합되면 일관성이 깨진다고 이야기된 두 원리들은 곧 하나라도 폐기됨이 없이 정당하게 유지된다. 우리는 굳이 흄이 다소 조심성 있게 문제에 접근한 나머지 양자 가운데 신중히 하나만을 골라서 취하려는 경향을 그대로 좇을 필요는 없다. 양자가 모두 인정될 수 있다면 오히려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할 것이며, 필자의 이와 같은 해석은 결국 흄이 칸트적 통찰을 수용하는 데 이르도록 이끌어 나간다. 필자는 흄이 부록에 이르러서야 마침내 자아 문제가 외부 사물 문제 및 인과 필연성 문제 등과는 구별되는 특수성을 지닌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불만을 보인다고 여기며, 그러한 불만의 결실은 바로 그가 그의 경험론의 한계를 넘어서서 칸트적 색채로 자신의 철학 체계를 물들이는 시도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논의의 핵심을 강조해서 정리해 보건대, 자아 문제의 해결은 관념 연합의 원리에 의한 서로서로 분리된 지각들의 결합 이상의 무언가를 (형이상학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흄이 인격의 동일성 절에서 견지한 자아 문제에 대한 입장은 부록에서 비판에 부쳐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러한 (형이상학적) 요구는 자아 문제의 경우에만 구체적으로 불거지는 것이며, 바로 이와 같은 사정 때문에 관념 연합의 원리에 기대 아무런 문제 없이 해결될 뿐인 여타 사실의 문제들과 철학적 위상을 달리하는 문제로 흄은 이제 자아 문제를 취급하는 것이다. 하지만 불행한 사정은 자아 문제의 특수성 인정에 그의 철학 체계 전체를 전복시킬 위험을 수반하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필자는 이러한 불행을 모든 경험론적 체계가 일종의 숙명처럼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여기며, 가장 엄밀하게 끝까지 경험주의 기초를 중시했던 흄이 그것의 심각성을 자각한 것은 지극한 순리라고 믿는다. 아래의 내용을 그는 말하니 말이다.

내가 나의 반성을 나 자신을 향해 돌렸을 때, 나는 어떤 하나 이상의 지각 없이는 이 자아를 결코 지각할 수 없으며, 그 지각들 외의 어떤 것도 결코 지각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자아를 형성하는 것은 이것들의 합성이다. (T Appendix 15, SBN 634)

IV. 흠의 자아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제언

필자는 자아 문제의 해결에 이르기 위해 언급된 흠의 칸트화를 살피는 과정에서 특히 포겔린이 명시한 『인성론』 부록을 해석하는 두 기준들을 보완해서 수용한다.

포겔린도 필자처럼 대다수의 흠 학자들의 견해에 동조해서, 부록에 담긴 흠의 논의는 매우 난해하고, 비명시적이며, 압축적인 탓에, 그것의 독해는 텍스트 해설이 아니라 애당초 적절하게 조직화된 해석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올바른 텍스트 이해를 기초로 삼아서 가장 적절한 해석을 이룩하기 위해 무엇보다 그에게 중요한 일은 이상적 해석 판별 기준을 마련해서 그것에 부합하는 해석을 보이는 것이다. 그는 두 개의 기준들을 잇따라 내미는데, 그의 관점에서 보면, 이상적 해석은 마땅히 양자 모두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 나는 흠의 인격의 동일성에 관한 우려들에 대한 그 어떤 적합한 설명이든 두 최소한의 기준들을 충족시킬 것이라고 생각한다. (a) 흠이 적어도 고려되는 논점들을 의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전거가 있어야만 하고, (b) 지적된 비일관성과 어려움은 흠 자신에게 일정한 중요성을 지니는 원리들에 관련되는 것이어야만 한다.²²⁾

적어도 필자의 눈에는 포겔린의 두 기준들이 지극히 당연해 보이며, 실제로 그 누구도 그것들을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부록에서 표출된 흠의 불평에 대한 진단으로 어떤 해석이 의미가 있다면 마땅히 그러한 해석은 흠이 문제되는 상황을 분명히 의식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전거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어야만 하며, 표면화된 복잡다단한 난점들은 그의 철학 체계 내적 원리들에 관련되면서도 그것들에 의해 해명되지 않는 탓에 불거지는 것들로 간주되니 말이다. 하지만 필자는 여전히 이 둘 말고도 고려될 것이 있다고 믿는다. 앞서 III절에서 이미 언급된 자아 문제의 여타 사실의 문제들과 차별화된 특수성이 필자가 고려하는 부가적 기준이다. 포겔린의 두 기준들에 더해 우리는 이제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줄곧 흠은 외부 세계 문제 및 인과 필연성 문제 등에서는 자신의 답변에 만족을 보이다가 부록에 이르러서 크게 돌변하여 불현듯 관념 연합의 원리에 의한 자아 문제의 해결에 강한 의구심을 품는 것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필자는 대체로 스트라우드가 우리의 목적에 부합하는 단서를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자아 문제를 제외한 여타 사실의 문제들은 단순히 서로서로 분리된 지각들의 연합에만 관련될 뿐이지만, 자아 문제는 지각들의 연합에 더해 그러한 연합이 귀속될 시공간적 주체를 특정하는 것에도 관련된다.²³⁾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관념 연합의 원리에의 호소가 자아 문제의 해결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다. 서로 다른 여러 지각들이 연합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연합이 귀속될 구체적 자

22) Fogelin (1999), p. 224.

23) Stroud (1977), pp. 138-139 참조.

아가 없다면 그것은 나의 연합일 수도, 너의 연합일 수도, 어떤 다른 존재의 연합일 수도 있다. 이제 흠은 부록에서 이와 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절실히 깨닫고서 나름의 해결책을 강구하고자 애쓰지만, 그의 경험론은 자아 문제에서 불거지는 비경험적 형이상학적 가정들을 철저하게 배척하기 때문에 그가 기울인 모든 노력은 불행히도 수포로 돌아간다.

포겔린은 필자의 이러한 해석에 반대해서 물론 지각들의 연합의 귀속 문제가 중요성을 띠기는 하지만 그 문제는 흠에게 당연하게 가정되기 때문에 논란은 아니라고 주장한다.²⁴⁾ 오히려 그는 흠의 철학 체계가 일관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결국 서로서로 분리된 지각들에 더해 그것들이 자신 안에서 묶여 통합되는 것을 지각하는 실질적 자아가 반드시 있어야만 하지만 그의 경험주의에 의해 귀결된 지각들의 극단적 원자화는 전자는 용인하지만 후자는 용인하지 않는 탓에 이제 지각되지 않지만 존재하는 지각이 상정되는 부조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부록에서 이 부조리를 자각한 흠은 갑작스레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또한 이와 같이 지각들의 극단적 원자화라는 전거에 기초해서 실질적 자아의 부재를 부록에서 표출된 흠의 불평의 근원으로 보는 자신의 해석은 일정 정도 타당한 전거에 의한 뒷받침 없이 어디까지나 해석 자체를 위한 목적에서 실질적 자아의 현존을 역설하는 여타 주석가들의 입장들 보다는 상대적으로 우월할 것이라고 믿는다. 물론 그 역시 하필 왜 흠이 이처럼 중요한 언급을 빠뜨리는 것인지에 대한 물음에는 모른다고 답하고 있지만 말이다.²⁵⁾

필자가 보기에, 포겔린이 실질적 자아의 부재를 부록에서 표출된 흠의 불평의 근원으로 보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는 듯하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은 전거도 갖추고 있어서 나름의 설득력도 지닌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에 도달하기 전에 포겔린이 그저 대수롭지 않게 보고서 넘긴 지각들의 귀속 문제는 결코 흠에게서 아무런 의심 없이 당연히 수용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해석상의 한계가 불거진다. 오히려 필자는 포겔린이 애당초 제대로 지각들의 귀속 문제를 짚고 넘어가면 그의 해석을 한층 일관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작업의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기제를 칸트적 통찰로 이해한다. 칸트는 대체로 자아를 자의식이나 통각으로 이해하는데, 그것은 구분된 두 층위를 갖는다. 초월적 자아와 경험적 자아의 상호 구별이 바로 그러한 것인 셈이다. 하지만 양자의 층위는 한낱 논리적으로만 구분 가능하며 존재론적으로 이야기되는 구분은 고려되지 않는다.

모든 필연성에는 항상 초월적 조건이 기초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직관들의 잡다의 종합에서, 그러니까 객관들 일반의 개념들의 종합에서조차, 따라서 경험의 모든 대상들의 종합에서조차 의식의 통일이라는 초월적 근거를 반드시 만나게 된다. 이러한 근거가 아니었다라면, 우리가 직관들에 관해 어떤 대상을 생각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 이 근원적 초월적 조

24) Fogelin (1999), p. 224 참조.

25) Fogelin (1999), pp. 225-227 참조.

건이 바로 다름 아닌 초월적 통각이다. 내적 지각에서 우리의 상태의 규정들에 따르는 자기에 대한 의식은 한낱 경험적이고, 항상 전변적이다. 내적 현상들의 이 흐름 속에서는 지속적인이고 항존적인 자기는 있을 수 없고, 그것은 보통 내감, 또는 경험적 통각이라고 불린다. 반드시 수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표상되어야만 할 것은 경험적 자료에 의해서는 그러한 것으로 생각될 수 없다. 그것은 모든 경험에 선행하면서 이 경험 자체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자, 그러한 초월적 전제를 타당하게 하는 조건이어야만 한다.²⁶⁾ (A106-107)

칸트의 용어법에 따르면, 포겔린이 실질적 자아로 이해하는 것은 다름 아닌 현상 중에 구체화된 경험적 통각이며, 그것은 초월적 통각에 애당초 의존해서 파생적으로 가능하다.²⁷⁾ 따라서 칸트적 통찰을 좇으면, 포겔린이 나름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당연한 흠적 전제로 치부해서 도외시한 지각들의 귀속 문제는 이제 적절한 처방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열린다. 언제나 초월적 통각은 (논리상) 경험적 통각에 앞서서 어떤 시점의 나가 다른 시점의 나와 일관되게 이어지도록 규정하며, 이러한 활동이 지각들에 두루두루 수반하는 한에서 우리는 그것들이 나에게로 총체적으로 귀속되어 연합되는 데 이른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²⁸⁾ 이러한 초월적 통각의 활동이 완료되어 그것이 시공간적 위치를 점유하는 구체적 대상으로 나타날 때 이제 그 대상은 현상 중에 나타나는 나라는 의미에서 경험적 통각이라고 불린다. 칸트는 이 과정을 다름 아닌 의식적 차원의 초월적 통각이 인식적 차원의 경험적 통각에 도달하는 과정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그러한 논의는 곧 의식이 대상과의 연관에서 인식이 되는 것이 결국 가능함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요약해 보건대, 순전한 의식에 주어진 잡다를 종합해서 미규정된 초월적 대상을 (하나의 어떤 구체적) 경험적 대상에 이르도록 규정하는 노력이 쏟아지기 때문에 결국 초월적 대상이 경험적 대상이 되는 것이며 여기에서 동시에 이제 초월적 통각은 (의식성을 넘어서서 후에 곧장 인식성을 드러내서) 경험적 통각이 된다. 이에 더해, 미규정된 초월적 대상에 의해 촉발된 잡다에 기초해서 의식의 초월론적 활동은 서로 마주해 있는 주체의 경험과 그 경험의 대상을 항상 선험적 방식으로 종합하기 때문에 결국 경험적 주체의 인식론적 가능성 구조와 경험적 대상의 존재론적 가능성 구조는 같다.

경험 일반을 가능하게 하는 [인식론적] 조건들은 동시에 그 경험의 대상들을 가능하게 하는 [존재론적] 조건들이(...)다. (A158 / B197)

26) 이후 논의에서 『순수이성비판』을 인용하는 경우 관례대로 초판(1781)과 재판(1787)을 구별하여 각각 알파벳 ‘A’와 ‘B’로 표기한 후에 쪽수를 아라비아 숫자로 나타낸다. 또한 인용을 위해 베를린 학술원판 전집의 제3권(재판)과 제4권(초판)을 기초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독일어 원문의 국문 번역은 이미 출간된 국역본을 대체로 참조하되 필요에 따라서 때때로 수정한다.

27) Keller (1998), p. 1 참조.

28) 칸트는 말한다: “나는 사고한다”라는 것[활동]은 나의 모든 표상들에 수반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면, 전혀 생각될 수 없는 것(...)이 나에게서 표상되는 셈이 될 것이니 말이다. (...) 그러므로 직관의 모든 잡다는 이 잡다가 마주치는 그 주관 안에서 ‘나는 사고한다’라는 것과 필연적 관계를 맺는다.” (B131-132)

칸트는 이와 같이 자아의 두 구분된 (초월적 및 의식적 vs. 경험적 및 인식적) 층위를 분명하게 그의 시야에 함께 두면서도 초월적 통각이 떠받치는 인식론과 존재론의 확실성은 초월적 대상에 의해 촉발된 잡다를 조건으로 전제할 경우에만 성립 가능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의 사유는 대상과의 아무런 연관 없이 실질적 자아만을 살피는 포겔린의 사유와 다른 측면이 많다. 하지만 칸트적 통찰은 흄에게 포겔린적 독단적 가정을 씌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나은 듯하다. 적어도 필자의 눈에는 그렇다.

필자는 흄이 얼마나 포겔린적 사유를 따를 것인지 알지 못하며, 더 나아가 얼마나 그 사유를 칸트적 통찰로 야심차게 보완한 필자의 사유를 따를 것인지 역시 전혀 알지 못한다. 어찌면 그는 이러한 해석 모두를 으레 터무니 없다고 볼지도 모른다. 그의 시각에서 보면, 인간학에 기초한 가르침에 충실할 경우에만 철학은 의미를 갖는데, 그러한 의미는 언제나 경험에서 실질적으로 관찰되는 것에서 구해질 수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부록에서 표출된 흄의 불평이 그의 경험주의 철학의 한계를 향하는 것이라면, 적어도 필자의 해석은 일관된 자아 형이상학 체계를 나름대로 제시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물론 필자의 해석은 또한 『인성론』 1권 논의 이후 2권 및 3권 논의에서 줄곧 탐구되는 일상적 구체화된 자아를 정립하는 데도 기여한다. 칸트적 통찰에 기대 일단 이론적 자아가 허구성이 아닌 확실성을 통해 정립되면, 실천적 자아도 마땅히 쉬이 말해질 것이니 말이다.

[참고문헌]

- Hume, David [1739] (2000), *A Treatise of Human Nature*, David Fate Norton & Mary J. Norton (ed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데이비드 흠 (1739), 이준호 역 (1994), 『오성에 관하여-인간 본성에 관한 논고 1』, 서울: 서광사.
- Kant, Immanuel (1911), *Kants Gesammelte Schriften* (Akademie Ausgabe), hrsg. von der Königlich Preussischen [Deutschen] Academie der Wissenschaften, Bde. 3 & 4. Berlin: Georg Reimer [Walter de Gruyter].
- 임마누엘 칸트 (1781 & 1787), 백종현 역 (2006), 『순수이성비판 1, 2』, 서울: 아카넷.
- 김효명(2001), 『영국경험론』, 서울: 아카넷.
- 양선이(2012), 「흠-지각다발로서의 마음과 역사적 자아」, 『마음과 철학 서양편 상』,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pp. 301-335,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Ellis, Jonathan (2006), “The Contents of Hume’s Appendix and the Source of his Despair”, *Hume Studies*, 32(2): 195-231.
- Fogelin, Robert J. (1999), “The Soul and the Self”, in Margaret Atherton (ed.), *The Empiricists: Critical Essays on Locke, Berkeley, and Hume*, pp. 213-228, Lanham: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 Garrett, Don (1981), “Hume’s Self-Doubts about Personal Identity”, *The Philosophical Review*, 90(3): 337-358.
- Inukai, Yumiko (2012), “James’s Answer to Hume: The Empirical Basis of the Unified Self”, *British Journal for the History of Philosophy*, 20(2): 363-389.
- Keller, Pierre (1998), *Kant and the Demands of Self-consciousnes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cIntyre, Jane L. (1989), “Personal Identity and the Passions”, *Journal of the History of Philosophy*, 27(4): 545-557.
- Stroud, Barry (1977), *Hume*,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plc.
- Yang, Sunny (2018), “Hume’s Second Thoughts on Personal Identity”, *Problemos*, 94: 182-193.

「흠에게서 자아 형이상학」에 대한 토론문

정진범

(강릉원주대학교 철학과 교수)

이 논문은 데이비드 흠(1711-1776)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자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흠은 17-18세기 영국에서 발전한 경험주의 철학의 노선을 이어받아, 그 근본 원칙을 일관되게 밀고 나아가면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철학자이다. 그런 만큼 흠은 경험주의 철학의 한계를 조정하고 있으며, 왜 우리가 거기에 멈출 수 없고 그 이후(특히 칸트의 비판 철학)로 계속 나아가야만 했는지를 깨닫게 해준다. 이 논문이 신중한 논증으로부터 도달하고 있는 과감한 결론은 흠의 이러한 철학사적 위치가 갖는 양가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철학사에서 흠은 경험주의자이자 회의주의자, 그리고 자연주의자라는 명칭을 부여받고 있다. 그는 “경험을 통해 실제로 관찰 가능한 것만을 모든 학문의 평가 척도로 삼고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단순히 침묵해야 한다”(p.4)는 경험주의 원칙을 가장 끝까지 밀고 나간 철학자라는 점에서 탁월한 경험주의자이다. 이렇듯 경험주의 원칙을 관찰하다 보면, 인과적 필연성이나 외부세계의 실재, 자아 관념 등 전통 철학의 핵심적 개념들이 그에 상응하는 경험적 토대 없는 독단적 허구에 불과한 것으로 판명된다는 점에서 흠은 회의주의자이다. 또 흠은 우리가 그와 같이 경험적 토대가 없는 허구적 개념들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 개념들이 우리의 자연적 경향성이 낳은 사고 습관(=상상력에 기초한 관념 연합의 원리)의 산물이라고 답한다는 점에서 자연주의자이다.

이 논문의 1부에서 논자는 그와 같은 흠의 입장이 자아 문제를 어떻게 해명하고 있는지를 주로 인성론 1권(4절, 6절)에 기초하여 해명한다. 전통적으로 자아는 시간 속에서 동일하게 유지되는 우리 내부의 정신적 실체로서, 우리에게 이미 너무 당연한 듯 느껴지는 친숙한 개념이다. 그러나 흠에 따르면 자아 관념은 그에 상응하는 대상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근거 없는 착각이며, 면밀히 고찰할 때 우리가 자아라는 하나의 동일 불변적 실체를 지각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저 순간 순간 바뀌는 파편적인 지각 경험들(“지각들의 다발”로서의 자아) 뿐이며, 우리

는 그것들을 근거에서 떠받치는 (마치 그릇과 같은) 하나의 실체가 있다고 가정하여 거기에 자아라고 이름 붙였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어서 2부에서는 인성론의 부록이 주로 분석된다. 부록에서 흠은 앞선 설명에 대한 불만과 회의를 표명하고 있는데, 이로부터 논자는 흠이 칸트적 통찰을 선취하는 길로 나아간다고 주장한다. 자아에 대한 파편적인 지각 경험들의 다발이 곧 자아라는 종전의 설명을 넘어설 필요성을 흠 스스로가 느꼈고, 다시 말해 그는 파편적인 자아 경험들을 한데 묶는 단순한 “끈”(상상력, 기억 등)이 아니라, 그 경험들을 한데 귀속시킬 무엇, (그릇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끈 이상의) 무엇이 있어야 할 필요성을 예감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예감은 결국 이후에 칸트의 “초월적 통각” 개념과 정합적이라는 것이 논자의 주장이다.

이상의 논의에 대해 본 논평자가 묻고 싶은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 논평자는 “끈”과 “그릇”의 비유를 도입했는데, 이러한 비유가 타당하다면 이때 흠-칸트적 “그릇”과 전통 형이상학적 자아의 “그릇”은 성격상 어떻게 다른지 (혹은 비유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도) 설명해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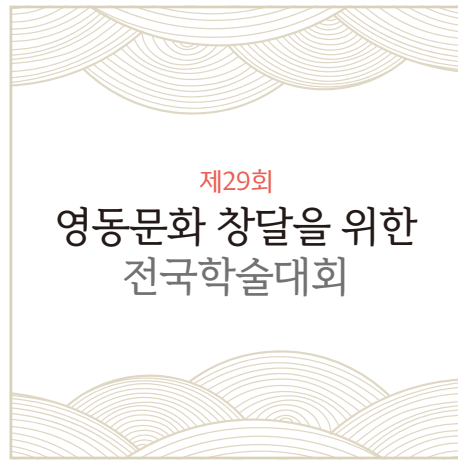
둘째, 본문에서 흠 철학의 제1원리라고 말해지는 복사 원리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셋째, 흠은 자아 개념의 발생을 관념 연합의 원리에 따라 설명하는데, 이 원리는 지각들의 유사/인과/근접에 작용하는 원리이다. 그런데 흠은 유독 자아에 관해서만큼은 근접을 배제하고 있고, 이에 대해 논자는 근접 또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각각의 관계에 따라 자아 개념이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지 궁금하다. (또 흠은 인과 법칙을 부정하는데 그럼에도 여기 다시 인과가 등장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넷째, 흠이 파괴하고자 하는 전통 형이상학적 관념들 가운데 왜 유독 자아 개념만큼은 여타의 개념에 대한 그의 설명 방식으로는 충분히 해명되지 않는지, 즉 자아 개념이 제기하는 유난스러운 철학적 난점(“자아 문제의 특수성”(p.3))이 정확히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정리해주면 좋겠다.

다섯째, 논자의 해석에 따르면 흠은 자신의 해법에 스스로 불만을 느끼고 칸트적 노선을 취하게 되는데, 이는 결국 그 자신의 철학적 근본 전제, 곧 경험의 한계내부에만 머물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험론의 실증주의적 성격을 흠 스스로가 포기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 이때 논자가 주장하는 바는 정확히, 흠이 경험론을 이

탈하고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흠의 자연주의적 틀 안에서 초월철학적 단초가 정합적으로 포괄될 수 있다는 주장인 것인지 궁금하다.



발행인 | 강릉원주대학교 인문학연구소장 최 일 의

발행일 | 2022년 11월 8일

발행처 | 강릉원주대학교 인문학연구소

- ※ 이 책의 무단전제와 복제를 금합니다.
- ※ 이 책자는 강릉시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